



7

주제 97(200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7(2008)년 제7호

(루계 제729호)

차례

수령영생문학의 새시대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3
수령님과 붉은기	7
태양의 모습 안고삽니다	7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8
금수산의 숲이 시들다.....	8
옛 최고사령부 트랙에서 (외1편).....	9
영원한 불발로 끝장나리라.....	9
주체문학의 대강	10
흙에 대한 담시	10
열다섯번째 해	11
경구, 격언.....	22
여기에 사다리가 있다 (외2편).....	23
사랑과 전쟁	23
편지	24
날씨를 예보하고 시간을 알리는 꽃들.....	24
로동자합속에 어린 뜨거운 사랑	25
총대의 습격	25
겨울날이야기.....	26

만점짜리	27
쇠물봉화	27
철은 무거웠던가	28
세계적으로 번성하고있는 《유모아산업》	29
불타는 야금기지에서.....	30
아 들	32
마천령아 너를 불러불러	33
내앞으로 다가온다	33
칠보산의 새 절경 황진마을	35
나는 너를 사랑한다	37
그는 추격기비행사였다	38
사랑의 프락	48
걱정과 웃음	49
병사와 고향	51
아동시창작에서 개성적인 동심적형상기교의 탐구.....	52
미국 《후사경》	56
관측원들은 보고한다.....	57
금방석 - 이 나라 너인들에게 -	61
서정의 진실성, 깊은 철학적여운	67
들국화 서른일곱송이.....	69
《송석원시사》	78
헤밍웨이의 수표	80

수령영생문학의 새시대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최언경

오늘 우리는 세월과 더불어 더해만 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한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수령님서거 14돐을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과 애국, 애족, 애민의 거룩한 헌신으로 수놓아져있으며 조국과 민족, 세계와 인류앞에 쌓은 불멸의 업적으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숭고한 도덕의리와 충정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즐기차게 굽이쳐흐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가장 빛나게 실현하시고 수령영생문학의 새시대를 펼쳐놓으시였다.

이것은 백수십년 국제로동운동사에 전무후무하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느 당도 실현할수 없는 세계사적사변이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과 주체문학사에 쌓아올리신 업적중의 가장 빛나는 업적이다.

수령영생위업, 그것은 위대한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로서 조국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는 절대의 신념이며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성스러운 위업과 그 불멸의 업적에 대한 철저하고도 영원한 계승이며 수령의 사상과 유훈을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리념, 지도사상으로 받들고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가장 숭고하고 성스러운 위업이다.

수령영생위업은 그 후계자의 충정의 위업이며 그 숭고한 뜻을 따르는 인민대중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수령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최고뇌수로서, 수령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서 영생하고 계십니다.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피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서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수령영생위업의 새 력사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의 주체문학이 수령영생위업에 참

답게 이바지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어 인류문예사가 처음보는 수령영생문학의 새 전기를 마련하시고 그 찬란한 개화기를 열어놓으시였다.

수령영생문학건설위업은 수령영생위업의 한 부분으로서 오늘 위대한 선군령장형상문학과 더불어 선군혁명문학의 가장 빛나는 정수를 이루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영생문학예술의 새 길을 개척해나가는데서 모든 예술의 사상미학적 기초이며 기본인 문학이 선구자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가사문학을 맨 첫자리에 내세우시어 민족의 대국상을 당해 피눈물속에 몸부림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노래를 주시어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노래가 온 강산에 울려 퍼지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정력적인 령도와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어 이 땅우에, 이 하늘가에 수령영생의 노래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시어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힘과 용기를, 원쑤에게는 공포와 죽음을 안기시였다.

세상사람들은 이 기적적인 문예사적사변을 두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특이한 음악정치 승리라고 격찬해마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지금까지 불리워온 수령송가가운데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제일 사랑해온 노래가 어떤것인가를 두고 깊이 마음쓰시며 그 노래 한곡한곡을 정히 고르시어 어버이수령님 생존시보다 더 절절하고 감명깊게 울려가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인류문예사상 처음으로 주체의 송가리론을 정립하시고 그 구현으로 우리 시인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이것은 실로 우리의 가사문학을 영원한 태양찬가의 문학으로, 수령영생의 송가문학으로 되게 하는데서 사변적의의를 가지는것이였다.

어찌 그뿐이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비바람, 눈보라를 헤치며 험산준령을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그리운 쪽잠과 끼니마저 미루시며 인간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아름답 찬 헌신과 로고를 바치시어 수백수천권의 가사문학을 지도해주시고 시대의 명작으로 완

성해주시였다. 이리하여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후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의 기념비적절작으로 완성시켜주신 수령영생송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를 비롯하여 《높이 들자 붉은기》, 《해빛같은 미소 그림습니다》, 《포전길 걸을 때면》, 《수령님은 인민의 태양》, 《장군님추억》 그리고 아동가사 《대원수님 뵈고싶어요》와 같은 수많은 수령영생가사문학을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해 내놓을 수 있었다.

수령영생가사들은 한결같이 어버이수령님을 차마 못 잊어 곁에도 그 품을 찾고 부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의 정을 가슴뜨겁게 노래하고있다.

그중에도 천만년을 두고 길이 불리워질 수령영생송가의 최고명작인 가사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는 진정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충정의 사상예술적정화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민족이 대국상을 당한 직후 수령영생구호를 제시하시면서 구호의 사상을 담은 수령영생송가를 창작할데 대한 구상을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영생송가창작전투를 벌리도록 하시고 작품의 종자로부터 시작하여 제목과 표현 하나하나를 세심히 지도하시어 시대의 명작으로, 국가와도 같은 특출한 절작으로 완성시켜주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훌륭히 반영한 시대의 기념비적절작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비범한 예지의 고귀한 결실이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그 불같은 충정이 뜨겁게 깃들어있어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령영생송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를 심장으로 부르고부르며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길이 축원하면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사문학과 함께 수령영생시문학을 왕성하게 창작하도록 시인들을 불러일으키시어 우리의 시문학이 전군, 전민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으로 힘있게 고무하는 전투적기치로 되게 하시였다.

혁명적인 시는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이며 시인은 그 기수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편의 혁명적인 시는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 수 있다.》는 위대한 시의 철리를 시인들의 심장깊이 다시금 새겨주시고 수령영생시문학창작에서도 시인들이 맨 앞장에서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영생시문학에서 사상적핵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이리하여 시인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수령영생시작품창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여기서 선구자적역할을 한것이 어버이수령님께서 1뚝에 즈음하여 창작발표된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이다.

이 서사시에 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노래한 《평양시간은 영원하리라》, 《불멸하라 위대한 영생의 노래여》, 《번영하라 김일성조국여》,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 《영원무궁하라 조선의 미래여》와 같은 수령영생서사시들이 려이어 명작으로 창작됨으로써 수령영생위업의 심오한 철학세계를 단수높게 펼쳐보이면서 20세기 마지막시단을 새로운 형의 기념비적서사시들로 빛나게 장식하였다.

수령영생에 바쳐진 이 서사시들은 한결같이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적품도와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노래하면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참으로 감명깊게 이야기하고있다.

서사시들은 절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사상과 의지, 감정과 정서를 감동적으로 묘사하면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서사시의 형식을 새롭게 혁신하고 송가적특성을 훌륭히 구현한것으로 하여 선군시대 서사시의 새로운 본보기로 되었다.

그중에서도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는 수령영생시문학의 화원을 가장 빛나게 장식한 기념비적절작이다.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는 수령영생문학의 최고절작이며 선군시대의 만점짜리 명작이다. 서사시는 조국의 흥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친신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애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되새겨보면서 조국과 인류,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린신 수령님의 영원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수령님은 영생하시며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어제 또 오늘도 그리고 래일 또 영원히 흐른다는 철석의 신념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4(1995)년 6월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자신께서 하자고 하던 말을 다 했다고, 이 서사시는 다른 시들보다 단수가 높고 철확성이 있으며 시구성자체가 폭이 넓고 주체적대가 확고히 섰다고, 수령님은 위대한 인간이시라는 내용을 그린것을 보아도 시를 대담하게 잘 썼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서사시가 다른 시들보다 단수가 높고 철확성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인간, 위대한 수령의 위대한 세계에 원천을 둔것이다.

위대한 인간이 있어 위대한 인간학이 있다.

천출위인들이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이 위대한 세계가 아니었다면 서사시는 애당초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것이다.

서사시가 다른 시들보다 단수가 높고 철확성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시인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시던 말씀을 그대로 심장에 받아안고 문헌에 담겨져있는 심원한 사상과 천하제일 명언들을 그대로 담았기때문이다.

용해공출신의 젊은 시인은 피타는 노력과 뜨거운 열정을 바쳐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에 새겨진 명언과 명제의 마디마디와 구구자자를 자기의 뼈와 살로 폐부에 새기였으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였다. 하여 마침내 시인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지, 감정과 정서, 지어는 심장의 박동까지도 자신의것으로 받아안았으며 그 소중한 모든것을 대담하게 시적환상에 담아 그리도 자신만만하게 확신에 넘쳐 목청껏 노래할수 있었던것이다.

참으로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가 선군시대의 만점짜리 최고절작이라면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거기에 사상과 넋을 주시고 뜻과 정을 부어주셨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향도의 손길아래 우리 시인들은 수령영생서사시와 함께 수령님의 영생을 축원하는 주옥같은 서정시들도 수많은 창작해내놓았다.

《아! 4월이여, 목메이는 그리움이여》, 《뵈고싶은 마음》, 《수령님과 봄》, 《울음홀》, 《수령님은 함께 계신다》, 《수령님축복》, 《영생의 세기로 이어진 7월이여》, 《태양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조선의 세월》, 《불멸의 생애》 등이 그 대표작들이다.

서정시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그리움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속에 혈육의 정으로 자리잡은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인것으로 하여 시간속에 영원하고 세월과 더불어 더 뜨거워지는 그리움이라는것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시문학과 함께 또한 수령영생소설창작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어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령사에 아로새겨주시였으며 수령형상문학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올려세우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영생문학건설에 쌓아올리신 참으로 고귀한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형상문학총서인 《불멸의 령사》를 더 높은 경지에서 더 왕성하게 창작하도록 우리 작가들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작가들은 수령영생위업의 새 령사가 펼쳐진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업적, 숭고한 위인적품모를 훌륭히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령사》중의 장편소설들인 《영생》, 《붉은 산줄기》, 《개선》, 《삼천리강산》, 《열병광장》, 《푸른 산악》, 《대지의 전설》, 《인간의 노래》, 《태양찬가》, 《청산별》 등 수많은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해 내놓음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을 새로운 사상예술적높이로 발전시키고 소설에서 수령영생문학의 새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장편소설들은 각이한 령사적시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총서 《불멸의 령사》의 령속편들로서 수령님의 위대성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특히 총서 《불멸의 령사》중의 장편소설 《열병광장》과 《푸른 산악》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선군혁명로선의 기초가 어떻게 마련되고 굳건히 다져졌는가를 실재한 령사적사실에 대한 거창한 서사시적화폭을 통하여 빛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선군시대의 가장 훌륭한 명작으로 된다.

수령영생소설문학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인 주체83(1994)년의 빛나는 혁명활동을 참으로 눈물겹도록 감동깊게 형상한 장편소설 《영생》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영생문학을 창작하는데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83(1994)년에 대한 형상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참으로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러 기회에 하신 말씀들에서 작품의 종자와 사상적대는 물론 이야기줄거리와 생활세부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그 이후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작품창작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제기된 모든 사상미학적문제들에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으로써 소설을 수령영생문학의 대표작으로 최상의 높이에서 완성시켜주시였다.

장편소설 《영생》에는 지금도 되새기면 목메이는 눈물겨운 생활세부가 있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생애의 마지막날들인 7월 5일과 6일에 있을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지도문제를 놓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누신 마지막전화대화의 장면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병이 심해지신 수령님의 건강이 넘어드시어 이번만은 회의지도를 뒤로 미루실것을 인민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절절히 아뢰시였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 자신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라가 통일되고 우리 인민이 잘 살게 되는것을 보고야말겠다고, 그래서 협의회에 기어이 참가하자는거라고 걱정을 터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불태우시려는 수령님의 그 열렬한 소망을 장군님께서인들

어찌 막으실수 있었겠는가.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는데 동의하시었다. ...

인간이 참으로 인간적임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두분의 위인을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가를 이 짝막한 세부보다 더 가슴뜨겁게 이야기하지는 못할것이다.

실로 장편소설 《영생》은 이 주옥같은 세부하나만으로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 수령영생의 기념비로 된다.

작품은 발표되자마자 국내외독자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생을 바라는 만민의 절절한 념원의 표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진보적인민들속에서 일어난 이 열렬한 반향을 헤아리시여 장편소설 《영생》을 무려 3번이나 재판발행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참으로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영생》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 순직하신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에 대한 기념비적서사시인 동시에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와 한없이 거룩한 충정에 대한 영원불멸의 화폭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수령영생주체의 단편소설들도 왕성하게 창작되였다.

단편소설 《동지에 대한 추억》, 《고향의 가을날에》, 《따뜻한 눈》, 《대홍단의 아침노을》, 《매혹》, 《사랑의 아침》, 《날개》 등이 수령영생문학을 훌륭히 장식한 단편소설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또한 일대 전성기를 펼친 수령영생문학에서 특색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혁명전설들과 설화들을 대대적으로 발굴정리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수령을 형상한 문학은 송가와 함께 백두산전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시면서 혁명전설은 수령형상문학인것만큼 응당 수령형상문학으로서의 높은 사상에술적품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산전설을 수집정리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과거의 전설은 고대와 중세의 의식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창조된것이지만 백두산전설은 현대인들이 창작한것으로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은 혁명전설들을 서사화하는데서 참으로 귀중한 지침으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우리 작가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부터 분계연선 마을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을 편답하면서 아버지수령님의 서거와 때를 같이하여 일어난 신기한 자연현상들을 그대로 수집정리하여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전하는 추모설화집 《하늘도 울고 땅도 운다》, 《하늘땅의 조화》 그리고 설화이야기 《만민의 하늘》 등을 훌륭히 발굴수집정리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추모설화집과 함께 수령영생문학의 특색있는 새장을 펼친것은 또한 아버지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수많은 창조된 금수산기념궁전과 관련된 전설들을 묶은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이다.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창조되고 정리된 금수산기념궁전전설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인민전설로, 수령영생문학의 귀중한 재보로 된다.

참으로 우리 나라는 위인전설이 많은 나라이다.

이것은 수령복을 타고난 **김일성** 민족이 받아안은 또 하나의 특전이고 영광이고 행복이다.

참으로 일찌기 반만년민족사에 있어본적 없는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여 태양마저 빛을 잃고 지구의 무게도 가벼워졌던 그 비애의 나날에 수령영생문학의 새 전기를 마련하시고 그 찬란한 개화기를 열어놓으신것은 충정과 도덕의리의 최고 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헌신적고고와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이것은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실현으로서 우리 주체문학의 가장 귀중한 재보로, 수령형상문학의 보다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하여 영원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고귀한 업적으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김일성** 조선의 작가된 크나큰 긍지와 영광을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 주체문학의 진수인 수령영생문학전설위업에 온갖 심혈을 다 바쳐야 할것이다.

절세의 위인들의 한없이 위대한 세계는 그 형상에서 그 어느 문학보다도 높은 사상예술성과 품격을 요구한다.

수령영생문학은 그 사상미학적수준에서 최고의 최고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선군령장형상문학과 함께 수령영생문학창조를 초미의 파제로 변함없이 내세우고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온넋과 정력과 지혜를 남김없이 바쳐나가야 할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수령영생문학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세월의 끝까지 영원히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

수령님과 붉은기

전수철

다함없는 흙모의 정을 담아
온 세상이 삼가 올린
값지고 진귀한 선물들은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에
인민의 재부로 고이 남겨두시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받으신
금빛은빛 훈장과 메달들은
여기 금수산기념궁전에
조국의 재부로 길이 빛내주시고...

아 붉은기
붉은기 한쪽만을
위대한 심장우에
엮고계시는 수령님

그 붉은기 지켜
조국의 존엄 떨치셨기에
조국의 존엄인듯
붉은기를 안고 계시는것입니까

그 붉은기아래서
인민의 행복 꽃피우셨기에
붉은기와 오늘도

이야기를 나누고계시는건 아닙니까

조국의 존엄도
인민의 행복도
민족의 부강번영도
아 우리 수령님
붉은기로 담보하셨나니

그래서 우리 장군님
수령님 백두에서 안고오신
유산중의 유산인 그 붉은기 지켜
오늘도 선군혁명의 진두에서
천만군민을 이끄십니다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붉은기의 위대한 기수가 되시여
걸음걸음 광풍을 쳐갈기시며
자욱자욱 승리만을 떨치고계십니다

아 진정
우리 장군님 계시여
붉은기력사는 영원합니다
혁명의 붉은기와 더불어
수령님은 오늘도 영생하십니다

가사

태양의 모습 안고삽니다

김봉남

해빛밝은 아침에도 뵈옵는 모습입니다
노을피는 저녁에도 뵈옵는 모습입니다
아 수령님 태양의 모습
언제나 그 언제나 마음에 안고삽니다

포전길에 나서도 어려오는 모습입니다
공장구내 들어서도 안겨오는 모습입니다

아 수령님 태양의 모습
언제나 그 언제나 마음에 안고삽니다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모습입니다
주체조국 력사속에 영원한 모습입니다
아 수령님 태양의 모습
언제나 그 언제나 마음에 안고삽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신념은 혁명가의 생명입니다.**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은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힘을 믿는데서부터 생깁니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믿음, 자기자신의 힘, 자기 집단의 힘, 자기 인민의 힘, 자기 당의 힘을 확고하게 믿을 때만이 혁명가의 신념이 고수되는 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길에 들어섭니다. 문제는 그 신념을 얼마나 오래 고수하는가 하는것인데 그것은 련마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련마과정을 떨떨하게 거친 신념은 인차 부패변질됩니다. 신념을 련마하는 수단으로 되는것이 바로 조직사상생활과 혁명실천을 통한 정치사상적단련입니다.》

☆금수산기념궁전전설☆

금수산의 숲이 시들다

예로부터 금수산 하면 3대자랑중에 송백이 그 자랑이다.

송백은 무릇 푸름과 불변의 상징이니 비바람, 눈서리에도 시들줄을 모른다.

예로부터 충신렬사의 기개와 련녀절부의 지조를 송백에 비기는 리유가 여기에 있는것이다.

하나 이 송백도 한번은 시든적이 있었으니 그것도 사흘이나, 게다가 물기도 온기도 한창 좋은 한여름에...

1994년 7월 9일 비보가 전해지자 금수산기슭에 사는 리홍수는 마음을 달랠길 없어 울밀대가 바라보이는 송백림으로 찾아갔다.

한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직후부터 여러차례 금수산줄기의 주봉인 모란봉에 오르시여 나무도 심으시고 가꾸신 송백림이 거기에 있었기에 혹시 그날의 거룩하신 자욱을 찾아뵈것만 같아서였다.

그는 한생 모란봉의 숲을 가꾸고 관리하는 일을 해오다가 나이가 많아 집에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마음은 늘 거기에 가있었던것이다.

울며울며 숲가에 이른 홍수는 그만 가슴이 철렁했다. 싱싱 푸르기만 하던 잣나무, 소나무숲이 오늘따라 생기를 잃고 후줄근히 시들어있지 않는가. 어디를 보나 온 산이 고개를 숙인 처량한 모습—그것은 첫눈에도 《숲의 묵도》임에 틀림없었다.

홍수는 그달음으로 집으로 달려가 가족들에게 사연을 알렸다.

그의 안해 한영숙이 함께 숲으로 달려가보니 과연 숲의 정상이 애통하기 그지없었다.

푸르다못해 검기까지 하던 진록의 숲이 일조에 부엌계 색이 바랬는가 하면 송곳마냥 총이 세던 바늘잎은 삶아낸듯 풀이 죽고 대공을 향해 소소

리 설레이던 억센 가지들은 죽지가 부러진듯 가없이 처저있지 않는가.

수령님의 은정이 깃든 금수산의 숲, 자기의 녀과 한생의 천부가 깃들어있는 귀중한 숲이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

아니, 영숙은 이 《변괴》의 의미를 대변에 알 수 있었다.

숲도 수령님을 애도하여 머리를 숙인것이였다.

영숙은 눈물을 뿌리며 이렇게 말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모란봉의 이 숲에 별을 주시고 만리대공에 영생의 푸른 깃을 펼치게 해주시었는데 은혜론 그 태양이 가시였으니 숲인들 어찌 무심하겠어요?》

정녕 그랬다. 윤기를 잃은 뿌연 숲, 깃을 드리운 가지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아버지의 령전에 고개를 떨구고 서있는 어린 자식들의 애절한 모습 그것이였다.

수령님께서 계시는 금수산의사당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숲은 9일부터 10일, 11일까지 사흘이나 시들어있었다.

《3일조상》을 올린것이였다.

그후 식물학연구소의 한 박사의 말을 들으니 《숲의 이음(시늌)현상》은 이상기후풍토의 작용과 식물본능의 반작용의 조화로 생기는 현상이나 극히 드문 일이라는것이였다.

하긴 《조선봉건왕조실록》 500여년간의 기록중에서 숲이 시든 기록은 두번뿐이다. 구월산이 시들어 《무엽산》이라 했다는것과 태백산이 잎이 떨어져 《석골산》이라 했다는 기록이 전부이니 이번 금수산 송백림의 시늌는 그야말로 천고의 이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김우경

옛 최고사령부 드락에서 (외 1 편)

리범수

키낮은 천정
비좁은 방안엔
소박한 밥색작전대 하나
그우엔 연필과 확대경, 전화기...

천정이 너무 낮고 벽이 좁아서
지도들 절반씩 나누어붙인 집
벽가에 푸름한 들창문으로
한줄기 하늘빛이 비껴드는 집

하지만 저 작은 창문으로
전선과 후방을 다 내다보시며
무수한 사색의 선과 점들을
작전지도우에 새기셨나니

그 뉘가 다 알랴
여기서 1211고지와 351고지
정형고지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주체전법이 펼쳐졌음을

여기 그이 계신 집은 작아도
원쑤의 화점을 몸으로 막은
영웅전사의 치료전투가 설계되고
마침내 한달음에 달려와 안겨
수령님 옷자락을 눈물로 적신

크나큰 사랑의 전설이 태어난 집

바로 여기서
수많은 외국의 대표단들이
눈시울 적시며 깨달았더라
미제와의 전쟁이 얼마나 처절하고
조선의 값높은 승리가
어떻게 마련되고있는가를

오, 조선의 힘과 지혜를 모아오시고
조선의 신념과 의지를 다져주신 집
조선의 영예와 존엄이
세계의 하늘높이 솟아오른 집이어

너의 키낮은 지붕을 창공높이 펼치고
너의 수수한 나무기둥을
대리석기둥으로 다듬어세운들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으로 몰아간
수령님의 전승위업 어이 다 노래할수 있으랴

오, 최고사령부의 작고도 큰집이어
오늘도 래일도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조선의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력사에 선언하는 집이어!

영원한 불발로 끝장나라

전화의 날
최고사령부 산기슭에
오늘도 땅속에 박혀 녹쫓고있다
미제의 시체같은 대형불발탄

수치와 모욕을 면할길 없어
더는 너의 흉체를 숨기지 못했느냐
증오와 분노로 다져진 이 땅이
더는 너를 받아주지 않았느냐

조선의 심장을 타격하려고
적기를 불려온 반혁명의 음모
미제의 흉악한 그 야망을
저주로운 죄악속에 드러냈구나

모든 생명을
죽음의 불길속에 삼킨다는 네가
우리 수령님 지척에 떨어졌건만
어찌하여 불발탄의 신세를 면치 못했느냐

조선의 운명이시고
조선의 승리이신
하늘이 낸 위인이신 수령님앞에선
한점의 불꽃

한오리 폭연도 날리지 못했거니

하늘의 해빛을 가리우고
하늘의 태양을 떨어려는
어리석은 원쑤들의 그 야망이
어찌 이 땅에서 용납될수 있으랴

그렇다
최고사령부를 노려
원쑤가 던진 하나의 불발탄에서
병사들은 버린다
장군님을 옹위할
천만의 결사옹위 총폭탄을!

오 장군님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중천에도
풍랑세찬 바다밑에도
천길땅속에도
결사옹위 성새를 천층만층 쌓으리니

기억하라! 미제침략자들이
조선혁명의 수뇌부를 해치려는
네놈들의 그 어떤 핵탄도 미싸일도
영원한 불발로 끝나고말리라!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 주체성은 민족자주정신의 반영이다. 문학에서 민족자주정신을 반영한다는것은 문학창작과 건설에서 자기 나라 인민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며 자기 민족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게 형상을 창조한다는것을 말한다.》

《문학에서 주체성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의것에 정통하며 자기의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흙에 대한 답시

문동식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에 더 푸른
배추와 썩갓 시금치와 부루...
나이 지숙한 남새분조장과
포전을 돌아보시던 아버지수령님
포기포기 유심히 살펴보시며
소탈하게 조용히 하시는 말씀

—절기에 비하면 너무 어리구만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내가 가꾸는 포전의 남새를 돌아보자구
거기엔 정말 무성하거든

분조장은 그만 어리둥절
(내가 어떻게 수령님의 승용차에 오른담?)
흙냄새 배여있는 거북한 옷차림
젖은 흙이 어지럽게 묻어있는
자기의 신발을 내려다보며
그는 우물쭈물 몸돌바를 모르고...

어느새 그이는
분조장의 송구한 마음 헤아리셨는가
—차야 닦으면 되지
그러시곤
그의 등을 다정히 떠미시여라

울퉁불퉁한 농촌길 달리는 차안에서
그는 두발을 조심스러이
들었다놓았다 들었다놓았다
했어도 점점이 떨어지는 흙...

너무 웅색하고 난감한 마음속에
그는 차안을 둘러보는데
문득 눈에 띄우는
의자옆 구석에 나란히 놓여있는
흙이 묻어있는 호미와 낫가락—

(이게 과연 어찌된 일인가?
온 나라 일을 돌보시는 수령님께서
농쟁기를 싣고 다니시다니
흙을 가꾸는 우리와 다름없이

수령님께선 그 어데 가지여도
김도 매시고 풀도 베시는가?!)

홍분으로 그의 마음 끓고있건만
승용차는 어느새 저택에 들어섰네
발동은 꺼지고 문은 열리고
남새분조장은 내리자마자
허리춤에 찻던 수건을 손에 들고

그 순간 등뒤에서 울리는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음성
—흙을 그냥 두라구
했어도 그는
반쯤 문이 열린 승용차안으로
급히 들어서려 몸을 굽히었네

그러자 다시 울리는 그이의 음성
—담지 말라는데두
나는 한평생
땅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아버이수령님의 그 말씀에
분조장의 두눈엔 눈물이 핑그르...
언제나 레사롭게 밟고사는 땅이라고
그 땅에
넋과 정을 못다 기울인
자책과 아픔 죄스러움에
그만 숙인 머리 들지 못하는데

우리 수령님
결에 가까이 다가서시며 하시는
진정어린 뜨거운 말씀
—내 차에 흙이 묻지 않으면
농사가 안돼

하시고는
분조장의 손목을 정겹게 잡으시고
포전으로 천천히 이끄시었네

—장수원협동농장에서—

열다섯번째 해



백보흠

뽕죽지붕우에 피뢰침이 높이 꽂혀있는 낡은 종교식건물 한채가 가득나무숲이 우거진 야산기슭에 호젓이 앉아있었다.

7월의 무더운 밤, 여든세살 고령의 너류작가 루이저 린저는 고색이 짙은 이 자그마한 독립가옥에서 자기절로 조선의 인삼차를 끓여마시며 글을 쓰고있었다.

밖에서는 자주 우뢰가 울었다.

번개불이 빙글할 때마다 시꺼먼 구름덩이들이 널려있는 밤하늘이 창밖에 얼핏 비쳤다가는 분노의 고함소리같은 뇌성이 울리곤 하였다.

이마적 도이쉴란드의 전반적지역이 저기압권에 휘말려 어느 하루도 침침한 구름층이 벗겨지는 날이 없었다. 하지만 린저의 기분은 가을하늘처럼 맑고 마음은 즐거워 노상 흥분에 떠있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장 경모하는분이신 **김일성** 주석님의 주도하에 머지않아, 즉 이달 하순부터 평양에서 북남통일을 위한 최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된다는 경이적인 소식을 들었기때문이었다.

반세기에 이르는 긴 세월 **김일성** 주석님께서 나라의 통일문제로 하여 얼마나 마음을 쓰셨던가.

통일위업에 바치신 그이의 로고에 대해서 린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작가요, 심리학자였다.

이밤 그가 심혈을 기울여 쓰고있는 글이 바로 세계의 이목을 모으게 될 그 통일회담 첫날에 **김일성** 주석님께 쳐드릴 축하전보문이었다. 그는 최대결작의 송시와 같은 축전문을 엮어보려고 벌써 몇시간째 하나의 문자, 한개의 단어에도 지성을 고이면서 거듭거듭 글을 다듬고있었다.

문득 울리는 초인종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거 누구예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린저는 일어나 방문걸개를 벗기였다.

《밤중에 웬일이냐?》

《손님을 모시고 왔어요.》

며느리의 어깨너머로 친한두살 갓음직한 사나이의 갈색곱슬머리와 코수염을 기른 희고 길둥근 얼굴이 보이였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팔리아 라지오 및 텔레비존방송국 기자 레오나드 피틀론입니다. 급히 선생님과 면담할 일이 생겨 이렇게 밤중에 실풀합니다.》

류창한 도이쉴란드어로 자기를 소개한 기자는 먼 려행길에 지쳐서인지 침울한 표정을 지은채 긴 한숨을 내쉬였다.

(무슨 일이 그리 급해 이 밤중에 찾아왔을가?)

린저는 의아쩍게 생각하며 이팔리아기자를 서재로 안내하였다.

며느리는 손님에게 차라도 대접하려는지 서둘러 식당칸으로 들어갔다.

《먼길에 수고하셨습니다. 자, 앉으세요.》

린저가 쏘파에 자리를 권하였으나 무뚝뚝한 우울형의 사나이는 여전히 한점의 웃음도 없이 침울히 서서 방안을 둘러보았다. 서재에는 별다른 장식품은 없었지만 3면 벽을 가득 채운 사진들이 값진 명화처럼 숨엄한 색조로 방안의 품격을 돋구었다. 저기 먼 동방의 나라 조선에서 찍은 린저의 사진들이 그처럼 많았다. 그중에는 **김일성** 주석님을 한자리에 모신 사진들이 30여상이나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린저의 류다른 말년생활을 분식없이 반영하고있는 그리고 1초의 순간을 영원한 영광의 시간으로 만들어준 더없이 귀중한 가보들이었다.

《선생님, 우리 방송국에서는 **김일성** 주석님의 인도주의적대외활동에 대한 특별편집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싶이 주석님께서서는 지금까지 7만여명의 외국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은 국가수반들의 대외활동력사에서 있어보지 못한 최고의 기록입니다. 주석님을 가장 많이 접견한 인사들중 한분이신 선생님께서 우리 일을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당장 이틀후부터 편집물방영을 해

야 합니다.》

피틀론은 여전히 선자리에서 용건을 말하고 면담의 중대성과 긴박성을 강조하였다.

린저의 얼굴은 대뜸 밝아졌다.

《언제 봐도 당신네 방송국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김일성** 주석님에 대한 선전을 많이 했었지요. 그런 일이라면 열밤을 새워서라도 도와드리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송국의 요구를 말하세요.》

린저는 벌써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의 녀성으로서의 체소한편인 린저의 동식한 얼굴에는 인생의 수난과 고통을 말해줄듯 무수한 주름이 잡혀있었으나 커다란 반달형 눈은 젊은이와 같은 생기와 열정을 담고 반짝이었다.

이윽도록 방안을 둘러보고나서 소파에 앉은 피틀론은 앞차대에 놓인 신문철을 펴여보고 한장한장 번지였다. 이해 6월과 7월초의 신문들을 묶어 놓은 것이었다.

《최근신문 몇장은 비였을거예요. 손자애가 신문을 날라오군 했는데 며칠째 오지 않아서... 텔레비존까지 고장나서 요즘 사나흘동안은 바깥소식을 모른채 글만 썼답니다.》

소파에 앉으면서 린저가 하는 말이였다.

묵묵히 신문장을 번지던 피틀론은 **김일성** 주석님과 나란히 대동강유람선에 앉아있는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의 사진이 나지자 고개를 쳐들며 입을 열었다.

《지난 6월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간 지미 카터는 참으로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나는 **김일성** 주석님을 만나는 첫 순간부터 완전히 매혹되었으며 이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분이시라는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지요. 그러면서 **김일성** 주석은 미국의 건국과 운명을 대표하였던 3대 대통령들인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라함 링컨을 합친것보다 더 위대한분이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요. 카터는 크게 감동했을거예요. 주석님은 사실 그런분이시지요.》

《린저선생님이 주석님을 처음 접견하신것은 14년전인 1980년 봄이었지요. 그때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선생님도 이 사진의 카터처럼 웃으셨습니까?》

피틀론의 의외로운 질문에 린저의 눈길은 반사적으로 카터의 사진으로 옮겨졌다.

카터는 웃이를 조금 드러내채 눈을 쪼프리고 웃고있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며 웃었을것인가? 불안과 의혹으로 혼탁된 국도의 긴장속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평양에 발을 들여놓았던 그가 어떻게 저처럼 편안히 웃을수 있었을가. 그 웃음이 하도 인상적이어서인지 미국의 한 종교학자도 카터는 원래 해식은 웃음을 잘 웃는 사람이지만 평양에서 지은 웃음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진웃음, 석가의 깨우침을 받은 법열의 웃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고 하였다.

나도 카터처럼 웃었던가? 린저는 이렇게 자문하며 각이한 양상의 사진들이 년도별로 주련이 걸려있는 서재의 벽을 건너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맨 첫자리에 걸려있는 사진편액에서 오래도록 멎어있었다. 그것이 바로 **김일성** 주석님을 처음으로 만나뵈던 1980년 봄날에 새겨진 첫 사진이었다.

사진속의 린저는 웃고있는것이 아니라 울고있었다. 회견탁 이쪽에서는 주석님께서서 련민에 젖은 눈길로 린저를 지켜보고계시고 저쪽에서는 린저가 수그린 얼굴에 손수건을 싸쥐고있다.

(나는 그때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큰 울음을 터쳤다.)

린저는 갑작스레 세월이 14년전의 과거를 향해 거꾸로 줄달음쳐가는듯싶었다. 아니, 그때로부터 생활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것 같은 생동한 현실감에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나는 예수아홉살이 되던 인생의 황혼기에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어요.》

린저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가 평양방문의 길에 올랐을 때 여러 나라 보도계들은 두가지 소식을 전하며 크게 떠들었다. 하나는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 이오찌프 브로즈 띠토의 서거에 대한 소식이였고 다른 하나의 소식은 남조선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청년학생들의 반《정부》시위 운동이었다.

그무렵 서방의 어느 한 신문에는 린저의 평양방문을 적의적으로 예고하는 험악한 글이 실리였다.

《띠토의 서거로 하여 **김일성** 주석이 슬픈 마음으로 유럽을 방문하고있는 때에 그리고 반《정부》시위에 나선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이 전두환과쑨의 총칼에 피흘리고있는 때에 방정맞게도 도이쉴란드의 루이저 린저가 평양을 찾아 길을 떠났다. 정객들로부터는 〈부리사나운 철새〉로, 신자들로 부터는 〈사탄의 시녀〉로 비난을 받고있는 심술궂은 할미가 무슨 마음을 먹고 평양이라는 공산주의성곽안에 들어가려 하는가?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독이 묻은 부리로 수많은 정객들과 고명한 인사들의 얼굴을 쫓고 허비여 아픈 상처를 입힌 루이저 린저, 이미 〈고래싸움〉이라는 비평글로 남조선의 총치를 해집어서 세상에 드러내보인 이 할미가 이제는 또 조선의 허물을 들추려간다. 남을 헐뜯고 망신시키는것이 이 로파의 기쁨이다. 그러나 백발백중하는 **김일성** 주석의 무자비한 사냥총이 늙은 철새—마고할미의 몸통아리를 먼저 쏘아떨굴것이다.》

이것은 다벤취라는 정체모를 사람이 쓴 글이였다. 이 사람은 이미 근 20년전부터 기회가 생길 때마다 린저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는 글을 서방신문들에 써내곤 한 수수께끼의 인물이었다.

다벤취는 본명이 아니라 닉명이였다.

린저의 평양방문목적을 까밝힌 다벤취의 글은 참으로 악의에 가득차 있었으나 전혀 터무니없는

험구라고 말할수는 없었다.

일찌기 젊은 시절에 전쟁으로 하여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그 자신은 반나치스체제의 문필활동을 벌린 죄아닌 《죄》로 사형판결까지 받은바 있는 린저는 실지 지난 30여년동안 증오의 서리가 돋은 필봉으로 수많은 파쑈분자들과 군국주의자들의 얼굴을 쫓고 허비였다. 그의 날카로운 글공격으로 봉변을 당한 대통령급의 정객들만 하여도 한두명이 아니었다. 그러다보니 권세있는 정객들속에 린저의 적이 많이 생겨났다. 권모술수에 능한 그들은 린저의 얼굴에 먹칠, 칼질을 하도록 어용문필가들을 부추겼는데 다벤취라는 《북면문필가》도 그러한 고위정객들과 련결되어있는 인물인지 모른다.

하지만 린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어떤 악담을 퍼붓든 자기 할소리를 다하는 녀자였다. 그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세차게 반발하는것이 루이저 린저의 기질이였다.

린저를 험상스레 공격한 다벤취의 글이 내외에 널리 퍼졌지만 그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린저는 모스크바에서 쏘련안전일군들의 단속으로 여러날 애를 먹고 간신히 조선의 수도 평양에 들어설수 있었다.

린저는 숙소에 려장을 풀기바쁘게 펜을 쏘나들고 여기저기 분주히 뛰어다니였다.

서방에서만 살아온 그는 남조선에 못지 않게 조선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다.

그는 첫 하루동안에 벌써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고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눈에 쌍심지를 켜들고 돌아다녔지만 목적인대로 어두운 구석을 찾아내 기란 조련치 않았다. 아니, 찾아낼수 없었다.

이러한 때 마침 그는 조선의 외사일군으로부터찌포대통령의 장례식에 참가하고 귀국하신 **김일성**주석님께서 부르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다.

린저는 가슴이 후드득 뛰었다. 세계 여러 나라수반들과 단독면담을 많이 해보았고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린저였지만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의 머리에는 다벤취의 글이 지긋게 갈마들었다.

주석님께서도 분명 다벤취의 그 험악한 글을 보셨을터인데 무슨 의도로 부르시는것일까?

커다란 의문부호가 그의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린저를 태운 승용차는 넓은 거리를 따라 한참 달리다가 어느 건물앞 넓은 마당으로 소리없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에서 내린 린저는 고개를 수긋하고 화강석층계를 밟아오르다가 마지막계단에서 천천히 머리를 쳐들었다. 순간 린저는 자기 눈을 의심하며 우뚝 굳어졌다. 몇명의 일군들과 함께 현관문앞에서계시는분은 지면과 텔레비존화면을 통해 깊이 익혀둔 **김일성**주석이시였다.

주석님께서 왜 밖에 나와 계실까? 혹시 나를

만나시지 않고 어디로 가시려는게 아닌가?

여러가지 의문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린저선생, **김일성**주석님이십니다.》

안내하던 외사일군이 뒹겨주어서야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었다.

《**김일성**주석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루이저 린저입니다.》

《린저선생,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울림이 큰 굵고 석싹한 목소리가 린저의 귀전에 울려왔다. 그이께서는 크고 억센 손으로 린저의 작은 손을 잡으며 친절히 물으시였다.

《간강이 어떻습니까. 잠자리랑 불편하지 않습니까?》

《조금도 불편한것이 없습니다. 저같은 불청객을 국민과 차이없이 보살펴주니 감사할뿐입니다.》

《허허허... 선생이 왜 불청객이겠습니까. 나는 언제부터 선생을 만나보고싶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고는 방안으로 들어가자며 현관문을 가리키시였다.

그러니 주석님께서 나를 마중하러 나오셨단 말인가? 린저는 잘 믿어지지 않았다.

외교관례에서 국가수반은 물론이고 웬간한 고위정객들까지도 한날 문필가의 방문에 대해 그토록 친절성을 베풀어준 실례가 없었던것이다.

린저는 장방형의 깨끗하고 검소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하얀 레복을 입은 남성 의례원이 회견탁에 차잔을 가져다놓았다.

《앉으시오.》

수령님께서 린저에게 자리를 권하고 회견탁에 앉으시였다. 통역원처녀가 있을뿐 단 한명의 기자도 외사일군도 참가하지 않은 비공식 단독회담이였다.

《선생, 차를 드시오.》

수령님께서 차를 권하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게 인삼차입니다. 인삼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소화의 기능을 높여주며 독성물질을 없애는데 특효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암예방, 당뇨병치료, 원기회복, 방사능피해제거 등 여러 질병에 대한 치료에 널리 쓰입니다.》

린저는 따끈한 인삼차를 한모금 마시였다. 씹씹하면서도 달작지근한것이 목을 적시며 가슴을 훈훈하게 덥히였다.

《인삼의 원산지는 조선입니다.》

수령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2 600년전부터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시기에 와서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하였는데 지금도 조선인삼은 약초의 왕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도 조선인삼을 신령스러운 보약으로 일러줍니다.》

린저는 딱딱한 정치담이 아니라 보통생활담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시는 수령님의 인자스러운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있었다.

《조선인삼들중에도 개성인삼이 제일 유명합니다. 린저선생, 인삼차를 써보지 않겠습니까. 내보기에 선생은 인삼이 맞을것 같습니다. 삼뿌리도 드리겠으니 한번 써보시오.》

《주석님, 감사합니다.》

그이께서는 여전히 국가수반의 위엄이나 틀을 전혀 차리시지 않고 마치 가까운 친구의 일신상 문제에 관심하시듯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선생은 건강이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몸조리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참, 선생은 그전에 신장염을 앓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린저는 저도 모르게 흠칫 놀라며 눈을 치떴다. 신장염은 고망액적 젊었을 때 조금 앓다가 인차나는 병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일가친척들중에도 그것을 알고있는 사람이 없었다. 아들며느리, 손자들까지도 모르고있었다.

《제가 신장염을 앓은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선생이 〈옥중일기〉에 쓰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

린저는 눈을 슬며시거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내가 《옥중일기》에 그걸 썼던가? 너무도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삭막하였다. 1946년에 《옥중일기》를 발표하였으니 그것은 수십년전 먼 과거의 일이었다. 린저는 1944년 히틀러나치스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생활을 하고있을 때 신장염에 걸려두어달 신고했었다.

린저는 한참 기억을 더듬어서야 《옥중일기》의 어느 한 대목에 신장염에 걸린데다 기침이 나고 감기까지 와서 고통을 겪고있다고 몇자 적었던것을 상기해낼수 있었다.

원고용지로 수백매나 되는 《옥중일기》중에서 신장염에 대하여 적은것은 글자수로 10여자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문장이였다.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얼핏 스치였던 이야기였다. 참으로 그것은 긴 《옥중일기》중에 희미하게 찍혀있는 하나의 점과 같이 작은 세부였다. 그가 신장염에 대해서 그처럼 간단히 스치고 지나간것은 패지우리와 같은 감옥안에서 겪은 수많은 고통들중에서 신장염따위의 고통은 너무도 보잘나위없는것이였기때문이다.

(《옥중일기》를 누구보다도 새겨읽은 내 자손들의 머리에도 신장염에 대한 인상이 남아있지 않는데 어찌되어 주석님의 기억에 그토록 뚜렷이 새겨있는것일까? 혹시 루이지 린저라는 이 로마의 속내를 깊이 알아보려고 어제 밤새도록 《옥중일기》를 읽어보신게 아닌가?)

수령님께서 린저의 얼굴에 지어진 복잡한 표정에서 그의 심리를 일별하신듯 정색하여 말씀하시였다.

《나는 1953년 가을, 그러니까 정전직후였습시다. 그때 소련을 방문하는 기간 로문판으로 선생의 작품들을 몇권 읽어보았습니다.》

린저는 몹시 놀랐으나 내색하지 않고 태연히 앉아있었다. 1953년이라면 근 30년전에 읽으신

글이었다. 그런데도 그 작고도 희미한 세부를 기억하고계신걸 보면 여간 꼼꼼히 읽으신것 같지 않았다.

《신장염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령님께서 신장염이야기를 다시 꺼내시였다.

《이젠 아무 일 없습니다. 그때 인차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신장염도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몸조리를 잘하여 건강해서 앞으로 좋은 글들을 더 많이 써야지요. 사실 나는 선생의 작품들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권의 작품만을 보고도 선생을 이해할수 있었습니다.》

수령님께서 린저의 첫 장편소설인 《파문》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선생의 그 소설에는 파쑈체제에 대한 항의의 정신이 강하게 맥박치고있습니다. 그때문에 나치스당국이 선생의 초기작품들을 이단시하고 집필금지령을 내렸지요. 그뿐아니라 선생에게 미행을 불이고 늘 감시했습니다.》

린저는 눈을 내리간채 잠자코 앉아있었다. 생활의 모든 희망이 좌절되였던 1940년대초의 암담한 과거를 돌이켜보느라면 지금도 머리칼이 곤두서고 가슴이 찢기는듯 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이였던가.

집필금지령을 비롯한 갖가지의 가혹한 정치적인압을 받고있을 때 전쟁에 끌려간 남편이 희생되고 폭격에 집까지 무너져 린저는 한지에 나앉게 되었다. 하는수없이 그는 어린 두 자식을 데리고 옛고향으로 찾아갔으나 남부도이칠란드의 벽촌인 그 외진 농촌마을에서도 경찰의 감시와 미행을 피할수 없었다. 그는 1944년 10월 리슬이라고 하는 소학교 녀동창생의 밀고로 게스타포에 체포되어 오랜 기간 예심감옥에서 인간이하의 박해와 천대, 모욕을 받으며 지겨운 나날을 보냈었다. 그러다가 끝내 《국가반역》이라는 특대죄명으로 사형판결을 받았던것이다.

《선생은 감옥안에서 나치스들의 만행과 수인들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하고 전쟁과 파쑈에 대해 더욱더 증오하게 됐지요. 선생은 감옥안에서 두번이나 크게 울었습니다.》

린저는 갑자기 비수에 찔린듯 몸을 흠칫하며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얼굴이 해쓱하게 질렸다가 서서히 붉어졌다. 수치감에 얼굴이 달아오른것이였다.

그는 감옥안에서 흘린 눈물을 일생의 수치로, 오점으로 여기고있는 문필가였다. 왜냐하면 약자와 비겁분자들, 너절한 인간들이 감옥과 형리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때문이었다. 이것은 일찌기 그가 문단에 나서던 초기 작품을 통해 세상에 언명했던 지론이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감옥안에서 두번이나 크게 울었던것이다. 한번은 면회를 온 친구앞에서, 또 한번은 예심판앞에서 울었다.

린저는 《옥중일기》에서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것을 감춘다면 《옥중일기》 전체가 허위적인 글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감옥안에서 흘린 자기의 눈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될수록 빨리 잊어버리기를 바랐다. 그러나 주석님께서는 그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기억하고계셨었다. 하기는 신장염의 세부를 기억하고계신분이 어찌 눈물의 세부를 잊으실수 있겠는가.

린저는 주석님께서 굳이 그 부끄러운 세부를 꼬집어 상기시키는것이 섭섭하였다.

린저는 무슨 항변이라도 하듯 격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저는 너절하게도 감옥안에서 두번이나 크게 울었습니다. 저는 독자들앞에서 그것을 숨기지 않고 반성했습니다. 그후 다시는 울지 않았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눈물 한꼬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35년동안 한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울지 않을겁니다. 절대로!》

린저는 자기의 목소리가 무례할만큼 높아지는 것을 의식하고 열른 입을 다물었다.

수령님께서는 잠시 아무 말씀도 없이 린저의 얼굴을 지켜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었다.

《선생은 감옥안에서 흘린 눈물을 왜 그렇게도 치욕스럽게 생각합니까?》

그이께서는 린저의 대답을 기다리시지 않고 계속하시였다. 《선생은 자신의 육체적고통이나 공포감때문에 눈물을 흘린게 아닙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물이였습니다.》

린저는 그이의 말씀이 전혀 뜻밖이었다. 그리고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수도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소리에 대뜸 눈썹리가 저러났다.

《나는 선생이 그런 눈물이 있는 어머니기때문에 한평생 반전평화의 필봉을 들고 정의롭게 싸울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네 문인들이 말한것처럼 어머니의 극적인 눈물에는 인생의 가장 숭고한 시적요소가 집중되어있습니다.》

린저는 두손으로 무릎팍을 짹 움켜쥐었다.

감옥안에서 겪었던 그 아픔이, 어머니를 부르며 울고있을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며 피눈물을 짓던 그 쓰라림이 되살아나 린저는 몸을 떨며 어금이를 짹 깨물었다.

그렇다, 나는 아이들때문에 울었다. 안경쟁이 예심관이 집에 두고온 아이들이 생각나지 않느냐고 제일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나는 복받치는 설움을 견잡지 못했었다.

《린저선생!》

수령님께서 부르셨으나 린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오늘 선생을 보니 우리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우리 어머니도 선생처럼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어린 세 자식을 고생스레 키우며 나

라의 독립과 녀성해방을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웬간해선 눈물을 안 보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장례날에도 우리들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날에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린분은 어머니였습니다.

선생이 어찌 35년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았단 말인가요?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남몰래 혼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순간 보폭이 무너지듯 린저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전신을 떨면서 서럽게 흐느끼었다. 그것은 전날 나치스감옥에서 터친 울음보다 몇배나 더 세찬 울음이었다. ...

린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14년전 과거의 영상을 감회롭게 지켜보았다.

피틀론은 눈을 꼭 감은채 조각상처럼 앉아있었다. 명상에 잠긴 그의 모습은 더욱 침울해보였다.

린저는 차츰 웬일인지 이 과묵하고 우울한 사나이를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것처럼 생각되었다.

피틀론은 이윽하여 눈을 뜨더니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결국 주석님이 선생을 올리셨군요. 그런데 저 두번째 사진에서는 선생이 웃고있습니다. 옷차림을 보면 같은 날에 찍은 사진같은데 웃어도 대단히 크게 폭소를 터치고있는것 같습니다.》

피틀론은 첫번째 사진과 나란히 걸려있는 두번째 사진을 가리켰다. 기실 그것은 첫번째 사진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있었다.

사진에서 수령님께서는 원형식탁에 놓인 음식 그릇을 가리키고계시고 린저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우며 웃고있었다. 린저의 얼굴이 어찌나 밝은지 마치 사진에서 유쾌한 웃음소리가 쟁쟁히 울리는듯 했다.

《그 두 사진은 다 통역원처녀가 찍은거예요. 나는 주석님앞에서 오열을 터친 때로부터 1시간도 못돼서 저렇게 웃었지요. 그날 오찬까지 차려주신 주석님께서 새 료리가 나올 때마다 그와 관련된 뜻깊은 해학담, 력사담, 철학, 문학담을 들려주셔서 웃기도 하고 눈물도 흘렸어요.》

가령 남방파일인 리즈가 나왔을 때에는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인 리태백이 리즈를 즐겨먹은 양귀비(당나라 현종의 애첩)를 끌려준 해학담을 하셔서 허리를 쥐고 웃었고 감자료리가 나왔을 때에는 인민들이 보내주는 감자음식을 먹으며 왜놈들과 싸운 항일투사들의 동지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축배잔을 들 때였어요. 주석님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선생은 35년동안 울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보니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합니다. 웃음과 눈물은 인간의 향기입니다. 선생이 이번에 평양에 오기를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니 우리는 벌써 친근한 벗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본바탕에서 아름답고 선량한것입니다. 나쁜 사람은 얼마 안됩니다. 선생에게 악담을 퍼붓는 다벤취라는 사람도 선생에 대한 무슨 오해가 있어서

그렇지 서로 만나서 이해하게 되면 벗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글들이 야박해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정의감의 맥박을 느낄수 있기때문입니다. 나는 당신네들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 하고 말씀하시여 나는 한동안 굳어져있었어요. 그다음엔 격노하고 흥분했어요. 내가 어떻게 다벤취와 화목할수 있겠어요. 그가 정의감이 있는 인간이라면 왜 땃땃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비렬하게 얼굴을 가리우고 악담질을 하겠어요. <다벤취는 복면강도입니다. > 나는 이런 욕설이 허끝에 묻어나오려는것을 애써 참았지요.

마침 주석님께서 다벤취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으시지 않고 말머리를 돌리셨어요.

<아무튼 나는 린저선생의 이번 방문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평양주변을 다닌것 같은데 래일부터는 활동범위를 더 넓혀가보고싶은 곳을 다 가보고 만나고싶은 사람들을 다 만나보시오. 선생의 사업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다벤취에 대한 이야기끝에 나온 말씀이여서 나는 몹시 민망스러웠어요. 나의 조선방문목적은 너무도 잘 알고계신 주석님이 아니신가요.

마치 그이의 말씀속에는 <부리사나운 철새여! 볼테면 다 보라. 우리는 자신있다. > 하는 속대사가 담겨있는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이는 내가 생각하고있는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성인이시였어요.

그이께서는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셨어요. 나는 실지 그 이튿날부터 조선의 수많은 도시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각계층의 사람들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어느날인가는 주석님의 현지지도수행성원속에 섞여 옥수풀이라는 농촌마을을 가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아세요?!>

루이지 린저는 그때의 충격이 되살아나 입술을 깨물며 14년전 옥수풀사진을 건너다보았다.

린저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옥수풀은 협동농장의 한개 분조가 산과일을 관리하고있는 아주 외진 두메마을이었다.

그날 울창한 숲속 오솔길을 걸어서 마을에 들어서신 수령님께서는 먼저 살림집을 돌아보자고 하시며 마을 첫턱에 서있는 돌기와집 마당으로 들어가시였다.

울타리가 없는 널찍한 마당에서 살진 암탉 한마리가 노란 병아리무리들을 이끌고다니였다.

그 집 기둥에는 《황운석》이라는 문패가 걸려있었는데 온 식구가 일터에 나간듯 조용하였다.

수령님께서는 토방을 오르시려다가 기둥에 걸려있는 문패를 보시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시였다. 그러시고 오래도록 문패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였다. 그이께서 너무도 오래동안 문패를 보고계시여 부관이 의아쩍어하였다.

《수령님, 왜 그러십니까?》

《음, 이 집 문패를 보니 황씨생각이 나서 그러

오.》

수령님께서는 무거운 어조로 되이시고 곁에 서있는 린저를 돌아보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전에 우리 아버지 친구들중에 황씨성을 가진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의 혁명사업을 적극적으로 방조하였습니다. 한번은 우리 아버지가 왜놈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그분이 독한 술로 호송경찰들을 폭 취하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를 탈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고마운 은인이기에 나는 해방된 첫날부터 그분을 찾았지만 종시 소식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저 문패에 써여있는 이 집주인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과 비슷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린저는 저도 모르게 문패앞으로 한걸음 내짚었다.

노란색 네모나무에 힘있게 박아쓴 새까만 붓글자가 해빛에 반짝거려였다.

수령님께서는 수원들을 둘러보시였다.

《내가 동무들에게 늘 말하지만 사람이 은인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은인을 잊는 사람은 나라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 그렇지 않습니까. 린저선생?》

참, 선생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생명의 은인이 있지요?》

린저는 처음 어리둥절해하였다. 수령님께서 어정정히 서있는 그에게 재차 말씀하시였다.

《칼 리리교수말입니다.》

순간 린저는 뒤통수에 방망이의 일격이 가해지는것 같은 강한 타박감에 몸을 비칠하였다.

그렇다. 린저에게도 잊지 말아야 할 생명의 은인이 있었다. 나치스들에게 체포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그가 살아날수 있는것은 칼 리리라는 사람의 희생적인 도움이 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런데 린저는 그 생명의 은인을 감감 잊어버리고 지냈었다.

영화연출가출신의 교수이며 나치스당의 고위급 인물이었던 칼 리리는 린저와 안면이 있는 지성인으로서 보르만의 친구였다. 그는 가슴에 나치스 휘장을 달고있었지만 반나치스정치법들을 많이 도와준 량심적인 사람이였다.

린저가 사형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리리는 보르만에게 찾아가 린저에 대한 죄명이 밀고자에 의해 허위날조된것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제의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인가 하는것을 리리자신도 물론 잘 알고있었다.

리리의 말을 듣고 보르만은 게스타포에 명령하여 린저의 문건을 채검토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린저의 문건이 베를린으로 발송되었으나 검토사업이 여러날 지연되었다. 그때 베를린은 이미 포위속에 불타고있어 나치스법관들이 린저의 문건을 심의해볼 경황이 없었던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히틀러의 패망으로 전쟁이 끝나고 린저는 석방되었다.

린저는 《옥중일기》 후기에서 이 사실을 간단히 쓰고 《나치스의 휘장을 달았다고 하여 모두가 잔인한 인간은 아니었다. 그중에는 칼 리리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피력했었다.

전후 초기에 린저는 리리를 돕기 위해 법기판을 찾아다녔으나 나치스당고위급인물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일반사인이 간참할수 없다고 하여 그의 운명을 《하느님》의 의사에 맡길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도이칠란드군국주의자들의 탄압과 신병에 시달리다보니 그에 대하여 생각할 정신적여유가 없었다. 하여 린저는 그를 잊어버렸다.

리리교수와 그의 가족들이 이것을 알고있다면 얼마나 분개할것인가?

보르만의 막역한 친구였다는 그 하나의 리유만으로도 리리교수는 무사치 못했을것 같았다.

린저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다.

불현듯 린저는 칼 리리의 망령이 눈을 부릅뜨고 분노의 고향을 치는듯싶었다. ...

《피틀론씨, 이것이 옥수골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나는 주석님을 따라 일껏 옥수골에까지 갔지만 그이의 현지도도과정을 더는 집념해서 볼수가 없었어요. 리리교수로 하여 생각이 복잡했지요.

나는 그날 평양에 돌아와서 주석님께 리리교수를 잊어버리고 지낸 사실에 대해 솔직히 말씀을 했어요. 그이께선 몹시 놀라시더군요. 그리고 오래동안 뭔가 깊이 생각하시더니 이제라도 리리와 그의 가족들의 생사안위에 대해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이께선 리리교수가 나치스당에 침투된 공산당원일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공산당원이 아니고는 자기 목숨을 내대는 모험까지 하면서 나를 도와줄수 없다고 하시였습니다.

나는 그후 인차 귀국할 차비를 했어요. 숙소에서 여행짐을 정돈하고있을 때 주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선생이 래일은 집으로 간다면서요?〉

수화기에서 주석님의 다정한 음성이 울리었어요.

〈네, 이젠 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돌아가면 즉시 〈조선일기〉를 써서 세상에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전날에 발표한 〈옥중일기〉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조선일기〉는 신선국에 대한 이야기로 될거라고 덧붙여 말씀했지요.

〈신선국?〉하고 문득 뇌이시는 주석님의 목소리는 어딘가 놀라시는듯 한 그리고 무엇인가를 부정하시는듯 한 어조였어요.

나는 조선의 여러곳을 돌아보는 과정에 실지로 이 나라야말로 그리스도가 내려와도 할일이 없는 신선국으로 생각하게 됐지요. 조선에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악이 없이 모두가 골고루 화목하게 살고있고 실업자, 불량배, 거러지, 류랑고아와

같은 어두운 그림자를 도저히 찾아볼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주석님께선 내 말을 부정하시더군요.

〈린저선생, 우리 나라가 무슨 신선국이겠소. 1947년에 미국의 녀류기자 안나 루이스 스트롱이 두주일동안 우리 나라를 돌아보고 가서 《조선인상기》라는 글을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첫 외국기자인데 선생도 알겠지만 그는 당시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주로 국가수반급인물들과 단독면담을 하는 백발의 관록있는 부르조아기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나와 헤어질 때 대단히 흥분해서 신선국을 꾸려가고있는 자랑스러운 조선의 민주주의를 세계에 널리 선전하겠다고 하면서 장군이 계시니 조선은 반드시 통일된다고, 다음번에는 통일된 조선의 정부청사에서 만나자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30여년세월이 지나도록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갈라진 혈육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있는 우리 인민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머리가 세여집니다. 인민들이 울고있는데 무슨 신선국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것이 많으니 사실그대로 써야지 신선국으로 과장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송수화기를 움켜진채 아무런 대답도 못 올렸어요. 무엇인가 예리한것이 목언저리로부터 가슴노리로 쭉 뿜어내려가듯 같았지요.

나는 전세대의 관록있는 녀류기자가 30여년전에 주석님을 만나뵈고 〈조선인상기〉를 쓴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있었어요. 그 도고한 스트롱이 예순살나이에 30대의 젊은 장군을 칭송하는 글을 쓴것만 보아도 주석님께서 얼마나 위대한신분인지 알수 있었지요.

수화기에서 주석님의 목소리가 계속 울리었어요.

〈린저선생, 그건 그렇고 내가 전화를 건것은 래일 선생을 배려우지 못할것 같아 미리 작별인사를 해두기 위해섭니다. 선생, 앞으로도 아무때건 오고싶은 생각이 나면 또 오시오. 매해 오시오. 이젠 우리가 친구로 됐지요. 이제부터는 주석과 작가가 아니라 친구로, 벗으로 만납시다. 다음번엔 혼자 오지 말고 아들, 며느리, 손자들을 다 데리고오시오.〉

나는 목안이 짙 잠기여서 여전히 아무 응대도 못했어요.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하염없이 불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린저선생, 잘 가시오.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어머니와 어린이들의 웃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손잡고 투쟁합시다.〉

〈존경하는 주석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나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리었어요.

이튿날 비행장으로 나가니 한 외사일군이 대형 트렁크 두개를 가져다놓고 기다리고있었어요.

주석님께서 보내시는 선물이라는데 한 트렁크에는 내가 쓸 보약과 가족들에게 주는 갖가지 선

물들이 들어있고 다른 한 트렁크 선물명세에는 〈나치스를 반대하여 목숨바쳐 투쟁한 리리교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루이지 린저〉라고 써여있었어요. 왜 내 이름을 썼을까요? 여기에는 리리교수를 꼭 찾아내야 한다는 그의 절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지요. 주석님은 이런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도 리리와 그 가족들의 소식이 묘연합니다.

알아보니 리리교수는 히틀러패망직전에 행방불명이 되고 그의 가족은 전후에 종적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들의 운명에 대해 무관심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잊어버리고 지낼수 있었을까요?

나는 자신의 인간상에 깊이 박혀있는 검은 반점을 보게 됐어요. **김일성** 주석님과 너무도 대조되는 자신의 모습, 〈부리사나운 철새〉의 얼굴을 보게 됐지요. 나는 중오할줄만 알고 사랑할줄을 모르는 사이비인도주의자였어요.

피틀론씨, 당신은 나에게 **김일성** 주석님을 접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고 질문했지요. 물론 나도 카터처럼 단마디로 말할수 있었지만 그 대답을 하기 위해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어요.》

피틀론은 묵묵히 앉아있었다. 그의 얼굴빛은 한층 더 어두워진듯싶었다.

한동안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린저도 피틀론도 저마끔 깊은 생각에 잠긴것이다.

린저의 머느리가 차잔에 인삼차를 새로 부어놓고 조용히 물러났다.

《피틀론씨, 차를 드세요. 이게 바로 주석님께서 보내주신 인삼차입니다. 나는 1980년부터 지금까지 14년동안 조선인삼차를 마시는데 아마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가봐요.》

피틀론은 흰 김이 피어오르는 인삼차를 의미심장히 내려다보았다. 말없이 인삼차를 몇모금 마신 그는 1980년이후의 사진들을 쭉 둘러보았다.

그 사진들에서는 린저의 얼굴이 거의다 웃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때에도 눈물을 많이 흘리었다. 그러나 투명한 눈물방울이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으니 그저 웃는 모습으로만 보이는것이다.

린저의 가슴에 혼장을 달아주시는 수령님, 그의 팔목에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금시계를 채워주시는 수령님... 기실 보기만 하여도 눈곱이 찌릿해지는 사진들이었다.

린저는 약속대로 1981년에 탐방기 《조선일기》를 발표하였는데 그 도서로 하여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10여년동안 다벤취라는 이름이 단 한번도 지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여 그 수수께끼의 인물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수령님의 주체사상이 전세계에 파급되고 주체사상연구소가 곳곳에 생겨나면서 조선을 칭송하는 린저의 글은 더욱 신빙성을 가지게 되었고 세 상에는 그를 미워하는 사람보다 사랑하고 지지하

는 사람들이 몇배로 더 많아졌다. 린저는 어느해인가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대통령립후보로 출마하여 련방국회표결시 68표의 지지표를 받은적도 있었다. 학계에서는 그를 원사로 추천하였고 수백만 독자들은 그를 《사랑의 철새》로, 인도주의문필가로 높이 내세워주었다.

《**김일성** 주석님의 후광으로 루이지 린저의 영상은 수정처럼 맑아졌다》라는 글이 나돌기도 하였다. 그것은 린저의 영광이었다.

《저 사진에선 선생이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었군요.》

린저는 피틀론의 목소리를 듣고 생각에서 깨어나다.

피틀론은 수령님곁에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서있는 린저의 사진을 가리키고있었다.

《예. 그건 86년 여름 삼지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여름 삼지연지구를 현지지도하시던 수령님께서 그곳에 와있는 린저를 몸가짜이 부르셨는데 그날 린저는 여느때와 달리 조선옷을 입고 갔었다.

수령님께서는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온 린저를 보시자 밝게 웃으시며 《조선옷을 입으니 선생은 정말 조선녀성같습니다. 옷색갈도 나이에 어울립니다.》하고 만족해하시었다.

《주석님, 제가 오늘 왜 조선옷을 입고왔는지 아십니까?》

린저는 사뭇 신중한 표정을 짓고 물었다.

《왜 조선옷을 입었습니까?》

《저는 때때로 주석님의 보좌관이 되는 꿈을 꾸곤 합니다. 경애하는 주석님을 만나뵈온 다음부터 이상하게 그런 꿈을 꺾니다. 어제밤도 주석님의 보좌관이 된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주석님을 보좌하다가 주석님의 발밑에서 숨지고 싶습니다.》

린저는 울먹거리며 잠간 말을 못하고 서있다가 《주석님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백살이 넘도록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겠다고 저한테 맹세하십시오.》하고는 수령님께 약속의 뜻으로 손가락을 걸자고 하였다.

일흔다섯살의 녀류작가가 어린 소녀처럼 무가내로 줄라대서 수령님께서는 마침내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나도 백살을 살고 린저선생도 백살을 살도록 약속합니다.》하고 웃으시며 손가락을 거시었다. 그러시고 문득 정색을 지어 말씀을 이으시었다.

《내가 오늘 선생을 부른것은 한가지 중한 부탁을 하고싶어서입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주석님의 부탁이라면 저는 불속에라도 뛰어들겠습니다.》

《뭐 그리 어려운 부탁도 아닙니다. 내가 언제인가도 다벤취란 사람에 대해 말했지요. 그는 몇년째 지상에 나타나지 않고있는데 선생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있는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그와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린저는 얼어붙은듯 말없이 눈을 내리깔고 서있었다. 다벤취의 말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린저였다.

《주석님, 저는 그 〈복면〉 독설가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사는지 아직 모르고있습니다.》

《나는 언제이건 선생이 다벤취와 만나게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와 화해하고 벗이 되겠다는걸 나에게 약속하시오. 자, 손가락을 겹치시오.》

이번에는 수령님께서 먼저 손가락결기를 요청하시였다. ...

《피틀론씨, 나는 다벤취를 용서할만큼 속이 너른 녀자는 못됩니다. 그러나 주석님의 부탁이니 손가락을 겹쳤지요. 주석님께선 몹시 기뻐하며 우리 서로 중대한 인생의 약속을 한 이날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자고 하셔요. 그래서 저 사진이 생겨났어요.》

피틀론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무어라 중얼거리며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의 불편이 경련을 일으킨듯 실룩거리였다. 때마침 창밖에서 번개불이 번쩍하였다. 온 우주를 밝혔던 한찰나의 광명이 다시 암흑으로 바뀌여지자 꾸르릉 하고 요란스레 우뢰가 울었다.

린저는 우뢰소리의 여운이 번져가는 밤하늘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다.

《주석님과 손가락을 건 다음부터 정말 다벤취가 나를 찾아올것 같은, 어디선가 그가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있고 지어 그림자처럼 미행하고있을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러던 내가 1988년 9월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객기에 올랐을 때였어요. 항공회사에서 객객봉사용으로 편집한 흥미본위의 책인 〈기담집〉을 번져보다가 깜짝 놀라게 됐지요. 글쎄 그 책 한 갈피에 다벤취가 쓴 이런 글이 실려있지 않겠어요.

...도이칠란드의 너류작가 루이저 린저가 다음과 같은 신앙연설을 하여 그리스도교신자들을 경악케 하였다.

〈성서에서는 눈으로 볼수 없고 지성으로 헤아릴수 없는 하느님을 믿으라고 하지만 나는 멀리 우주밖에 있다는 하느님보다 나에게 실지로 사랑의 복음을 가져다주시는 보이는 하느님을 더 믿고 존경한다. 나에겐 보이는 하느님이 계신다.〉

린저의 말이 사실인가? 우리모두 주시해보자!

린저는 조만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 기념행사차로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데 나도 따라가보려고 한다. 다벤취 씀...

반폐지도 되지 않는 이 짧은 글에 크게 놀란 나는 비행기안의 손님들을 휘둘러보았어요. 그속에 다벤취가 있지 않는가 해서요.

그후 평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린저의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린저는 평양에 도착하자 곧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되는 공화국창건 40돐기념 청년학생들의 집단체조행사 초대장을 받았다.

린저는 밝은 살색양복을 갈아입고 김일성경기장으로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자리가 주석단으로부터 동안을 두고있는 초대석의 가석이었다.

(지금 다벤취가 나를 보고있다면? 말석에 앉아있구나 하고 생각하겠지.)

린저는 불쾌하였다. 무엇보다도 수령님을 가까이에서 뵈을수 없게 된것이 여간 섭섭하지 않았다.

그는 행사조직원들을 은근히 고깝게 생각하였다.

초대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주석단에 쏠려있었다. 수령님께서 나오시기를 기다리고있는것이다.

소연하던 경기장이 갑자기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잠시 정적속에 잠겨있던 경기장에서 불안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관람석에 앉아있던 수만명 군중들이 일시에 수풀처럼 설레이고 하얀 비둘기와 온갖 색고무풍선들이 경기장 상공을 짝 채우며 날아올랐다.

수령님께서 군중의 환호에 답례하며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함께 주석단으로 걸어나오시였다.

《만세! 만세! 주석님! 김일성주석님!》

린저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목청껏 소리쳤으나 폭풍같은 환호성에 삼켜져 자기 귀에도 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제끼웃에 넥타이를 매고 안경을 끼신 수령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관람석을 쪽 둘러보며 손을 흔드시였다. 이윽고 초대석쪽으로 몸을 돌리며 손을 흔들어 답례하시였다.

린저는 담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서있는 장대한 사나이때문에 고개를 이쪽저쪽으로 내밀며 수령님을 부르고 또 불렀다. 그러나 너무도 먼 거리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의 눈앞에서 불꽃이 번쩍하였다. 사진기의 섬광인가? 아니였다. 수령님의 시선이 멀리 뒤끝에 있는 린저의 시선과 부딪친것이었다.

수령님께서 돌연 초대석쪽으로 걸어나오시였다.

웬일이신가? 모든 군중이 의아해하였다.

린저도 처음 한순간은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러나 인차 알아차리고 고무공이 굴러내려가듯 계단을 내리밟으며 수령님께 달려갔다.

뜻밖에도 벌어진 놀라운 광경이었다.

숨가쁘게 내달리는 유령의 자그마한 할머니, 그 늙은 녀인을 향해 걸어가는 수령님.

린저는 수령님의 모습이 지척에 보이자 목메여 불렀다.

《주석님!》

《린저선생!》

수령님께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있는 린저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린저는 어깨를 들먹일뿐 말을 못하였다.

(주석님! 큰 행사가 벌어진 마당에서 저를 만나러 오시단요. 이 린저가 뭐라고... 뒤끝 사람틈바구니속에 박혀있는 이 조그마한 녀자를 어떻게 알아보고 이렇게 걸어오십니까.)

린저의 두볼로 눈물이 방울지어 흘러내렸다.
《린저선생, 이번엔 자식들을 데리고왔습니까? 또 혼자서 온것 같구만.》

《주석님!》

린저의 어깨가 더 세차게 떨리었다.

《그만 진정하십시오. 모두 우릴 보고있는데... 요즘은 바빠서 어쩔수 없는데 후에 만납시다. 그동안 참관을 하면서 유쾌히 지내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합시다. 눈물을 닦으시오.》

수령님께서는 되짚어 주석단쪽으로 걸어가시었다.

린저는 그냥 서있었다.

그는 어떻게 자기 자리로 돌아왔는지 알지 못했다.

얼마후에야 그는 관람석 한쪽에 차려놓은 촬영기를 보고 이날 행사의 모든 흐름이 전세계에 전송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공화국창건 40돐 경축행사장형을 세계에 전송하기 위해 이팔리아 텔레비존방송국의 촬영집단이 평양에 와있었던것이다. ...

《피틀론씨, 나는 그날 속으로 금지높이 웨쳤어요. 미행자들아, 다벤취야, 보았는가? 수만명 관람군중들중에서 유독 이 린저가 단독으로 주석님의 접견을 받는것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느님이시다. ... 오늘까지도 다벤취는 감히 내앞에 나타나지 못하고있어요. ...참, 이제야 생각하는데 나는 그때 이팔리아텔레비존방송기자들속에서 피틀론씨의 갈색곱슬머리를 보았던것 같아요.》

《알아보시는군요. 제가 그날 선생의 초대석앞에서 촬영기를 잡고있었습니다.》 하고 대답한 피틀론은 출입문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출입문이 나있는 앞면 벽을 거쳐 바른쪽 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사진들을 더듬어보고있었다. 거기에는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다 무너져버린 때인 1990년대초의 사진들이 걸려있었다.

세계정치지도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던 그 흥흥한 시기에도 사진속의 린저는 의연히 밝게 웃는 모습이었다.

수령님의 친필송시족자앞에 서있는 루이저 린저, 평양학생소년궁전마당에서 어린이들과 놀고있는 유럽의 할머니,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있는 80고령의 녀류작가 린저...

피틀론은 1993년도 마지막사진들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1994년도에 찍은 사진은 한장도 걸려있는것이 없었다. 이해에 들어와서 린저는 아직 평양방문을 하지 않았기때문이다.

김일성 주석님을 처음 만나뵈은 때부터 열다섯 번째되는 이해에는 과연 어떤 사진들이 걸리게

될것인가? 린저는 그것을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었다.

주석님의 말씀대로 올해엔 자손들을 다 데리고 갈테다. 여태는 주석님께 부담이 되실것 같아 내 혼자서 평양을 다녔지만 더 늙기 전에 그 애들을 다 데리고가서 주석님께 큰절을 드리게 해야지.

린저는 9월이나 10월경에 가볼 생각이었다.

린저는 피틀론이 서있는 곳으로 급히 걸어갔다.

《피틀론씨, 당신은 여기 방안의 사진들을 보면서 귀납법적인 추리를 하여야 될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진들을 통해 **김일성** 주석님을 접견한 7만여명의 모든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모두에 대한 주석님의 사랑말이에요.》

린저는 1994년도의 사진들이 걸리게 될 복숭아꽃문양이 새겨진 빈 벽을 손으로 짚으며 기쁨에 넘쳐 말을 이었다.

《피틀론씨, 이제 이 벽에는 **김일성** 주석님을 한 자리에 모신 우리 집 가족사진이 걸리게 될거예요.》

순간 피틀론은 신음같은 소리를 내며 외면하듯 얼굴을 돌리었다. 뒤따라 식당칸에서 머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린저의 눈이 커졌다.

그는 영문을 몰라 식당칸으로 걸어갔다. 이제 예순이 다 된 머느리가 벽에 몸을 기대고 어린애처럼 소리내어 울고있었다.

《웬일이냐? 왜 갑자기 그러느냐?》

이때 피틀론이 다가와 린저의 손을 잡아쥐었다.

《선생님, 마음을 굳게 가져야 하겠습니까.》

피틀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피틀론씨, 왜들 이래요. 지금까지 당신은 정상적인 면담을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들 이래요?》

피틀론은 텔레비존앞으로 걸어갔다. 거기서 복화기를 손질하는듯 하더니 전원을 련결하였다. 사흘째 화면이 나오지 않던 텔레비존에서 슬픈 울음소리가 울려나왔다.

순간 린저의 눈이 전등알처럼 둥그래졌다.

평양 만수대언덕에서 수천수만의 군중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있었다. 울음의 바다, 눈물의 바다가 해일을 일으키고있었다. 남녀로소의 울음행렬이 고래질을 하며 흘러갔다.

중국, 로씨야, 미국, 영국... 세계 여러 나라의 방송원들이 겨금내기로 나타나서는 가장 무서운 소식을, 도저히 상상할수 없었던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고는 사라져버린다.

카터와 클린톤의 어두운 얼굴도 얼핏 비쳤다가 지나간다.

아니다! 아니야! 해가 서쪽에서 떴다는 말은 믿을수 있어도 이것은 믿을수 없다. 믿어선 안된다! 린저는 실성한듯 소리치며 쏘파에 쓰러졌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였다. 엄연한 사실이기때

문에 손자가 사흘동안 할머니한테 신문을 나르지 않았고 텔레비존선도 끊어버렸던것이다.

린저는 점점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귀가 멍멍해지고 머리속이 옥신거리면서 몸안의 피가 슬슬 밖으로 새어나가듯 기운이 나른해졌다.

린저는 오한에 떨다가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는 이튿날 늦은 아침에야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 곁에 너의사가 와있고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빙 둘러서서 눈물에 젖물린 충혈된 눈으로 내려다보고있었다.

린저는 피틀론과 면담을 하던 어제밤이 아득한 옛일처럼 생각되었다. 꿈속을 헤매이는듯 멍하니 누워있던 린저는 불현듯 텔레비존화면으로 보았던 울음의 바다, 눈물의 파도가 눈앞으로 덮쳐들어 전율을 일으켰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며느리가 그의 팔다리를 주물려주었다.

린저는 손을 허우적이며 오열하였다.

《내 여생에 주석님앞에서 그리도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오늘에 이런 눈물을 흘릴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린저를 버리고 주석님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린저는 가슴을 치며 오열을 하다 다시 정신을 잃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지 새 의식이 들었을 때 린저는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이 모셔진 신문 한장이 침대옆 원탁에 놓여있는것을 보았다.

팔에 검은 띠를 두르신 그이께서 비애에 젖은 눈으로 린저를 바라보시는듯 했다.

《린저선생, 왜 누워서 울고만 있습니까. 수령님께서 선생을 부르시는데...》

린저는 어디선가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는것 같았다. 그는 용수철이 튕기듯 벌떡 일어나앉았다.

침대두리에 서있던 자손들이 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어리둥절해하였다.

린저는 세면장에 가서 얼굴을 씻고 검은 옷을 입은 다음 머리를 비다듬고 검은 땀기를 드리웠다.

《애들아, 나는 이제 곧 평양으로 가겠다.》

린저는 서재로 들어갔다. 인생의 새 걸음을 시작한 1980년도의 첫 사진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된 14년 1개월동안의 생활을 다시한번 되밧아보듯 차례차례로 벽사진들을 더듬어보며 한발자국 한발자국 걸음을 옮기었다. 그러던 그는 우뚝 떴어섰다.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은 자기곁에 웃으며 서계시는 8년전 수령님의 모습이 눈앞에 마주보였던것이다.

《저와 손가락까지 겹고 어찌 그 약속을 어겼습니까.》

린저의 어깨가 또다시 들먹거리였다.

깊은 주름들이 잡혀있는 린저의 두볼을 타고 구불구불 흘러내리는 여러 줄기의 눈물이 곡선을

지은 턱으로 모여들어 툭툭툭툭 추녀의 락수물처럼 떨어졌다.

《어머니, 좀 누우셔야겠어요.》

아들, 며느리가 와서 린저를 부축하였다.

《아니다. 쏘파에 잠깐 앉았다가 비행장으로 가겠다. 참, 피틀론씨는 본국으로 돌아간 모양이구나. 난 그 사람이 내쳐 어두운 얼굴을 하고있길래 무뚝뚝한 남자로만 생각했구나. 이런 변이 생긴줄은 모르구...》

린저는 아들의 팔에 의지하여 걸어가 쏘파에 주저앉았다. 며느리가 따라와서 하얀 편지봉투를 앞차대에 내려놓았다.

《어머니, 피틀론씨가 이 편지를 남기고 갔어요.》

《피틀론씨가?》

린저는 그가 위로의 글을 남기고갔을것이라고 짐작하고 말없이 봉투를 집어들고 속지를 꺼냈다.

《루이저 린저선생님!》

읽기에 편리하도록 큼직큼직하게 쓴 도이쉴란드의 푸른 글자가 눈에 밝히였다.

그는 계속하여 천천히 읽었다.

《...시간이 급하여 인사불성이 된 선생님을 두고 저는 로마로 떠나갑니다. 무정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저는 선생님께 용서를 빌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사람입니다.

밤늦도록 선생님과 면담을 한 이탈리아기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난날 다벤취라는 닉명으로 때없이 지상에 나타나 선생님의 얼굴을 칼탕치군한 저주로운 〈복면〉의 독설가가 바로 다름아닌 저 피틀론입니다. 선생님은 초풍하도록 놀라실겁니다. 이제 더 놀라시게 될 일은 다벤취 즉 레오나드 피틀론이 칼 리리교수의 양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무슨 운명의 희롱인가요?

저는 50평생 슬픈 숨박꼭질을 하였습니다.

리리교수는 저에게 있어서도 양아버지이기전에 고마운 생명의 은인이였습니다.

1944년 봄, 생후 석달만에 부모를 잃은 피덩이같은 저를 데려다 키워준분이 리리교수였지요.

선생도 아다싶이 리리교수는 히틀러패망직전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혹시 직탄을 맞아 한줌의 재로, 연기로 흔적없이 흩어져버렸는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945년 여름 양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고 멀리 이탈리아로 피신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이국땅으로 도망치게 된것은 고위급나치스당원인 리리의 가족을 체포하도록 린저선생, 바로 당신이 〈나치스여독청산특별위원회〉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누구에게인가 들었기때문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와서도 정체를 숨기고 살아온 양어머니는 1963년에야 림종의 침상에서 저에게 지나온 과거사를 죄다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양어머니를 이탈리아녀성으로 그리고 저의 친어머니로만 알고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다벤취가 선생을 것처럼 미워했던지 이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옥중일기〉 서문에서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며 따라서 현재와 과거는 분리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다싶이 저에게는 선생님과 화해할 수 없는 엄혹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선생이 우리 가족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도 저는 선생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의 말 한마디면 우리 가정의 운명은 달라질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은인과 은인의 가정에 대해 선생은 너무도 평담했고 무관심했습니다.

린저선생! 우리 서로 인생의 실책이 많았던 가슴아픈 과거를 파헤치지 맙시다. 우리의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님께서서는 우리들이 서로 화해하고 벗이 되기를 바라셨지요. 주석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우리들 모두가 히틀러파시즘의 희생자들이었기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비극은 그놈들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저의 양아버지를 인간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믿어주신 **김일성** 주석님!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기에 인간을 가장 정확히 평가하시는 주석님께서서는 198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40돐 기념행사에 동원되었던 이탈리아촬영단들을 접견해주신 장소에서도 칼 리리와 다벤취에 대한 은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저도 앉아있었지만 무덤하게도 저는 주석님앞에서조차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솔직히 말하건대 저는 주석님께서 바라시는 인류의 자주위업에서 떼뻗한 공을 세운 다음에 그이의 무릎앞에 엎드려 사연많은 과거를 아뢰이면서 실컷 울어보자고 하였습니다.

아아, 그런데 우리모두를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리해하여주시던 주석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심장이 고동을 멈추었다니 이 무슨 청천벽력인가요.

선생님이야말로 이 피톨론의 상실의 아픔을 누

구보다도 잘 알수 있을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리해해주신분은 주석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저의 생명이고 운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허나 나는 동서대륙에서 울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살펴주실거라고. 저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가 사흘만에 부활하였다는 성서를 믿지 않지만 주석님의 영생을 믿습니다. 지금 온 세계에서 흘러고있는 인류의 눈물이 주석님의 영생을 말해주고있지요. 그 눈물, 그 울음에는 진정 생의 가장 숭고한 의미가, 주석님에 대한 전인류의 존경과 믿음의 선물이 집적되어있습니다.

홀러드는 그 어떤 강물도 탁류도 물리치지 않고 품에 안아 정화시키는 대양과 같이 넓은 **김일성** 주석님의 품, 사회적직위와 국적에 관계없이 그이께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아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셨습니까.

지구를 뒤덮은 저 눈물의 바다는 **김일성** 주석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인간이신가를 보여주는 숭엄한 화폭입니다.

루이저 린저선생님! 락심말고 일어나십시오.

이제 우리는 생전에 주석님께서 바라신대로 서로 화해하고 친근한 벗이 되어 그이께서 밝히신 인류자주화의 길로 힘있게 걸어가야 할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맹세합시다.

당신의 친근한 벗 피톨론으로부터》

린저는 기도를 올리듯 지그시 눈을 감고 숙연히 뇌이였다. 〈피톨론의 말이 옳아. 나는 이미 축전문에 썼었지. 〈천년만년 세월이 갈수록 주석님의 존함은 더욱더 빛날것입니다. 주석님은 우리행성의 영원한 태양입니다. 영원히 인류의 눈에 보이는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린저는 쏘파에서 일어났다.

경구, 격언

- 《거짓이라는것이 뻔하고 진리를 외곡한다는것이 명백할 때에는 반박하여야 한다.》
- 《론쟁에서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고 칭호도 이름도 없다. 오직 진리만이 중요하며 진리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 《인민은 옳은 판결을 내리는 유일한 심판자이다.》
- 《가장 훌륭한 사람은 주로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 살고 가장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자기 감정으로 산다.》
- 《무슨 일이든 하려면 잘하라. 할수 없거나 잘하기 싫은 일은 차라리 안하는 편이 낫다.》

여기에 사다리가 있다 (외 2 편)

-군자혁명박물관에서-

리일섭

여기에 사다리가 있다
층층 수평경도
아래웃층 작업장을 오르내리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수직굴의 수직사다리

기름때에 절고
석수에 젖어
아차 잘못 디디면 떨어질수 있는
몹시 미끄럽고 위험한
이 사다리길

전화의 그날 우리수령님
로동자들이 오르내리는 길인데
나라고 못 다니겠는가 하시며
몹소 앞장서 오르내리셨나니

판길이 없어 택하신 길도 아니
시간이 바빠 질러가신 길도 아니
이 길은 로동자들 마음속으로 가는
이 길은 전사들에게로 달리는
가장 가깝고도 빠른 지름길

그때문이 아니었던가
이 사다리를 오르시여
웃층회의실에서 작전회의를 지도하시고
이 사다리를 내리시여
아래층 병기생산현장을 돌아보신것은

수령님옷자락에서 풍기는 전선의 포연내
로동자들 가슴 뜨겁게 달구어주었고
수령님옷자락에서 풍기는 후방의 총기름내
전사들 눈굽 후더이 적시였나니

저 사다리였구나
싸우는 고지의 인민군용사들과
전시생산에 떨쳐나선 로동계급
그 마음 전승의 한길로 이어주며
전선과 후방을 하나로 련결한 그 다리가

오, 여기에 사다리가 있다
수령님과 인민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준 다리
세월을 넘어 우리 마음속에
50년대와 2천년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사랑과 전쟁

누구도 예상못게 여겼다
거기까지 신경줄 겨를이 없었다
나어린 처녀선반공이 신은
발에 맞지 않는 큰 작업신발

지금은 전쟁! 전쟁이 아닌가
조국의 운명을 관가름하는
이 준엄한 시련앞에
그좁한 일신상의 불편이야
무슨 그리 큰 대수이라

허나 우리 수령님만은 눈여겨보셨다
불수록 마음 걸리시여
불수록 마음 피로우시여
처녀의 신발코숭이를 오래도록
만져보시고 못 떠나 또 눌러도 보시였다

아무리 전쟁이라 한들
우리가 이 동무들의 신발 하나야
제대로 못 해결해주겠는가
혼자말씀처럼 나직이 외우시며...

그 순간
한없이 부드러운 그이의 눈빛은
오로지 딸자식 차림새에 윈심 쓰는
단란한 가정의 친아버지 마음되시여
봄날의 따스한 평온속에 계시는듯

너무도 이른나이에
아직은 꽃신자욱 꽃길에 웃으며 새길 처녀
이 또래들의 희망찬 래일을 책임진
그 사명감을 더욱 무겁게 느껴안으시는듯
또다시 근엄해지시는 그이의 안광이여

그 어찌 알수 있으랴
방대한 군수물자를 탕진하며
살륙과 략탈을 일삼는 전쟁상인들이야
강철의 포신과 무한케도도 녹여버릴
령장의 심장에 끓는 그 사랑의 열도를

그이는 진정
준엄한 전쟁의 중하를 걸머진
최고사령관이기에 앞서

아들딸들의 생활을 보살피며 돌보는
이 나라 집집의 친아버지이시였거니

오, 포연의 검은 구름장을 뚫고

가슴가슴에 스민 그 따사론 빛발이
아직은 철비 내리는 이 땅우에
매이른 환희의 봄색을 움틔웠다
전선너머 승리의 새날을 불러왔다

편지

찾아가시였다 우리 수령님
전선의 용사들이 올린 편지
탄약상자 받쳐놓고 한자한자
저 불타는 고지에서 피로 새겨졌을
그 편지 한장 소중히 품에 간수하시고

찾아가시였다 폭격의 불비속을 뚫고
서둘러 군자리로동계급을
해방후 강선을 찾으시던 그날처럼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의지의 기둥 되여준 그 인민속으로

그리고 내놓으시였다
간밤에 잠 못들며
보고 또 보신 그 편지를
내놓고 허물없이 터놓으시였다
안타깝고 피로웠던 심중의 그 사연

자,보라 이 편지의 글발을
저 불타는 고지의 전사들은
마지막결사전으로 나아가며
자기들의 최고사령관인 나에게
이렇게 절절히 부탁했다

원썩를 눈앞에 보면서도
포탄과 총탄이 모자라 더 잡지 못한다고
총포탄을 한번 실컷 쏘았으면
원이 없겠다고...
수령님의 불같은 그 호소에
어찌 피끓지 않았으랴
그것은 우리에게 온 편지라고
총포탄생산은 넘려말라고
로동계급모두가 산악같이 들고일어나
심장의 불길로 활화산을 터쳐올렸거니

세상에 믿을것은 오직 인민!
그 삶의 좌우명 다시금 절감하며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최후승리의 작전도우에
공격의 붉은 화살표 쪽— 힘있게 그으셨다

오, 그 화살표따라
끝없이 끝없이 실려간 총포탄
그것은 군자리로동계급
수령님을 대신하여 전선용사들에게 보낸
말없는 회답의 편지였다

상식

날씨를 예보하고 시간을 알리는 꽃들

날씨를 예보하는 신기한 꽃들이 있다.

여름과 가을에 무더기비가 올 림박이면 창포련
꽃이 활짝 핀다. 서리에보꽃은 꽃이 피어서 10일
안팎이면 첫서리가 내리군 하므로 첫 서리에보
《능수》로 불리운다.

겨울철에 날씨가 더우면 매화가 일찍 피는데
이것은 다가오는 봄철의 날씨가 차다는것을 예보
해준다. 겨울철날씨가 추우면 매화가 늦게 피는데
이것은 다가오는 봄철의 날씨가 덥다는것을 암시
한다.

함수초를 손으로 슬쩍 다칠 때 잎이 빨리 닫히
고 천천히 열리면 날씨가 계속 좋을것이라는것을

의미하며 이와 반대인 경우 날씨가 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꽃들은 철을 따라 피고진다. 그런데
일부 꽃들은 시간을 따라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한
다.

들길에 노랑게 피는민들레꽃과 《아침일찍 기상
나팔을 부는》 나팔꽃은 이른아침에 핀다. 목채송
화는 낮 12시가 되어서야 꽃잎이 피기 시작하고
낮에 피었던 냉이꽃과 토끼풀은 붉게 타는 노을
비낀 하늘을 배경으로 오후 6시경에 꽃잎을 오후
리기시작한다. 그리고 병꽃은 저녁 9시경에 천천
히 피기 시작한다.

로동자합숙에 어린 뜨거운 사랑

성강의 봉화는 강철생산에서뿐만 아니라 후방사업에서도 타올랐다.

후방사업에서도 타오른 성강의 봉화!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께서 수많은 단위의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언제나 생각하신것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든 기업소답게 문화위생적으로 알뜰하게 꾸려진 성강의 로동자합숙이었다.

성강에는 오래전부터 로동자합숙이 있었다. 하지만 10년전까지만 하여도 합숙생들의 생활조건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

성강의 로동계급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살림집도 더 지어주고 식량공급사업도 짜고 들어야 한다, 부업지농사도 잘 지어 후방공급사업을 잘해야 한다. ...

이것이 성강의 봉화를 지펴주시던 력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중요한 문제였다.

일군들은 부업경리도 잘하고 로동자들의 합숙도 문화적으로 꾸려주어야 한다, 합숙호실에는 공부할수 있는 책들도 있어야 한다, 일군들은 로동자합숙에 자주 들러 로동자들과 같이 잠도 자보고 생활도 해보아야 한다. ...

이처럼 가시는 곳마다에서 구석구석 관심하시며 일군들이 로동자들의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도록 하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성강의 일군들이 합숙생들을 비롯한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도록 필요한 조치도 다 취해주시였다.

주체93(2004)년 12월 어느날 성강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동자합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합숙생들이 두툼한 솜이불도 갖추어놓고 살고 있다고, 비행사호실에 못지 않다고 못내 기뻐하시고 한증탕과 목욕탕을 운영하는것이 마음에 든다

고, 합숙생들의 합숙비와 부식물값을 기업소자금으로 보장하고있는것은 장려할만 한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신 위대한 장군님. 자신께서 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면서 로동자회관과 합숙을 잘 꾸리라는 과업을 주었지만 이렇게 후방사업을 잘하고있는 단위는 처음 본다고, 성강의 봉화는 생산에서뿐만 아니라 후방사업에서도 타오르고있다고 하시며 그모든 영광을 이곳 일군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은정을 무엇으로 다 전할수 있으랴.

지난해 8월 어느날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이곳 오리목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고기생산과 그 공급정형을 료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득 기업소의 한 책임일군에게 로동자합숙의 운영정형에 대해 물으시였다.

합숙운영을 잘하여 로동자들이 합숙을 《우리집》이라고 하면서 많은 시까지 창작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기업소에서 생산을 비롯한 모든 일이 잘되고있는것은 든든한 후방사업이 안받침되어있기때문이라고, 이것은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다라고 하신 수령님의 심오한 철학적명언의 진리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가슴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기업소에서 생산의 주인인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짜고들어 이악하게 노력함으로써 몇해사이에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성강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 간곡한 말씀에는 후방사업에서도 성강을 전국의 앞장에 내세워 성강의 봉화가 영원히 타번지게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이 어려있다.

김동철

총대의 숨결

변영환

어릴적에도 다 자라서도
때없이 찾는 내 고향의 동주성
사연도 많은 완월루에 올라서니
기다린듯 다가서는 구룡산 봉우리
내 고향 벽동아, 이끼푸른 동주성아
위인들의 숨결 이 가슴 부풀게 하누나
동주성의 성돌마다엔

만경대가문의 숨결 뜨겁게 맥박쳤나니

그래서 아니던가
흰구름 감돌던 어느해 여름날
우리 장군님 여기 오시여
감회깊이 하신 말씀
—동주성은 우리 할아버님께서

무장을 들고 싸우신 뜻깊은 곳입니다

아, 쟁쟁히 들려오는듯
압록강 푸른 물도 못 잊을 추억을 부르는가
일제의 총칼에 신음하는 동포들 구원하시려
무산혁명의 총대 높이 드신 김형직선생님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그날에 읊으신 시의 구절구절
장군님 가슴속에 메아리쳤거니

병풍처럼 펼쳐진 구봉산너머
저 이름없는 푸른 야산기슭엔
수령님의 자욱자욱도 새겨져있어
준엄했던 전화의 그날 병사들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념 안겨주시던 수령님영상
장군님심중에 뜨거이 안겨왔어라

동주성아, 너는 력사의 증견자우리 장군님 바로
이 땅에서
만경대가문의 숨결을
무적필승의 총대숨결로 받아안으셨거니

오, 다시한번 안아보자 동주성아
너를 감돌아 흐르는 압록강의 푸른 물
그날의 그 뜻 이 가슴에 새겨주고
구봉산봉이마다 푸른 산 줄기마다
총대의 숨결로 이 심장 높뛰게 하나니

한줌의 흙, 한포기의 풀에도
총대의 숨결 어려있어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이 땅에 총대의 숨결 이어주는
오, 내 고향 벽동, 동주성이여!

겨울날이야기

전승일

창밖에선 우우—
2월의 눈보라 마지막영악을 부리고
구수한 콩장내 물물 띄워올리는
넓은 발효장 탕크들 사이사이론
젊은 발효공녀인
바빠바빠 계기누금 살피가는데

문득 활짝 열리는 출입문
이 아니 꿈인가 생신가
태양같은 미소 뿌리시며
성큼성큼 들어서시는분
어깨에 걸치신 하얀 위생복안엔
그리도 눈에 익은 솜옷
분명 아버지 우리 장군님이시다

황황히 달려와 허리굽히는
너인의 젖은 두손 잡아주시며
수고한다고
청진장맛 보고싶어 찾아왔다고
다정히 말씀하신다

순간 피잉—
너인의 눈가에 고이는 맑은 물방울
어쩔 장군님께서
하찮은 장맛때문에
이 눈보라치는 천리길을 오시다니...
나에겐 장맛이 큰 중대사이기에
전선길을 가다 이 공장에 들렸으니
향기로운 장맛비결 어서 말해보라고
다정히 이르는 장군님 귀가에

떠들떠들 너인은 말씀올린다

발효날자 앞당기던 일이라
세균길러 뚫은 맛 없앤 일이라
그 무슨 크고큰 기적의 보고 들으시는듯
봄날의 해빛같은 미소 만면에 담으시고
마지막말까지 다 들어주시는 장군님

—그래 그래
얼마나 훌륭한 일이요
향기로운 이 장맛은
인민을 위해 늘 젖어있는
수고많은 동무들의 손맛이야
나에게 한단지 줄수 없을가
온 나라에 자랑하고싶어그래
그러시곤 호탕하게 웃으셨네

순간 두볼을 적시며
샘처럼 쏟아지는 너인의 더운 눈물
장군님 솜옷자락에
소리없이 스며들었네
오실 때처럼 조용히 떠나가시는 장군님
너인은 목메여 바래워드렸네

흰갈기 쳐들고 몰아치는 눈보라속으로
야전차는 멀어져갔네
조국의 운명을 책임진
최고사령관의 야전차엔
한단지 콩장이 무겁게 실려가고있었네

만점짜리

장의복

청진시 한복판에는 새로 건설한 도인민병원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웅장화려하게 솟아있다. 현대적으로 잘 꾸려진 여기에 들어서기만 해도 병이 저절로 나을것 같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생각은 바닥없이 깊어진다.

지난해 8월, 제일 무더운 삼복철에 병원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외래동과 입원동의 안팎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며 정말 수고했다는 과분한 치하를 주시었다.

그때 병원의 한 일군이 모두의 심정을 담아 우리 인민들이 만점짜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 정말 좋아한다고 장군님께 정중히 아뢰었다.

만점짜리 병원!

이것은 가장 고마운 조국에 드리는 인민의 인사, 장군님께 드리는 축원의 인사였다.

너그럽게 웃으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인민들이 이런 병원에서 치료받게 되어 좋아한다는데 자신께서는 아직 만점을 줄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소생실의 문을 더 넓혀 환자의 침대가 마음대로 드나들게 해야 한다고, 방마다 손잡이를 없애야 병균에 의한 오염을 막을수 있다고 하시며 그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환자들이 바라볼 창밖의 풍경까지 넘려하시는 장군님의 다심하신 말씀을 들으며 의료일군들은 모두 뜨거운것을 삼켰다.

인민의 감정을 훌륭히 형상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인민이 보면 좋아할거라고 잘된 예술영화에 주신 장군님의 만점은 인민이 기

준이였다.

예로부터 자식이 앓으면 어머니는 마음을 앓는다는 말이 있다. 자식이 기쁨을 줄 땐함께 기뻐하다가도 앓을 때에는 도리어 자식에게 기쁨을 주려고 애쓰는것이 어머니일진대 정녕 앓고있는 자식에게 기뻐하는 어머니의 사랑에 만족이 있었던가. 자식이 생각 못하는 사소한것에도 마음쓰는 그런 어머니들의 그사랑을 다 합친대도 대신 못할 무한대의 사랑이 가슴가슴을 뜨겁게 한다.

어머니만이 볼수 있는 눈으로 어머니만이 느낄수 있는 그 아픔으로 하여 만족이 없는 위대한 아버지, 인민을 위해서라면 산을 밀고 바다를 말리워서라도 불사약을 얻어오고싶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바로 그런분이시기에 인민의 건강을 위한 일에서는 정녕 만점의 기준이 없으신것이다.

전선길을 이어가시며 총대로 인민을 지켜주시고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끝없이 꽃피워주시는 진정 경애하는 장군님은 인민의 하늘, 인민의 태양이시다.

아, 장군님 걸으시는 선군의 그 길따라 강성대국의 새날이 밝아온다. 우리 장군님 기뻐하시는 만점짜리 공장, 만점짜리 도시, 만점짜리 병원들이 수많이 태어날수록 더 빨리 다가올 우리의 강성대국...

인민에 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에는 끝이 없나니 이 땅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치는 사랑에는 그 한계가 없고 만족이 없는것이다.

쇠물봉화

리영삼

용해장에 높이 뜬
쇠물남비
솟구치는 붉은 화염은
마치도 쇠물봉화인듯

불새처럼 날으는
천정기중기에 둥둥 떠서
붉은 노을로 밀어내는 어둠
그 쇠물빛에 바다여 파도여
너도 진정할수 없는듯

낮이면 해빛이
네 쇠물빛에 자락을 엮고
밤이면 별빛이
네 불노을에 빛을 없어
성강의 마음 하늘가로 싣고 가느냐

장군님 지퍼주신
성강의 봉화
다진 맹세를 지켜
받아안은 믿음을 지켜
낮이나 밤이나
우리 심장으로 추켜든
너 쇠물봉화 아니냐

눈이 오나 비가오나
더 붉게만 타오르는 성강의 불노을
이 땅의 어둠을 다 밀어내며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쇠물봉화여
9월의 대축전장에 안고 가는
성강의 신념과 의리의 불길
애국의 봉화여!

철은 무거웠던가

김홍균

꽤 오래전 일이 생각난다.

어느 산간마을의 내가에서 예닐곱살때의 아이들이 다투고있었다. 항용 아이들의 다툼이란게 단순한것이 일반인지라 그 다툼 역시 별치 않은 것이었다. 가재잡이를 하다 놓친 놈이 어지간히 큰 돌밑에 숨어버렸는데 그걸 움직여보려다 우연히 다툼이 시작되었던것이다.

모두가 중구난방으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게 돌이라고 떠드는데 한 아이만은 그게 아니라고 도리질했다. 철의 도시에서 할머니네 집에 놀러왔다는 애는 여러 아이들과 맞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건 철이라고 우겼다.

동네아이들은 산기슭에 뿌리를 깊이 박고 개천을 만나마 막고 선 집채같은 바위를 가리켰다.

《그래 철이 저것보담두 무겁단 말이야?》

《그럼!》

그 애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너흰 보지 못했으니까 용광로가 얼마나 큰지 다 몰라. 거기서 쇠물이 나온단 말이야. 저 바위보다 큰 남비에 쇠물이 담기는데 그걸 기차가 끄단 말이야. ...》

제법 아는 소리를 했다. 아이는 팔을 벌리고 턱을 한껏 쳐들고 형용해보였다.

《제철소에 가면 소결로두 있고 해탄로두 있어.》

《그건 또 뭐야?》

《몰라.》

애는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한게 우스워 씩 웃었다.

아버지한테서 귀동냥한 소리를 한게 당장 웃음거리가 되었다.아이들이 깔깔거렸다.

《팍포쟁이!》

아이는 주눅이 들지 않았다. 발끈해서 소리쳤다.

《내가 정말 모르는가 하니? 그——건 말이야. 음... 용광로가 형이라면 그것들은 동생이야.》

대포를 놓으면서도 굳이 그렇게 믿었다. 아직 제철공업에 대해 다 알수 없는 아이였다.

그래도 그 애에게 명백한것은 철이 무겁다는 것이었다.

호기심 많은 아이는 용해공인 아버지를 따라 자주 제철소에 나갔고 용해장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제집마당을 싸다니듯했다. 아버지가 부어낸 철을 모아놓으면 산을 이루리라는것을 알았고 그 무게 또한 상상할수 없이 평장히 무거우리라는것을 알았다.

그래서 산골아이들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의심

하지 않았다.

그 애가 바로 어릴적 나였다.

나에게는 점차 커가면서 한가닥 의문이 생겼다. 그렇게 쇠물을 부어내고 또 부어내도 만족을 모르는 아버지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용광로에 나가 살았다.

보수주의, 신비주의를 불사르며 천리마를 타고 서 달렸다.

낮에도 나가고밤에도 나갔다. 교대에 따라 명절에도 나갔다. 집에 류다른 일이 생겨 시간이 필요한 때도 타발없이 일터에 나갔다.

내가 보건대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용광로를 위해 살았다.

나는 동네애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유보도나 해수욕장으로 나가는것을 볼 때면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휴식날같은 때에도 야금과 관련한 책을 펼쳐놓고 책상머리에서 떨어질줄 모르는 아버지였다. 때론 한가득 종이장을 펼쳐놓고 쓰고 지우고 하며 무슨 기술혁신안 같은것을 연구할 때도 있었다.

어느 휴식일 나는 아버지에게 오늘 세식구가 함께 들놀이를 가자고 졸랐다.

《안됐구나. 나라에선 더 많은 철을 요구하는데 용해공인 아버지예겐 시간이 없구나. 교대를 어겨서야 안되지. 이제 철을 많이 부어낸 다음 우리 함께 사진두 찍구 해수욕장에도 가자꾸나.》

아버지는 외아들자식인 나를 무척 사랑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청을 받아주지 못했다.

나는 얼마만큼 철을 생산하면 되는가고 물었다.

《글쎄 우리 사는 이 고층살림집만큼 부어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좀 가벼워질는지. ...》

그 고층살림집만큼 쇠를 녹여냈을거라고 생각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들놀이를 갈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이번에는 또 저 멀리비껴간 높은 산을 가리켜보이며 그 높이만큼 철을 부어내면 마음이 가벼워질거라고 했다.

나는 어찌하여 아버지가 꽃테프를 목에 걸고 새 기록창조의 혁신자로 속보에 이름이 대문짝같이 실리고 신문과 방송에 소개되면서도 만족을 모르는지 다 알수 없었다.

후날 용해장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일의 전반사업을 돌보셔야 하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무려 30분이나 기다려 아버지들의 출선작업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으며 철생산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1분1초가 것처럼 귀중한 우리 수령님께서 용광로앞에서 귀중한 시

간을 지체하셨으라 하는 가슴뜨거운 생각을 했다.

나는 점차 철에 대해 무심할수가 없었다. 중학 시절 작문을 지어도 용광로에 대해 썼고 그림을 그려도 노을이 붉은 제철소의 전경을 그리기를 좋아했다. 고향도시를 떠나 수학여행을 하고 돌아오던 열차의 차창가에서도 먼저 바라본것이 대야금기지의 전경이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도 용해공이 되었다. 아버지 우리 수령님께서 수백명 참가자들속에서도 눈여겨 찾아보시고 아무개가 보이지 않는다 못내 서운해하시며 당장 비행기를 띄워 국가연회장에 불러준 전설같은 이야기의 주인공도 용해공이었고 관북땅 천리 먼길을 찾아오실 때마다 꼭꼭 찾아주신 일터도 대야금기지였으니 용해공의 아들인 내가 달리는 될수 없었다.

용해공이 되어 철의 의미를 다시 깨쳤고 외아들자식의 소박한 요구도 들어주지 못한 아버지를 리해하였다.

철의 도시 로동계급은 언제나 우리의 대야금기지를 나라의 생명선이라 불러주신 그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산다.

오늘은 내가 자식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철생산자들에게 대를 이어 돌려주시는 크나큰 신임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주며 아버지처럼 용광로의 숨결을 지켜 나의 삶을 아낌없이 바쳐간다.

나라의 생명선을 지켜섰다는 남다른 영예와 자각을 안고 우리 철생산자들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용광로의 불만은 끄지 않았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용해공이 된지도 15년, 그 나날에 내가 부어낸 쇠물도 산을 이루련만 나 역시 오늘 만족을 모르고 산다.

상식

세계적으로 번성하고있는 《유모아산업》

유모아는 유쾌한 웃음속에서 사람들에게 생활의 교훈을 준다. 유모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을 낙천적으로 조직하고 그들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며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유모아산업이 번성하고있다.

세계 텔레비존망에서는 인기프로로 희극을 선택하고있으며 어느 한 나라에서는 현재 22개의 《웃음구락부》에 수백명의 성원들이 망라되어 웃음내기에서 서로 승부를 겨루고있다고한다.

어느 한 나라의 유모아회사는 1994년부터 장사가 흥성해지기 시작하였다. 이 회사에서는 세계

누구나 서늘한 그늘을 찾고 해수욕장 푸른 물에 몸을 잠그는 찜질구는 삼복의 무더위속에서 어이하여 경애하는 장군님 2천리강행군길을 달려 북방의 대야금기지를 찾아주셨는지 우리 그이 찍어가신 자욱자욱을 새겨보며 목메여 눈시울 적신다.

철! 철생산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위대한 장군님 펼쳐가시는 경제강국건설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될 철이어서 우리 부어내고 부어내고 또 부어내고 만족이 없고 그래서 언제나 모자라게만 생각되는게 아닐가.

하여 우리 하루일의 시작도 총화도 용광로앞에서 자기가 부어낸 철의 무게를 마음에 얹어보며 짓는다. 용광로에서 부어낸 철이 무거운만큼 다소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의 희열에 넘쳐 기쁘게 웃을수 있는 우리들이다.

그 철이 가벼울 때 마음은 곱으로 무거워져 당앞에, 조국앞에, 인민앞에 량심의 총화를 스스로 지으며 우리 잠자리에서조차 모대김하게 된다.

때없이 생각해본다. 내 마음에 없힌 철이 언제 한번 무거운 때 있었던가를.

없었다!

나는 안다. 나라의 생명선을 지켜선 사명감을 안고 용광로의 주인으로 사는 나에게 철은 영원히 무겁지 않으리라것을.

안다! 예나제나 용해공—우리 심장의 열도로 쇠물이 끓고 그 쇠물빛으로 강성대국의 그날도 더 빨리 온다는것을...

오늘도 나는 내 삶의 하루에 헛되이 보낸 시간은 없었던지 량심의 저울에 부어낸 철의 무게를 얹어보며 생각해본다.

용해공 나에게 철, 철은 정녕 무거웠던가!

각국에서 출판한 50여권의 유모아와 우스개집을 수집하여 영문으로 번역한 후 다시 희극배우들을 초빙하여 출연시키고 또 그것을 록음하여 수출하고있다.

짧은 몇년사이에 이 회사의 유모아상품은 여러 나라들에 수출되였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유모아병원까지 생겨났는데 이 병원일군의 반수이상인 말재간이 좋은 유모아대가들이다. 이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써주는 처방전에 희극배우, 요술사, 교예사들의 이름이 오르고있다. 환자들은 의료일군들의 재치있는 출연과 간호를 받으면서 약간의 약물 및 수술치료를 받고도 효과를 보고있다고 한다.

어느 한 나라에 조직된 유모아협회에서는 너자는 하루에 13~16번, 남자는 적어도 17번 웃게 하면서 회원들에게 희극과 영화, 유희 등을 구경시킨다고 한다.

이제는 《세계웃음의 날》이라는것도 생겨났다.

불라는 야금기지에서

장동일

대야금기지—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40여년!
하고싶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다.

제대배낭을 벗어놓은 주체51(1962)년부터 해탄로의 불앞에서 13년, 그후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김철에서 살고있다. 물론 그동안에 창작을 위하여 이따금씩 다른 시, 군에 가고 온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였다. 그 어디에 가있든 나는 김철을 잊지 않았으며 김철로 다시 돌아왔다. 하여 이제는 60이 훨씬 넘어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오늘까지 이 땅의 쇠물냄새를 맡으며 소설을 쓰기 위해 모대기고있다.

여기서 조선로동당원이 되었고 여기서 첫사랑의 고백을 했으며 자식들을 본 여기 김철을 내어찌 떠날수 있겠는가.

나는 김철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반영한 장편소설을 다 끝내기 전에는 창작과 관련한 글을 쓰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 하고싶은 충동의 말이 있어 서둘러 붓을 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때없이 폭우가 쏟아져내리는 삼복철에 강행군을 하시여 찾아오셨던 그날의 충격을 대하여, 김철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생명선이라고 하시면서 김철로동계급은 강성대국건설에서 맡고있는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그날의 흥분을 안고 내가 쓰는 소설에서 이 부분을 새롭게 구성하고 형상화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필가들은 현실체험을 잘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난해 《삼복철강행군》을 이어가시면서 이곳에 일을 잘하는 일군들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을 접하고 나는 새로운 흥분속에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고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 내가 쓰는 소설의 주인공들—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세워주신 그들의 사상정신세계를 나는 웅대한 높이에서 그렸으며 또 그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어떤 생활, 어떤 세부를 알고있는가.

나는 정녕 이때처럼 자신을 돌이켜보며 그래도 잘되었다고 생각했던 하나의 작은 성격세부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구체적으로 재음미해본적은 없었다.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철에 오신 그날 제철소구내길과 거리거리를 바삐 오고가는 김철사람들의 환희에 찬 얼굴들, 힘찬 걸음걸음을 새로운 눈으로 새롭게 보며 새로운 흥분에 휩싸여있었다.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직접 만나뵈온 기업소의 책임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만나보고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걷고 또 걸었다.

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군이 나와 동행해주었다. 나는 저르기 놀라운 그 일군의 행동에 대해서도 새롭게 느끼게 되었다. 그는 나와 20년 가까이 함께 지내면서도 이날처럼 흥분하여 오랜 시간 함께 걸은적은 없었던것이다.

《우리 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은 바로 여기 어버이수령님을 형상한 이 모자이크벽화앞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맞이하였습니다.》하고 그는 많은 말을 나에게 하였다.

그날 아침까지 내리던 비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시자 갑자기 멎고 하늘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흥분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이것은 전설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전설입니다.》

나는 그 일군과 함께 장군님의 자옥자옥을 다 돌아보고 그날 밤 아래와 같은 대목을 원고지에 쓰게 되었다.

...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지 못한 공장에서 어떻게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실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어제 밤에도 폭우가 쏟아져내려 공장구내가 물판이 되지 않았는가.

일군들이 안타까운 심정을 안고 서성거리고있을 때 공장정문앞 도로에서 이쪽으로 꺾어드는 갈림길어구로 몇대의 승용차가 들어서고있었다.

(아! 경애하는 장군님!...)

어느새 가까이 다가와 멎어선 승용차문이 열리면서 김정일동지께서 천천히 내리시였다.

그이께서는 허리를 쭉 펴시고 흥분해서 서있는 마중나온 책임일군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를 하시며 뒤쪽에 서있는 책임비서를 유심히 지켜보시였다. 그 정깊은 시선을 받으며 급히 앞으로 나서며 책임비서는 인사를 드렸다.

《장군님!》

《아, 책임비서동무 오래간만이에요.》

우렁우렁한 그이의 음성은 뜨거웠다.

《새 지배인동무는 젊었구만.》

전 지배인을 넘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였다.

《예, 장군님, 최현기지배인은... 지배인동무는 지난해 9월에...》

《알고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슨 말씀인가 하시려다가 묵묵히 생각에 잠기시여 책임비서의 얼굴을 마주 보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 나직이 물으시였다.

《그래 책임비서동무, 요새 건강은 어떻게소?》

《전 일없습니다. 장군님...》

책임비서는 장군님의 따뜻한 물으심에 그만 가슴이 뭉클해지고 다시금 눈시울이 젖어올랐다.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한 일터에 장군님을 모시었으니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이럴 때일수록 실패를 그대로 보고드려야 한다.)

《장군님, 지금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 문제가 얼마전에 총리동무가 김철에 내려와 방도를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각에서 총리가 결심한대로 김철의 원료문제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생산정상화의 토대를 어떻게 마련해놓았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확정적이라면 생산을 끌어올리면 되는것이지 무엇때문에 대야금기지 책임일군답지 않게 기여들어가는 목소리입니까. 아마도 동무신상에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이구만?》

그는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

《장군님, 저에게는 아무 사정도 없습니다. 아무 사정도... 지금 내각동무들이 내려와 뛰구있습니다. 원료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생산을 끌어올리겠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대답을 올리는 그의 목소리는 기운찼다. 그는 벗어진 이마를 공연히 쓸어넘기기까지 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최형기지배인은 오랜 야금일군으로서 공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년로한 나이에 불치의 병으로 신고하다나니 동무가 수고했습니다.

가정의 불행도 이겨내면서 말입니다.》

《?!...》

소설이라기보다 사실그대로의 기록일 따름이다. 현실은 나에게 쓰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흥분시켰다.

책임비서는 목메인 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선생,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김철의 책임일군들에게 생산실패를 알아보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속 고충까지 먼저 헤아려주시였습니다.

기업소를 다 돌아보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지배인이 사망한 한달후에 책임비서는 인차 자기 안해를 잃었는데도 경구를 발인한 그 다음날부터 4호해탄로 개건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큰일을 했다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위대한 아버지를 모시였기에 우리에게 설사 그 어떤 시련이 있다 해도 두려움을 모르고 의리를 다해 보답하는것이 전사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작가선생,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우리에게 해탄로의 불을 결사적으로 지켜낼수 있는 담력과 배짱을 주시고 생산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김철로동계급이 정말 강하다고 크나큰 믿음을 주시였기에 우리 김철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 오르는것이 아닙니까. 이 위대한 현실에 대해 내손으로 쓰지 못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작가선생, 부탁드립니다. 물론 쓰고있겠지만 빨리 써주시시오.》

나는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10여년전에 중편 실화문학 《불은 끝수 없다》를 쓸 때 여러번 그를 찾아갔을 때는 별로 한 일이 없다고, 시간이 급하다는 식으로 나를 피하는것 같던 그가 오늘은 오랜 시간 구내길을 함께 걸으며 나의 창작을 독촉하고있는것이다.

벽찬 현실이 나를 부르며 커다란 충격을 주는 것이다.

나는 소결 1직장 종합지령실에서도 새로운 충격을 받게 되였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 창작중에 있는 장편 소설의 기본무대인 해탄로와 용광로에 자주 나가 보곤 했지만 소결로에는 관심이 적었다. 지난 시기의 나의 인상에는 소결로 하면 먼지부터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호소결로를 다녀가신 후에야 나는 이곳을 찾아갔다.

지난 시기의 모습은 찾아볼수도 없는 종합지령실을 돌아보면서 놀랐다가보다 이처럼 빨리도 몰라보게 변모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있는 자신을 깊이 반성해보게 되였다.

모든 공정이 현대적으로 변모된 이 현실을 외면하고 지난 시기의 표상이나 가지고 비약하는 시대의 감정을 호호하지 못하고있다는 자책을 깊이 느끼게 되였다. 소결광생산을 훨씬 늘이고 먼지가 나지 않게 새롭게 개건된 현장을 돌아보면서 나는 현실에 나와있다고 해서 현실을 다 아는 것도 아니며 현장에 나왔다고 해서 작가의 체험이 저절로 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나는 이날 다시금 심장에 새기게되였다. 작가가 어느 한때에 체험한것을 가지고 글을 써서는 안되며 시대와 함께 날로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때 작품은 물론 자신도 멀리 뒤떨어지고 말것이라는 이날의 교훈은 나에게 새로운 결심을 가지게 했으며 대담하게 이미 써놓은 소설을 다시금 추고할수 있는 다행한 기회를 주었다.

내가 일하던 4호해탄로도 지난 세기의 흔적은 찾아볼수도 없이 현대적으로 개건되였다.

혁명적군인정신으로 해탄로들의 개건현대화를 짧은 기간에 끝낸 이곳 로동계급의 위훈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으며 생산정상화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었다.

나는 비로소 지금에 와서야 매 인간들의 성장

과 함께 새로운 성격을 찾아주고 새로운 흥분속에 낮과 밤을 보내고있다.

얼마전 내가 평양에 올라갔을 때 만나는 작가들마다 나에게 물었다.

《장동무, 요새 김철이 어떻소?》

참 고마운 물음이다. 나는 그들에게 자신있게 말해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후 김철은 기적을 창조하고있소. 한번 꼭 내려와보오.》

지금도 나의 현지창작실에는 용광로의 열풍소

리가 들리고 바다가까이에 있는 해탄로쪽에서는 소화탑에서 솟아오르는 증기가 구름처럼 떠있다.

이것은 해탄로, 소결로, 용광로의 생산이 정상이라는것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창작실창가의 불노을은 언제나 불타고있다.

내 가슴도 붉게 물들이는 김철의 불노을—

이 불타는 노을을 안고 현실속의 주인공들과 숨결을 함께 하며 그들의 손걸하고 참되고 강의한 모습을 시대앞에 그려내기 위해 나는 지금도 열정의 불을 달리고있다.

아 들

류동호

내 때없이 번져보노라

땀에 젖고 풀물이 배인 손으로 쓴

나의 색깔은 일기장

기쁜날이면 한번 더 새겨보노라

산골밭이랑우에서 쌓이고쌓인 그리움을 담아

아들이라고 쓴 그 일기장

내 너무 쉽게 외우던 아들이란 말

외진 산간벽촌의 돌서덜밭에서 깨달았노라

대동강으로 흘러드는 시내물이 부러워

평양으로 실려가는 통나무가 부러워

거기에 내 마음 싣고 하염없이 따라서며

눈물겹게 불러보았노라

그런 날엔 달빛아래 나의 일기도 밤을 몰랐다

장군님품에 안기며

그리고 정겨웁게 불렀던 아버지란 그 이름

내 스스로 몇몇이 자부하던 아들이란 그 이름

현실체험의 나날에

나는 일기장에 무엇으로 새겼던가

부모앞에 아들이란 말은 부르기 쉬워도

장군님의 아들이라 부르려면 심장을 바쳐야 함을

그 본분과 의리를 다하려면

한생을 바쳐도 모자란다는 그 철리를

글줄이 아니라 피줄로 새긴 일기장

그이의 크나큰 심장과 내 심장을 이어주는

혈친의 그 정을

나는 운명의 젖줄기로 부여안고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일기장에 새겼노라

눈물보다 진한 피로 적어넣었노라

그 정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먹여준 정, 키워준 정, 내세워준 정에

땀에 젖은 보답은 바치지지는 못할망정

복속에 복을 모르고 응석꾸러기로 산 나날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후회되어 아팠던 마음

그날에 이 아들은

세상에 다시 태어났다

이 땅우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가꾸며

이 아들은 철이 들었다

아들이란 두 글자를

호미날로 밧고랑을 찌듯 마음을 갈고

한자두자 심장으로 새긴 일기장

아버지 그 품을 순간이나마 떠난다면

내 인생은 물거품만도 못한 운명이라는것을

말해다오 내 한생의 좌우명을 새긴 일기장이여

뒹어진 량심을 씻는 비누 세상에 없고

흐린 뉘을 거르는 채 세상에 없거니

아버지 그 사랑을 받는데 습관된 아들이 아니라

보답의 열매를 바치는것이

몸에 밴 아들이 되려는 진정

한생의 걸음걸음 속삭여다오 채찍을 엮어다오

내 신념의 일기장이

심장으로 쓴 그날의 일기는

오늘도 내 삶을 부른다

장군님위업에 하나의 고임돌이 되라

강성대국 큰집에 하나의 대들보 되라

내 때없이 번져보노라

흙냄새 거름냄새가 배인 손으로 쓴

그날의 귀중한 일기장

아버지장군님의 아들답게 긍지높이 사는

내 인생의 좌표가 흔들릴가봐

내 한생의 눈빛이 흐려질가봐...

마천령아 너를 불러불러

정동찬

마천령
북방의 관문 너 마천령아
너의 령을 넘어 성강땅에 오는이들
앞트인 동해를 한가슴에 안아보며
쉬여가는 곳이건만

잠시 쉬임도 없이
너의 마루길 넘어오신 장군님
그이 오신 때는 무더위로 찌는 삼복철
그이 발걸음 멈추신 곳은
확확 열기를 뿜어대는 가열로
이글거리는 불앞이었으니

불과 불이 마주치는 로속에서
달구어낸 강편들 줄지어 나오오
뿜아낸 철근의 흐름 가닿는 출하장 끝까지
그이께서 미소어린 눈빛 보내고계실 때

그이앞에 열을 막아 둘러선 로체공들
말없이 눈곱을 닦는 그 한동안
그이모습, 흘러내리는 땀방울
그것만 보고 또 보는데
아버이의 그 땀 거두어드리고 싶어

그 땀을 대신하고싶은 간절함을 싣고싶어
채광너머 먼 하늘을 향하여 불러부른
아,마천령

한여름에도 깊은 계곡에 눈을 끼고 솟은 령
한여름에도 서늘함을 간직하고 설레는 푸른 령
너를 불러불러
열풍 뜨거운 제강구내에 옮겨오고싶었더라

하건만 그이 또다시
너의 령을 쉬임없이 그대로 넘으시여
단천과 홍남 룡성으로 가셨다지

너 안고사는 삼복철의 보기 드문 하얀 눈
너 품고사는 서드러움도
그이의 삼복철행군길에서
그 더위를 가셔드릴수 없었으니

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그이께서 가고가신 강행군계절은
대소한의 혹한도 삼복철의 더위도 다 밀어내는
오직 인민사랑의 한계절이었구나

내앞으로 다가온다

김정순

내앞으로 다가온다
푸른 안전모 가벼이 눌러쓰고
병사의 총인양 샅 하나씩 어깨에 멘
처녀와 총각
내앞으로 다가온다
어랑천 강바람 타고 정찬 말소리, 웃음소리
왜 그런지 가까이 지나치며
좋은 말 한마디 건네고싶은
한쌍의 청춘
—어때? 힘들지?
—요즘은 일없어요
야, 처음엔 어찌나 춥고 힘든지
집이 그림고 어머니가 막...
—그리웠다? 하하...
다 큰 처녀가 어린애처럼!
—아이참, 호호호
용서하라 사랑스런 사람들아
그대들의 정겨운 속삭임 엿들은것을
아, 다시 보자, 다시 보자!

저 하늘을 찌른 발전소의 언제를
우리 장군님 기뻐 바라보신 저 《산악》을
바로 저같이 애어린 청춘들이
집을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며 쌓았구나!

×

내앞으로 다가온다
방금 누빈 새 작업솜옷을 어깨에 걸친
중년의 돌격대원
기사인가, 설계가인가
흰 도면말이 옆구리에 끼었는데
배낭 추스르며 총총 따라서는
젊고 아름다운 녀인
—어떻소? 집살림은?
—괜찮아요
당신이 여기 올 때 입학한 《래일》이가
얼마나 컸는지몰라요

자, 보세요
 소년단입단때 찍은 사진...
 그래 보고싶었다
 사랑하는 아들 《래일》이
 그리고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설
 부강한 내 조국의 래일이!
 그 래일이 하루빨리 보고싶어
 사랑하는 안해, 단란한 가정을 멀리 두고
 바람부는 어랑의 계곡에서 자고 깬구나
 위훈의 하루하루...
 그 《래일》을 잊지 않았기에
 진정 그리웠기에
 참되게 사랑했기에
 아버지는 집을 떠났구나!

×

내앞으로 다가온다
 저기 버럭 쌓인 물길굴입구
 밀고나온 광차에 비스듬히기대어
 휘파람부는 한 제대병사의 모습
 석수에 젖은 어깨
 걸어올린 팔소매엔 녹녹한 돌가루
 구겨진 앞가슴엔 서너개의 락장...
 어머니를 그리는가, 전우들을 그리는가
 흰구름 떠가는 팔향언제너머 저 멀리
 울려보내는 휘파람소리
 휘파람소리...
 이상해말아 처녀들아
 착암기 틀어잡고 기관총처럼 휘두르던
 저 제대병사
 아름다리동발이 우직거리던 봉락구간을
 한몸 날려 제압한
 저 불사신의 사나이
 발구르는 행진곡밖에 모를거라던
 저 짧은이에게
 저런 은은한 정서 가슴속에 있는것을!
 아니여라!
 방금 관통한 수십리 물길굴을
 다만 지휘관의 구령, 작업지령으로만
 뚫은것 아니여라!
 들으라, 저 휘파람이 속삭이는 뜻을
 너무도 우리 심장에 그윽한 그 울림을
 —내 마음 훨훨 어디로 가나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
 그렇다!
 옛 병사는 지금
 그리움을 호소하고있다
 영원한 장군님의 병사는
 그리움으로 또다시 위훈을 세웠고

그리움으로 불러오고있어라
 완공, 완공의 그날을!

×

내앞으로 다가온다
 해빛에 차창 번쩍이는
 한대의 야전승용차
 또다시 험한 령 굽이굽이 달려오시는
 환하신 장군님의 그 영상이!
 내앞으로 다가온다
 터져오르는 환호성을 누르며
 거세차게 울리는 발전기의 첫 동음이
 불빛밝은 마을과 거리마다
 제손으로 안아온 밝은 빛, 따스한 전기를
 울고 웃으며 반기는 기쁜 눈동자들이!
 부부혁신자
 가족소대
 형제분대
 쌍둥이돌격대원
 발파소리를 축포삼아
 여기서 결혼상을 받은 신혼부부들!
 아버지와 남편과 자식을 대신해
 그 중대, 그 소대, 그 분대에 탄원입대한
 눈물겹고 자랑겨운 모습들!
 다가온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집이 그림고
 어머니가 그림고
 아늑한 가정이 그리웠던
 목석아닌 보통사람들
 그 그리움을 조국의 래일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꾸고
 그 그리움을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승화시킨
 선군시대 평범한 영웅들이!
 아, 다가온다 내앞으로 다가온다
 눈앞에 솟아난 저 발전소의 웅자
 조국에 남긴 청춘의 큰 발자국처럼!
 이 땅에 길이 빛으로, 힘으로 남아
 선군혁명의 무쇠바퀴를 억세게 떠밀어갈
 영원한 청춘, 그 삶처럼!
 축복을 받으라! 영예를 받으라!
 그리움을 힘으로 바꾸고
 그리움을 신념으로 굳히고
 그리움을 크나큰 위훈으로 쌓을줄 안 사람들
 바로 그 높뛰는 심장들을 거쳐
 불타는 눈동자들을 거쳐
 내앞으로 내앞으로 다가오는
 아, 활짝 열린 강성대국의 대문이며!
 휘황한 래일이여!

칠보산의 새 절경 황진마을

리근지

황진마을

풍치수려한 산기슭에
하늘에 날아오르는듯 나는듯
칠보산절경을 추녀에 얹은
황진마을 황진마을

옷방에 가면 장수로인 신선갈고
아래방에 가면 아이들 글읽는 소리
부엌에는 달고 시원한 샘물 팔팔
정지문 열면 온천 더운 김 몸 적시는 집

대대손손 초가집 기와집이 소원이어서
칠보산바위집 바라보며 살았다더니
명산에 솟은 기암같은 마을
가슴뜨거움에 목메이누나

장군님 박달령 넘으시여
락엽처럼 널려있는 집들을
이윽히 바라보시며
돌부리 엉킨 길 걸으신 자옥자옥

산기슭에 새 마을터도 잡아주시고
집모양과 칸수도 헤아려주시고도
천길 땅속 온천도 이끌어다 주신

그 사랑 안고 솟은 황진마을이여

외칠보에서 만났던 바위쳐녀
어느새 여기 와서 옥동자 낳고
궁궐같은 집에 새살림 꾸렸는가
수집어 반기며 방안에 이끌고

내칠보 피아노바위는
천만년에 못 지었던 락원의 노래
오늘에 울리는가 선전실에선
마을사람들 타는 가야금 동기당당

계딱지같은 집에 가난이 울던
어제날이 옛말로 된오늘
너보다 더 복받은 곳 어데 있으랴
해빛넘친 창마다 행복이 꽃피여
온천에 무병장수하는 황진마을

황진마을 황진마을
칠보산 천하절승 끝난우에
아, 장군님 선군절경 펼쳐주셨구나
강성대국반석우에 너를 세워주셨구나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단풍이 한껏 타는 가을
추녀끝에 고운 새 노래하는
해빛넘친 궁궐같은 새집에
사뿐히 들어서는 신랑신부

축복하노라
해칠보에 동실 뜬 달같은 신부
칠보산에 내렸다는 선녀는 아닌가
름름한 기상넘치는 저 신랑은
칠보산을 지켰다는 그 나무군총각은 아닌가

이 경사로운 날 가슴에 젖어드누나
부르며 찾으며 눈물속에 헤어져
수수천년 칠월칠석에도 만나지 못해
애간장 녹이며 지냈다는

하늘선녀 나무군총각 사랑의 이야기

아 우리 장군님 그 선녀 불러
칠보산나무군 그 총각 불러
황금나무 능금나무 열매 주렁진 속에
선녀들 하늘궁전 백옥경 지어주시여
무릉도원 잔치상 차려주셨으니

여기서 근면하게 농사지어
칠보산 로적봉 더 높이 쌓아가리
여기서 아들딸 많이 낳아
칠보산 대장굴 선군장수 키워
강성대국 내 나라 지켜가리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칠보산 사랑의 새 전설 엮으며

강성부흥 내 나라 꽃피워가는

그대들 백년가약 축복하노라

《신선》로인의 이야기

새초이영 개울물에 씻기고
짜진 문풍지에 바다바람 우는 집에
화전을 일쿠며 살았단다
미역이며 바다나물 뜯으며
겨울에는 숯구이로 목숨 이었단다

짚신삼을 버짚도 없어
나막신을 만들어 신었단다
버섯처럼 돌아난 아이들
바위돌에 발가락 터치며
학교란 모르고 오소리굴 털며 자랐단다

칠보산이 명산이여도
왜놈들과 관료들 유혹장으로 만들어
집뜰앞 절승도 모르고 살았단다
산그늘에 눈 뜨면 낮 눈 감으면 밤
인간세상과 떨어져 살았단다

박달령은 한송의 령이어서
죽어서라도 넘어가고싶었다는 고장
오늘은 박달령 넘어 선군시대 아들딸들
대학생되어 가고 박사가 되어 오고
세상만복이 다 굴러온다고

복받은 인생이라
어버이장군님 한없는 은덕으로
칠보산절경에 선경마음로 꽃피여
온 나라 인민들 등산길로 불러주셨으니
황진마음이 명산의 명승으로 되었다고

어버이장군님 고마움에 눈물젖고
선경마을자랑에 웃음이 빙글빙글
눈앞의 백살을 박달령에 얹고산다는 장수로인
칠보산에만 산다는 《신선》과
내 마주앉아 이야기 듣는것만 같았다

휴양생처녀들 온천을 내리오

단풍불에 한껏 타는 휴양생처녀들
떠들썩 온천을 내리오
세상복을 저들만이 안은듯
행복에 기쁨에
웃음소리 짜그르... 온천을 내리오

온천약수가 살결에 습배여
너희들 얼굴 꽃잎같이 부드러우나
온천물에 씻고 더웁힌 목청이어서
너희들 웃음 그리도 맑고 청신하냐
선녀되어 훨훨 온천을 날아내리오

저 고운 얼굴
저 맑은 웃음소리
가슴을 뜨겁게 적시오
천을 주면 만을 주고싶어하시는
어버이장군님 끝없는 사랑

하늘땅에 주실것은 다 주시고도
온나라 인민을 다 불러
천길 땅속 약수까지 안겨주시며
무병장수 천만복을 누리게 하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궁전같은 공장과 선경벌에서
보람찬 로동으로 즐겁던 처녀들
오늘은 온천휴양으로
그리도 기쁨에 넘쳐
복된 웃음 활짝핀거나

온천에 정들어 칠보산에 정들어
황진마을에서 천만년 살리라고
선녀들은 칠선담에서 몸 씻었다지만
처녀들 온천물에 예쁜 몸 단장하고
온천을 내린다오

장군님 기다리는 황진마을

불러 정답고 살고싶은 황진마을
떠나자니 눈곱이 짜릿이 젖어오누나
장군님 모시고싶어 기다리는
황진마을사람들 간절한 마음이

걸음걸음 붙잡누나
전선길에 피로하실 장군님
가슴가득 눈물속에 어려

황진마을사람들과 함께
나도 그리고싶은 소청이 있어
차마 못 떠나 되돌아서누나

장군님 오시여 오시여
칠보산절경 즐기시며
전선길에 쌓인 피로를
온천약수에 씻으시고
하루라도 달게 쉬셨으면

뒤산에 오르시여
열매 단향기에 기쁨을 실으시고
술섬에 배 띄워 낚시대 드리우시여
삼복의 강행군에 젖으신 땀
시원히 들어해주셨으면

간절한 황진마을 소원안고
팔각추녀는 푸른 하늘 높이

저리도 솟구쳐 오르는것인가
장군님께 꽃피는 살림 보여드리고싶어
집집의 창가는 저리도 해빛부신가

달밝은 밤에도 기다려 우러르는 박달령
새벽에도 그리운 마음 엇고사는 박달령
장군님 오실것만 같아
문득 오실것만 같아
언제나 창문을 열어놓는
황진마을사람들

바다에는 유람선 띄워놓고
벌에는 금나라 쫓겨놓고
행복의 추녀엿은 집집마다
따끈히 온돌을 덥혀놓고
아, 장군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황진마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럼형미

성장이여 너의 숨결을 사랑한다
출근길이면 온 거리 메우는
불 다루는 사람들의 큰 걸음씨
정다운 이름 부르듯
강철의 원소들에 익숙해진 이 고장 말씨를

너의 색깔을 사랑한다
밤낮으로 불타는 쇠물빛노을
아이들의 옷에도 책가방에도 물들었다
이 고장 처녀들의
목수건도 구두도 빨간 노을빛

애인의 첫 고백도
너의 쇠물처럼 뜨겁고 순결해
붉은 과도 출렁이는 바다가에서
불을 안고 억세여진 대장부의 가슴에
한생을 의심없이 언약하는 곳

아 춘하추동 땀에 젖는
불덩이 성장이여
너에게서 나는 배웠다
뜨거움이란 무엇인가를
조국이 무엇인가를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

애국에 불타는 심장을 꺼내들어
성강의 봉화로 추켜든 고장이여
우리 장군님 받들어
락원의 돌파구를연
미더운 사람들의 보금자리여

지나가는 아이들 너인들조차
나에겐 무심히 보이지 않아라
온몸에 흐르는 붉은 피처럼
쇠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강성대국을 떠받들고 달리는
강의한 군상들처럼 생각되나니

흰눈이 내려도 쌓일새없이
녹아내리는 뜨거운 고장
서로의 마음도 전기로의 동음
출강의 화광으로만 소통하며
에두름 모르고 정과 열에 사는 고장

아, 우리 장군님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배워준 잊지 못할 땅이여
끝없이 설레는 너의 붉은 과도
천만의 심장에 애국의 피로 부어주는
열정의 무궁한 용암
아, 성장이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는 추격기비행사였다

박춘학

1

박상진은 조국이 해방되어 온 나라가 새 민주 조선 건설로 들끓는 시기 평양학원 항공과를 졸업하고 추격기비행사가 되었다.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집이 가난하여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그가 학원을 나와 비행사가 되었으니 세상사람들을 놀래울 일이었다.

그가 인생행로에 첫자욱을 찍고 세상리치에 눈길을 주며 귀를 강구기 시작한 곳은 발머리였다. 어머니를 따라 손목이 시도록 호미질을 하며 땀을 흘리다가 실참이면 최독에 앉아 가없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중천에서 종달새가 바람개비마냥 팔랑이며 지종대다가는 흙냄새 싱그럽고 아지랑이 너울거리는 들을 향해 팔매돌같이 내리꽂혔다 날아오르곤 했다.

철새들이 정다운 속삭임인듯 주절거리며 날개를 펴고 창공높이 날고있다. 그것들은 련련히 어깨결은 산봉우리들이며 농가들이 웅기종기 둘러선 마을들이며 곡식이 설레는 파란 논밭들이며 번쩍이며 굽어쳐흐르는 강을 한눈에 굽어보며 거침없이 훨훨 날아갔다.

어찌하여 새는 두 날개로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예는데 사람은 두발로 땅을 딛고 다녀야만 하는가? 그것은 새나 사람에게 지어진 피치못할 운명일까? ... 상진은 의문을 풀길이 없었다.

그랬던 그가 하늘의 영웅무쌍한 때, 추격기비행사가 되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할수 없었다. 그는 가슴 벅차게 솟구치는 기쁨을 어머니와 동생, 고향마을사람들에게 알리고싶었다.

상진의 고향마을은 그가 소속된 공군부대비행장으로부터 서남방향으로 6백여리 떨어진 산간오지의 덕동골에 터를 잡고있다. 마을이라고는 하지만 새초이영을 이은 열두동의 농가들이 나무숲이 우거진 골바닥에 널려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지나며 기창밖으로 내려다보면 그 모양은 마치 풀숲에 어물거리는 짝장벌레나 단조롭고 의미없는 무슨 흔적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상진은 그 농가들이 담고있는 온갖 세부들과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마음속에 떠올리며 때없이 향수에 젖곤 한다.

이 집들에서 사는 사람들은 해방전에 소작살이로 겨우 명줄을 이어갔다. 일년내내 등뼈가 휘도록 땀흘려 지은 곡식을 소작료로 지주에게 바치고 일제에게 공출로 뜯기우고나면 농량이 모자라 칫뿌리를 캐고 송기를 벗기여 방치돌에 두들겨물에 울겨먹으며 죽지 못해 살았다.

그들은 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구지를 타거나 걷고 하며 읍에 가서 해방열기로 끓어번지는 군중속에 섞여 어깨죽지가 느슨하고 목이 쉬도록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해방 만세!》를 웨치였다. 토지개혁으로 분여받은 땅에서 흙을 움켜쥐고 고마움에 목이 메여 눈물짓고 기쁨에 겨워 웃음터치던 그들...

상진은 회상을 미루며 옆구리에 드리운 비행지도가방을 끄당겨 뚜껑을 열고 종이와 만년필을 꺼내들었다.

2

농립모를 둘러쓰고 반소매베샤쓰에 무명반바지 차림을 한 면체신소 우편통신원아바이가 자전거를 타고 덕동마을어귀에 들어섰다. 그가 자전거에서 내려 농립모를 벗어두고 얼굴에 바람을 부치는데 마을 첫집 터밭에서 부루를숙던 녀인이 허리를 펴고 마주보았다.

《아유, 일년내내 편지 한장 안 가져오던 통신원아바이가 웬일이시우?》

《오늘은 한통 가져왔네.》

《뉘집에요?》

《샘물집에... 상진이 편지...》

《예?!》

녀인이 손에 쥐었던 부루를 받고랑에 놓은 다래끼에 던져넣고 달려나와 불쑥 손을 내밀었다.

《어서 줘요.》

《원, 보첸다구야. 그러니까 온 동네가 〈더퍼리아지미〉라지. ...》

《그러면 어때요? 난 그게 좋아요. 어서 편지나 달라요.》

아바이가 피씩 웃고나서 우편가방에서 편지봉투를 꺼내었다. 《더퍼리아지미》가 제격 받아들었다.

편지봉투를 받아든 그는 검정치마자락을 걷어차며 《샘물집》 쪽으로 달리였다.

밭에서 김매던 사람들이 눈이 둥그래서 쳐다보았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소? 땅에 숨이 닿게 달리게...》

《더퍼리아지미》는 멈춰서지 않고 달리며 알리였다.

《상진아재한테서 편지 왔어요.》

《영? ... 감감 무소식이더니 참 기쁜 일이군.》

상진의 편지가 왔다는 소식이 집집에 알려졌다.

저녁상을 서둘러 물리고난 마을사람들은 상진이네 집으로 모여들었다.

처마밑에 전등알이 매달려 대롱거린다.

마당에 명석을 깔고 어른, 아이 할것없이 마을의 사람들이 다 모여앉은듯 했다. 복판에 연풍집 할아버지가 가슴에 채수염을 드리우고 앉아 대통에 찌레기담배를 뭉그려 담고있다. 그의 둘레에 남정들과 녀인들이 아기를 안거나업거나 하고 앉아있다.

모두 상진의 소식을 어서 들었으면 하는 초조한 기색이다.

읍중학교에서 교원을 하는 순옥이가 마당에 들어섰다. 일요일인지라 집에 와있었던것이다.

상진의 어머니가 《네가 좀 읽으렴.》하고 청했다.

《예, 그러겠어요.》

순옥이가 편지봉투를 받아 속지를 꺼내들고 치마자락으로 무릎을 감싸며 앞에 나앉아 읽기 시작했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는 어머니, 동생 그리고 동네어른들과 아이들이 모두 잘있는지요? 저는 얼마전에 학원을 졸업하고 공군부대 비행사로 배치받았습니다. 비행훈련을 하고 잠깐 휴식하는 짬에 편지를 씁니다.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참았다 휴가받고 가면 그때 다 말하겠습니다. 만날 때까지 안녕히들 계십시오.》

편지가 짧아서 모두 서운해하는 표정들인데 순옥이가 봉투안에서 사진을 꺼내들었다. 그러자 저마끔 먼저 보려고 손을 내밀었다. 앞에 앉았던 《더퍼리아지미》가 얼른 잡아쥐고 들여다보았다. 그는 출격준비차림으로 찍은 모습을 보고 환성을 올리였다.

《예구나, 멋들어지다. 내옆에 앉아 순옥이한테서 글을 배우던 성인학교동창생 상진아재가 옹근 옹근은가?》

그 소리에 연풍집 할아버지가 쫓쫓 혀를 찼다.

《동네어른 먼저 제가 받아쥐고 이러니저러닌가?》

로인이 못마땅해하자 《더퍼리아지미》가 《예구, 내 또 무슨짓을...》하며 두손에 사진을 받쳐들고 내밀었다.

《잡아쥐기만 했지 보진 않았어요. 할아버님, 먼

저 보세요.》

《음, 보지 았구두 멋들어지다는군?》

모두 웃어댔다. 로인이 사진을 내들고 눈을 쏘아보며 들여다보았다.

《〈더퍼리아지미〉가 보긴 정바루 봤군. 정말 멋들어지다. 옷, 모자, 장화랑 번쩍거리는게 가족이겠지?》

로인이 사진을 쥔 손을 내리며 저으기 꺼진 목소리로 덧붙였다.

《왜정팬 지지리두 못 먹구 못 입구 어린 나이에 발고랑 타며 고생하던 상진이란 말이지?... 참 꿈만 같다.》

《할아버지, 꿈은 무슨 꿈이나요? 왜놈세상이 망하고 인민이 잘사는 우리 세상이 왔으니 덕동골 샘터에서 룡이 났는데...》

《더퍼리아지미》가 참견들자 로인이 벌거우리하게 달아오른 눈을 습벽이며 《옹이, 옹구 말구.》하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리고나서 사진을 옆으로 돌리였다.

모두 사진을 보고 기뻐했다. 밤이 깊어서야 일어들나서 줄레줄레 마당을 나섰다.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순옥이가 다가서며 속삭이듯 나직이 말했다.

《〈샘물집〉 어머니! 편지하고 사진 좀 주세요. 보고 가져오겠어요.》

《어서 그래라. 상진이도 네 소식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니?》

순옥이는 누가 불세라 편지와 사진을 제껴 받아쥐고 은은한 달빛을 가슴에 안고 총총히 집으로 갔다.

3

상진이와 순옥은 가난한 집 자식들이였다. 하지만 순옥이네는 아버지가 있어 그럭저럭 살림을 유지하게 되여 외동딸인 순옥이를 학교에 넣어 공부를 시켰다.

상진은 해방후 전국적으로 문맹퇴치운동이 활발히 벌어질 때 리에 나온 우리 글 학교에서 글을 배우고 이어 성인학교에서 공부했다. 선생은 고급중학교에 다니는 순옥이였다. 그는 방학때면 마을 사람들을 가르쳤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학교에 다니지 못한 남정들과 녀인들이 리선전실의 명석우에 앉아 학습장과 연필을 쥐고 선생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순옥이가 출석부와 교재를 겹쳐들고 방에 들어서는데 송진내 풍기는 교탁이 그의 어깨와 키를 건준다.

그가 사람들을 둘러 살피자 술렁대던 방안이 물을 뿌린듯 조용해진다. 어리여도 선생은 선생이었던것이다. 순옥이가 출석을 굶고나서 말했다.

《배운것을 물어보겠어요.》

학습장을 펼치고 흘끔흘끔 훑쳐들 보았다.

《학습장을 덮으세요.》

학습장들을 덮었다.

《누가 우리 나라의 위치와 면적을 말해보세요.》

대답이 없었다. 순옥이 좌중을 둘러보고나서 《보배아주머니, 대답해보세요.》 하고 질었다.

《애개개... 가슴이 놀라 뛰누나. 어째 날 꼭?...》
《더퍼리아지미》가 고까운듯 윈영치로 비켜앉았다. 그의 곁에서 석심한 목소리가 부채질했다.

《선생이 묻는데 맞든틀리든 일어나서 답변하구레.》

《더퍼리아지미》가 쭈뼛이 일어나 입을 열었다.

《우리 나라 동쪽에선 해가 솟구 서쪽에선 해가 지구 남쪽에선 음...》

어처구니없는 대답에 폭소가 일었다. 순옥이가 입을 감싸쥐고 웃고나서 물었다.

《엇저녁에 배우지 않았나요?》

《배우긴 했는데 종일 밭고랑 타고 김매는 사이 홀짝 날아난걸 낸들 어찌라우?》

《그게 뭐 참새라구 홀짝 날아들었다 홀짝 날아나겠소?》

그 석심한 목소리가 앵돌아진 심사를 꼬집어주자 또 한바탕 폭소가 터졌다.

순옥이가 웃음을 거두고 《제 나라 위치와 면적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학습장을 펼쳐보세요.》 하고 틀었던 탕개를 풀었다. 모두 학습장을 펼치고 들여다보며 중얼중얼했다.

기본학습에 들어가면 온 방안이 쭈서놓은 벌통지처럼 술렁대고 왕왕거리었다. 국어책을 소리내어 읽거나 산수문제를 푸느라고 끙끙거리었다.

뒤뜨락의 개구리합창을 누르며 울리는 이 청높은 화음속에서 지식알갱이들이 튀어나와 마을사람들의 굳어진 머리속으로 스며들어 들어갔다.

상진은 성인학교에서 배우고보니 비로소 선진실 담벽에 써붙인 지식은 광명이요, 무식은 암흑이라는 표어의 참뜻을 알것 같았다. 그 빛밝은 광명세계로 나래쳐들어가고싶었다.

어느날 그는 순옥이한테 찾아가었다. 순옥은 반갑게 맞았다.

《다 본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수학, 문학, 력사책이 없나?》

《공부할려고요?》

《그럼... 더 하고싶구만.》

《주겠어요. 오빠 능히 할수 있을거예요.》

순옥은 방에 들어가 책들을 들고 나왔다.

상진이 책을 받아들고 고마와 어쩔바를 몰라했다. 지식을 쌓으려고 모태기는 청년... 순옥은 그가 전에없이 돋보였다.

그날부터 상진은 낮에 밭일을 하고 밤에는 삼태성이 기울도록 읽고 쓰고 풀고 했다. 그러다가 막히는것이 있으면 순옥이한테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순옥의 부모들, 더우기 어머니는 상진을 반갑게 맞았다. 그는 딸이 상진이를 은근히 어렵게 대한다는것을 감촉했다. 나이차가는 딸자식을 둔 어머니들은 항용 딸의 행동거지에 남다른 관심이 가

고 근심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순옥의 어머니는 그들의 교제가 걱정되지 않았다. 그들이 밤늦게 수학문제를 풀 때면 삶은 꽃강냉이나 녹두지짐을 지저 사발에 담아들고와 그들앞에 놓아주곤 했다.

순옥은 수학의 리치를 파고드는 상진의 빠른 인식력과 응용력에 감탄했다.

《오빠 참 대단해. 우리 학교에서 제일 우수한 학생보다 나아요. 그는 선생한테배워서 그렇다치구 오빠 혼자힘으로 하니...》

상진이 머리를 들고 넌지시 마주보았다.

《나한테도 선생이 있으니 그렇지 혼자힘으로야 되겠나?...》

순옥은 저우기 놀라고 아연해져서 낮이 붉어졌다. 난생처음 시샘을 느끼는듯 했다. 그는 나직이 물었다.

《그 선생이 누구나요?》

《누구긴 누구겠나? 나를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순옥이지.》

예상치 않은 대답이라 순옥은 뛰는 가슴을 달래는듯 호 하고 가는 숨을 내쉬었다.

《오빠두 참, 그런 과분한 칭찬 말아요.》

《과분한건 사실인데...》

둘은 마주 웃으며 강냉이이삭을 끊어 한토막씩 쥐고 먹으며 다음수학문제를 풀었다.

순옥이는 고급중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도에 새로 선 교원양성소에 가게 되었다. 그가 집을 떠나는 날 상진이 그의 옷가지와 사품, 필기도구들이 든 목직한 배낭을 메고 수십리 떨어진 역에까지 배래주었다.

세월이 흘렀다. 어느날 상진이 밭일을 하고 땀나땀 한짐 짊어지고 집마당에 들어서는데 어머니가 밝은 얼굴로 마주나와 지게를 잡아주며 귀뽀했다.

《순옥이가 왔다.》

《예?!... 어데 있어요?》

《방에 있다. 어서 들어가보아라.》

상진은 피춤에 찻던 배수건을 뽑아 목덜미를 훔치며 토방으로 다가섰다. 문을 열어놓고 방안에 앉아있던 순옥이가 일어나 마주보며 밖으로 나왔다.

《상진오빠! 그새 편안했어요?》

《응, 앓진 않았어.》

상진은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이 처녀가 전에 역에까지 배래준 그 순옥이란 말인가? 수수한 검정무명학생복에 목화실을 뽑아 손으로 뜬 목 짧은 양말, 색날은 운동화를 신고 얼굴이 감실감실하던 그란 말인가?...

상진은 전과 판관 다른 모습앞에서 주춤거리었다. 치마저고리차림에 균형잡힌 몸매, 희고 담담한 얼굴, 선한 눈빛... 그것들은 세련되고 우아한 조화를 이루었다.

상진은 저도 모르게 제 옷주제를 흘끔 여겨보았다.

순옥이가 그의 서먹해진 기분을 가셔주려는듯 《오빠, 선선한데 여기 앉아요.》 하며 흠뻑물없이 토방돌우에 앉았다. 상진이 그의 곁에 앉으며 《인젠 졸업했나?》 하고 물었다.

《졸업하고 파견장을 받았어요.》

《어델?》

《음중학교 수학교원으로요.》

《참 잘됐다. 까막눈만 살던 우리 마을에 중학교 선생이 났으니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구만.》

《나도 꿈만 같아요. 그런데 오빠 어떻게 할 작정이냐요?》

《나 말이야? 생각이 깊어져. 나라가 해방되어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려고 모두 뛰는데 허송세월하는것 같아 심사가 좋지 않아.》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글쎄 잘 떠오르지 않는구만.》

《남포에 학원이 생겼대요. 로동자, 농민출신을 받는데 졸업하면 군대복무한대요. 학교기간 먹고 입고 공부에 필요한건 다 국가에서 대주고... 거기 가면 어때요?》

뜻밖의 새 소식에 상진의 눈이 둥그래졌다.

《그런 좋은 학원이 나왔다면... 마음 끌리는데...》

《면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달라겠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 그까짓 내 절로 직접 알아볼건 알아보고 추천해달라고 제기하겠어.》

《그래봐요. 오빠가 거기 붙으면 좋겠는데...》

《알겠어. 있는 힘껏 해볼판이지.》

날이 어슬해졌다. 순옥이가 더 하고싶은 말이 있는듯 머뭇거리더니 《벌써 저물었네》 하며 일어났다. 부엌에서 저녁을 짓던 상진의 어머니가 나와 《애 순옥아! 밥 짓는데 먹구 가렴.》 하고 말리었다.

《고마와요. 집에서 기다릴것 같아서...》

순옥은 인사하고 마당을 나섰다. 상진이 따라나서 집에까지 바래주고 돌아왔다.

상진은 몸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울렁거리었다. 어디선가 멀리 언덕너머에서 희망의 등불이 불타며 손짓하는것만 같았다. 순옥은 얼마나 좋은 처녀인가! 그는 술깃거리는 상념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상진은 강냉이와 조가울을 서둘러 하여 집에 끌어들이고 겨울나이 쫓나무를 한동 하여 뒤울안에 쌓았다. 그리고나서 남포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그가 어머니와 동생의 배운을 받으며 동구길에 오르는데 동네어른들과 아이들이 따라나왔다.

순옥의 어머니가 울켜줘여서 꼬깃해진 종이돈을 상진에게 쥐여주려고 했다.

《얼마 안된다. 용돈으로 보태쓰거라.》

《이러지 마세요. 돈이 귀한데 두었다 요긴한데 쓰세요.》

《원 걱정두...》

순옥의 어머니가 돈을 상진의 옆주머니에 넣어주는데 《더퍼리아지미》가 할딱거리며 달려왔다.

그는 목직해보이는 베보자기를 상진의 손에 들려주었다.

《아재, 학원 붙으러 간다가에 밤새껏 달인 찰수 수엿이야. 출출할 때 한귀씩 깨먹으면 속이 든든할거야.》

상진이 씩웃었다.

《아지미! 고마워요, 하긴 성인학교 동창생인데 뭐...》

《그렇잖음, 꼭 붙어야 해요.》

《알겠어요.》

그들이 말을 주고받으며 걷는데 뒤에서 《게 좀 서게!》 하는 숨가쁜 목소리가 들리었다. 돌아다보니 연풍집 할아버지가 턱수염을 날리며 헐떡거리며 따라오고있었다. 모두 멈추어섰다. 로인이 가까이 다가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상진이, 길 떠난다가에 온밤 새워 삼았네. 물을 추기며 신고가면 남포까진 문제 없을걸세.》

그는 상진의 허리춤에 역삼으로 삼은 신 한켠레를 매달아주며 당부했다.

《꼭 붙어서 나라 지키는 훌륭한 군대가 돼오게.》

《할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상진은 로인의 두손을 꼭 잡고 흔들어주었다. 그런 다음 둘러선 사람들에게 허리굽혀 인사하고 돌아서서 자국을 떼었다. 고개마루에 올라 뒤돌아보니 마을사람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몰려서있다. 상진이 그들을 향해 손을 저었다. 저쪽에서 손을 마주 짓는 모습이 아지랑이속에서처럼 아련꽃이 안겨왔다.

4

상진은 학원항공과에 입학되었다는 발표를 받은 순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기를 보았다. 그것은 누구나 쉽게 지닐수 없는 높은 궁지와 영예이기도 했다. 하지만 비행사가 갖추어야 할 육체적준비를 하기가 조련치 않았다.강도높은 훈련은 매 동작수행에서 민첩성과 정확성, 대담성과 유연성의 유기적결합을 요구했다. 상진은 이 요구를 관찰하기가 힘에 부치었으나 어떻게 하나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리라 마음다지었다.

초생달이 희끄무레한 빛을 뿌리는 어느날 밤이었다. 직일관이 학원구내를 도는데 락하훈련장에서 누군가 락하동작을 익히고있었다. 직일관이 《누구요?》 하자 상진이 흠칫하며 돌아섰다.

《상진동무구만, 왜 취침시간에 자지 않고 나와운동을 하오?》 《직일관동지! 량해하십시오. 제정된 시간만으로는 되지 않아 그렇니다.》

직일관은 잠시 입을 다물고 마주보았다. 상진이 계속했다.

《저는 농민출신입니다. 저의 몸에 배인 농민적완만성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비행훈련과정을 성과적으로 통과할수 없습니다.》

《웁은 말이요. 하지만 훈련시간에 그 정신을 가

다듬고 매 동작을 익히시오. 동무는 군사규률을 지켜야 하오. 모든 군인들에게 있어서 규률은 생명이지만 특히 비행사에게는 더욱 그러하오. 무조건 돌아가 취침하시오.》

《알았습니다.》

상진은 대답하고 돌아섰다. 직일관은 생각이 깊어진듯 수긋하고 걸음을 옮기었다.

상진은 락하훈련을 마치고 리착륙훈련에 들어갔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내달리다가 땅을 차고 공중으로 오를 때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뒤에서 끌어당기는듯 아찔해지는데다가 내릴 때면 대지가 물어 삼킬듯 다가들어서 몸이 오싹거리며 무섭증도 났다. 몇차례 그러고나면 재미도 났다.

공중전투훈련은 상진을 기쁘게 했다. 조종간을 틀어잡고 가상한 적기를 맞받아 고속으로 돌진하며 급강, 급상하면서 기체를 뒤채기며 선회할 때면 산도 들도 바다도 대자연의 원무에 휘말려 도는것 같았고 비행기라기보다 자기자신이 종달새처럼 자유로이 하늘을 날아에는것만 같았다.

마침내 상진은 우수한 성적으로 학원과정을 마치고 공군부대 추격기비행사로 배치받았던것이다.

상진이 편대를 따라 공중전투훈련을 하고 기지에 돌아왔다. 훈련을 총화짓고 침실에 들어가니 백포를 썩은 침대우에 편지봉투가 놓여있었다.

그가 집을 떠나 처음으로 고향에 날린 편지의 답장임이 틀림없었다. 아니나다를까 간간한 성미를 말하는듯 일매지게 토박토박 박아쓴 걸봉글씨와 아래도리에 작은 글체로 《순옥으로부터》라는 글이 안겨왔다.

상진은 울렁거리는 가슴으로 봉투를 집어들고 방에서 나와 지휘소 뒤쪽 둔덕진 곳으로 갔다. 거기에는 은행나무, 단풍나무가 우거지고 잔디가 한벌 깔려있다. 편지를 뜯고 읽었다.

《오빠의 소식에 온 마을이 경사가 나서 들끓었어요. 비행복을 입고 비행기와 나란히 선 모습이 너무 황홀하여 모두 감격했어요. 저는 비행기들이 우리 마을이나 학교상공을 지날 때면 손을 흔들곤 해요. 그가운데 오빠 비행기도 있겠지 하는생각으로 말예요.》

저는 교원생활에 익숙되었어요. 학생들이 더없이 귀엽고 그들도 저를 무척 따라요. 커서 비행사가 될 꿈을 꾸는 학생도 있답니다.

여기 걱정은 마세요. 오빠네 집을 온 동네가 돕고있답니다. 아무쪼록 몸 건강하여 군무에 충실하기를 바래요. ...》

편지속에는 사진도 한장 있었다. 순옥이가 몇명의 학생들과 함께 찍은것이였다. 상진이 흐뭇한 표정으로 들여다보는데 등뒤에서 누군가 넘겨보는 느낌을 받았다. 머리를 들고 돌아다보니같은 중대의 김령대중위가 히죽이 웃고있다.

《하, 이거 고양이 쥐노리듯 한다. 령대답지 않게...》

《랑해하게. 행복한 순간이 부러워 그러네.》

《이 친구 괜히 행복한 순간이요 뭐요 하면서...》

《시치미 떼지 말게. 동무눈빛을 보면 다 아네. 사랑에 취했거든.》

상진이 긴숨을 쉬고 저으기 숙어든 목소리로 말했다.

《난 아직 사랑이란 말뜻조차 몰이해보지 못했네.》

《그걸 보면 동문 그 측면에 좀 떠. 그 나이에 아직 마음에 드는 처녀와 사귀여보지 못했나? 그런데 그 처녀 누군가?》

《앞뒤집에서 자란 동무야. 그는 한때 나에게 글도 배워주고 내가 앞길을 바로 찾도록 일깨워준 처녀지. 우린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은 일이 없지만 난 때없이 그가 그립네. 공중전투훈련을 하고 휴식할 때면 그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하네.》

그와 헤어진지도 3년세월이 흘렀네. 이런 생각도 드네. 만일 그가 다른 총각과 인연을 맺는다고 해도 나는 그의 행복만을 축복하겠네. 그가 아무리 먼곳에 있다 해도 그곳으로 날아가 그의 집상공을 저공, 저속으로 선회하며 날개를 저어주고 오곤 하겠소. 걸거나 기차를 타고 며칠씩 가는것도 아니고 잠간이면 뵈일이 아닌가?》

상진은 무춤 하던 말을 끊고 잡풀속에 숨털모자를 쓰고 키를 쏘곤 민들레 밑동을 꺾어들고 후불었다. 비행기에서 락하산병들이 뛰어내리듯 민들레꽃잎들이 뚱뚱 떠돌았다. 상진의 곁에 앉아 듣고있던 령대가 《천진한 행운아군. 그제 실현될수 있는 일인가?》하며 웃었다. 상진이 마주 웃으며 받았다.

《해보는 소릴세. 비행사 더우기 추격기비행사를 잘 모르는 작가의 펜대에서 나온 동화책에서나 읽을수 있는것이...》

《그건 그렇구, 휴가땐 그 처녀를 만나보지 못했나?》

《난 휴가기간을 학원에서 보내곤 했소.》 《그건 왜?》

《난 자신이 학습과 훈련을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자책하곤 했네. 그 공백을 휴가기간 학원에 남아서 메꾸곤 했지. 나의 고향마을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내가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소. 난 어떻게 하나 학원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추격기비행사가 된 다음에 그들앞에 나서리라 마음먹었네. ...》

령대가 생각이 깊어진듯 정색하여 상진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을 건네었다.

《동무의 그 정열, 투지가 부럽소.》

《칭찬 말게. 동무는 내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아나?》

《모르겠네, 말해주게.》

《공중전투훈련때면 동무의 전투정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 적 비행사의 전술적기도에 대하는 대담하고 기발한 타격술, 그것들은 나를 감동시키곤 했네. 난 동무를 따라 앞서려는 생각

을 하군 했소.》

《좀 과장되긴 했어도 듣기 싫지는 않구만. 우리 서로 좋은 점을 바꾸어가지면 어때?》

《바꾸는것보다 합치는게 더 좋지.》

둘은 호탕하게 웃으며 끌어안고 언덕밑으로 내려갔다. 바닥에 내려와서야 손을 놓고 헐떡거리며 마주보았다. 그때였다. 지휘부에서 집합신호소리가 연방 울리었다. 두 중위는 벌떡벌떡 일어나 옷실을 바로잡으며 지휘부청사 앞마당으로 달려갔다.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발처럼 부대의 지휘관들과 비행사들의 가슴을 울리었다. 전쟁!...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터졌던 것이다. ...

《B-29》를 비롯한 적기들이 공화국북반부의 상공에 날아들어 폭탄을 퍼붓고 기총사격을 했다. 도시와 농촌, 어촌, 탄광마을, 산과 들이 불타고 하늘과 땅, 바다, 그 어디서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아군비행기들이 편속 땅을 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상진은 하루에도 몇차례씩 출격명령을 받고 적기들을 맞받아 날았다.

그가 날으는 하늘길은 기지의 지휘소에서 명령하는 비행방향과 타격목표를 향해가는 길이며 주도기를 엄호하며 가는 길이다.

출격명령을 받고 전장으로 날으는 추격기비행사는 순간도 헛눈을 팔거나 잡생각에 빠질수 없다.

그의 마음은 오직 적기를 한대라도 더 쏘아 떨어뜨린다는 적개심으로 불탔다.

전쟁이 일어 수많은 공중전투에 참가한 상진에게 있어서 그것은 드릴수 없는 신조로 되었다.

어느날 상진이 출격명령을 받고 하늘을 날아오르는데 지휘소에서 편대장의 담찬 목소리가 레시바를 울렸다.

《서남방향 거리 백칠십, 고도 칠천 지점에 〈B-29〉 편대가 나타났다. 소멸하라!》

《알았다.》

주도기에 탄 대대장의 대답소리는 웅글고 침착했다. 여러번의 치열한 공중전투를 지휘하여 공을 세운 하늘의 용사다운 담기가 어리었다.

그는 마이크로 아군 추격기들이 군소재지 상공에 날아든 《B-29》들과 엄호기들을 소멸하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청천강상공에 날아든 《B-29》와 엄호기들을 소멸할 결심을 했다.

하늘의 요새라고 장담하는 《B-29》가 군사장비의 우세를 믿고 아군추격기들이 다가오는데도 고도, 속도변경이 없이 배심을 부리며 왕복 비행하면서 철교에 폭탄을 떨어뜨리고있다.

대대장의 목소리가 레시바를 울리었다.

《갈매기 열다섯, 스물하나 〈B-29〉에서 엄호기들을 떼내어 각개 격파하라! 갈매기 서른다섯, 나를 따르라! 〈B-29〉를 타격하겠다.》

상진은 대대장의 전술적의도를 알아채고

《B-29》 왼쪽으로 날아지나며 엄호기에 기관총련발사격을 했다. 그러자 주도기에 붙어돌던 엄호기가 상진의 꼬리를 물려고 따라나왔다. 령대도 오른쪽에서 같은 전술로 엄호기를 주도기에서 떼내었다. 《B-29》사격수들은 꼬리를 물거니 앞서거니 급강, 급상하며 기체를 뒤채기는 그쪽에 사격을 할수 없었다. 자칫하면 제편 비행기가 맞을수 있었기때문이다. 엄호기들을 잃은 《B-29》비행사는 어지간히 당황하여 제마음대로 비행하며 폭격을 할수 없게되었다.

그 틈을 놓칠세라 대대장이 《B-29》를 맞받아나가며 기관포련발사격을 하고 우로 날아올랐다. 《B-29》의 기체에 병긔병긔 기관포탄알이 박히고 이어 검은 연기가 뿜어나오기 시작했다.

《B-29》는 불맞은 짐승처럼기가 죽어 고도를 높이며 남쪽으로 날다가 더는 지탱할 힘이 없는지 검은 연기를 토하며 불길에 싸여 아래로 떨어져내리었다.

상진은 적 엄호기를 꼬리에 달고 날다가 급상하여 기체를 뒤채겨내리며 측면돌입으로 타격하여 격추시켰다.

읍소재지 상공에 날아들었던 《B-29》들과 엄호기들도 아군추격기들의 불의적인 기습타격에 견디지 못하여 도주했다.

추격기들은 대대장의 철수명령에 따라 편대대로를 짓고 기세를 돈구며 기지를 향해 날았다.

그런데 상진은 뜻하지 않은 충격에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기창밖 련봉너머에서 한 마을이 불길에 휩싸인것을 보았던것이다. 그곳은 분명 고향 덕동마을이다. 폭격을 받았단 말인가? 어머니와 동생, 마을사람들은 어찌되었을가?

그곳을 한번 선회하고 뒤따르면 안될가? 안된다, 랑해하라. ...고향이 불타지 않는가? 잠깐이면 된다. 그래도 안된다. 그것은 용납할수 없는 군를 위반이고 비행사고다. 고향은 내가 그러기를 바라지 않는다. ...

상진이 추격기비행사의 랑심을 걸고 고향과 대화한것은 불과 몇초어간이다. 그의 비행기는 벌써 주도기와 나란히 북녘하늘 멀리로 날고있었다.

기지에 돌아온 비행사들은 대대장의 인솔밑에 전투정형과 정찰정형을 령대장에게 보고했다. 대대장이 그들에게 식사하고 휴식하라고 했다.

상진은 불타는 고향마을이 눈앞에 언뜻거려서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는 자기 비행기로 돌아왔다. 대대장이 그를 뒤따라와 마주섰다.

《대대장동지! 출격을 허락해주십시오.》

《명령을 집행하십시오. 식사, 휴식, 그다음... 알겠소?》

《알았습니다.》

상진은 성격이 강직하고 규률에 엄격한 대대장이 명령집행에서는 에누리가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수긔이 고개를 숙이고 비행준비실로 갔다. 대대 비행사들이 다 모여들어 웅성거리고있다. 식사하기까지는 여유시간이 있었

던것이다.

령대가 뒤편 당반에서 손풍금을 내려안았다. 그는 한곡조 타려고 음계를 끌라짚더니 다른 비행사들에게로 돌아서며 《전호속의 나의 노래》전주를 떤었다. 비행사들이 다가들어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전호속의 나의 노래 고향으로 올라가라
...

한창 흥에 겨웠는데 대대장이 복도로 지나다가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모두 노래를 멈추고 차렷했다. 대대장이 손을 가로 저으며 방에 들어와 《왜 그쳤소? 계속하오.》라고 했다.

그 말에 앞줄에 섰던 중위가 한발 나서며 《한 가지 제기할만 합니까?》하고 물었다.

《뭔지 제기하오.》

《대대장동지도 함께 부릅시다.》

《쏜소.》

대대장이 쌍국 웃으며 앞줄가운데 성큼 들어섰다. 그때 식사칸에 음식그릇을 나르던 접대원처녀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던 요리사아주머니가 합창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나서 방안을 기웃이 들여다보았다. 대대장이 그들에게 오라고 손고개를 저었다. 비행사들의 기분을 존중하는데 습관된 그들인지라 서슴없이 방에 들어와 앞줄에 끼여섰다.

령대가 반주를 시작했다. 모두 팔들을 끼고 몸을 저으며 합창했다.

...

사랑하는 부모처자 두팔로써 안기리

사랑하는 부모처자 두팔로써 안기리라

노래합창이 끝나기 바쁘게 요리사아주머니가 《애개—국 쏠겠다.》하며 동실한 몸을 흔들며 달려나갔다. 그 모양을 보고 한바탕 웃어들었다.

모두 대대장을 따라 식사칸에 들어가 식탁들을 마주하고 앉았다. 앞탁에 앉은 대대장이 령대와 상진을 불러 자기탁 빈자리에 앉히었다. 맛스럽게 들 먹는데 령대와 상진은 뜨적거리고있었다. 대대장이 자기몫으로 놓은 닭알볶음을 저가락으로 한 점씩 집어 령대와 상진의 접시에 덧놓아주며 일렀다.

《남기지 말고 말끔히 먹어야 하오.》

식사가 끝나자 대대장이 결상에서 일어나 의미심장한 눈길로 비행사들을 둘러보았다.

《동무들! 며칠전에 령대동무네 고향마을이 폭격당했소. 마을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그 속에 령대동무의 어머니와 누이동생도 있소. 오늘은 적전투폭격기들이 상진동무의 고향마을을 폭격하고 달아났소. 우리가 공중전투를 하고 기지로 돌아오는 도중 기창밖 멀리에서 한 마을이 불타는것을 본 동무들도 있을거요. 바로 상진동무의 고향마을이요.》

비행사들은 머리를 숙이였다. 비분강개로 가슴

들이 높뛰였다. 그런데... 대대장은 어떻게 잘 알가?... 그들은 몰랐다. 그의 비행지도와 머리속에 언제나 자기 대대 비행사들의 고향 도시나 마을들이 점찍혀있다는것을...

대대장이 계속했다.

《동무들! 천백배의 복수를 해야겠소. 비행기에 오르시오.》

그는 말을 마치고 성큼성큼 방을 나갔다. 비행사들이 뒤편라나와 주먹을 부르짖고 자기 비행기로 달려갔다.

허공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연방 나구채는듯 추격기들이 련속 하늘로 날아올랐다. 적전투폭격기들이 동해지구의 한 항구도시를 폭격하려고 떤을 지어 날아들고있었다. 적기들은 수적우세를 믿고 뼈것이 저공으로 날아들며 폭탄을 떨구기 시작했다. 아군추격기들은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한 편대는 적기들의 상공에서, 두개 편대는 저공으로 포위환을 형성하며 선회했다. 폭탄을 떨구고 올라오는 적기는 우에서 내리갈기고 옆으로 빠져져나오는 적기는 측면기습으로 타격했다.

적전투폭격기들은 공중전투에 말려들게 되었다.

상진은 복수심으로 온몸이 달아올랐다.

적전투폭격기를 엄호하던 추격기가 대대장이 탄 주도기의 꼬리를 물고 바짝 따르며 사격단추를 누르려는 찰나였다. 상진이 측면으로 돌입하며 기관포연발사격을 하고 상공으로 날아올랐다. 그 추격기의 동체에서 검은 연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폭격을 피해 방공호에 들어갔던 주민들이 밖에 나와 검은 연기를 날리며 바다로 나가 곤두박치는 광경을 보고 두손을 머리에 휘저었다.

상진이 적의 다른 추격기의 꼬리를 물고 다쫓았다. 그때 편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레시바를 울렸다.

《갈매기 열다섯, 네 뒤에 까마귀따른다. 주의하라!》

상진이 기수를 오른쪽으로 꺾는 순간 어깨밀이 선명하고 조종간을 잡은 손이 맥을 놓고 무릎우에 떨어졌다.

《갈매기 열다섯, 네 기체에 불이 당겼다. 빨리 탈출하라! 탈출하라!...》

런거퍼 레시바를 울리는 편대장의 다급한 웨침, 상진은 그 이상은 기억에 없다. 자기가 어떻게 탈출단추를 눌렀으며 락하산줄에 매달려 어디에 떨어졌는지?

그가 닷새만에 눈을 떴을 때 군복우에 하얀 위생복을 걸친 군의와 간호원이 침대머리에 다가와 안도의 숨을 쉬며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모습이 안겨왔다. 비로소 그는 자기가 부상을 입고 어느 야전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것을 알았다.

상처가 심했다. 적기의 기총탄이 오른쪽 가슴을 꿰뚫었던것이다.

난생처음 입원실 침대에 묶이고보니 종횡무진으로 하늘을 날던 매가 조롱속에 갇힌 작은 새

처럼 느껴졌다.

오랜 시간 팔을 내대고 점적을 달며 망울져 규칙적으로 푹푹 떨어지는 약물방울을 여겨보기관 무료하기 그지없었다. 정적이 깃든 밤이면 툭툭 귀전을 울리는 관자노리의 피줄 뛰는 소리에 마음이 조여들고 창밖에 검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노라면 휘뿌린 보석처럼 널려진 못별들이 반짝이며 애를 돋구었다.

부대동무들은 잘 싸우고있는지? 고향마을에서는 어떻게들 지내고있을가?

상진은 입원하여 한달만에야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안을 거닐수 있었다. 그는 담당간호원에게 종이와 만년필을 부탁하여 고향 어머니에게 편지를 날리었다.

어디라없이 매일매시각 적기들이 날아들어 폭격을 하는 불바다속을 뚫고 편지가 고향마을에 가닿거나 하겠는지?...

그는 답장이 오기를 초조히 기다리었다. 어느날 담당간호원이 병실에 들어와 생글대며 손을 불쑥 내밀었다. 편지봉투가 쥐여져있었다. 상진이 《고맙소.》하며 받아쥐었다. 발신인의 이름에 눈길이 닿는 순간 상진은 가슴이 확 달아올랐다.

아,—순옥이! 어떤 소식이? ... 그는 이윽히 편지봉투앞뒤쪽을 살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나서 봉투를 뜯고 속종이를 끄집어 들었다.

《오빠! 샘물집어머니와 함께 답장을 씁니다.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뻐 어쩔줄 몰랐어요. 수술이 잘되고 건강이 회복된다니 정말 다행이고 기쁩니다. 오빠네 어머니와 동생, 저의 부모들도 무고합니다.》

그런데 오빠! 전쟁은 악몽과도 같은 참상을 빚어내고있군요. 읍거리와 우리 마을이 적기의 폭격을 받아 건물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이 낮에는 몸에 위장망을 두르고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밤에는 폭격으로 끊어진 철교와 도로를 복구하러 삼, 곡괭이, 도끼를 들고 나가곤 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향사람들은 침략자들과 싸워 이기기라는 신심에 넘쳐있습니다.》

상진은 다음장을 읽고 본격에 몸을 떨었다.

...어느날 마을사람들이 등성이밭에서 밀가을을 하고있었다. 갑자기 등뒤에서 비행기소리가 나서 돌아다보니 적전투폭격기들이 마을상공으로 날아들고있었다.

앞에서 날던 한대가 불쑥 내리꽂히며 폭탄을 던지었다. 그러자 뒤따르던 전투폭격기들이 차례로 내리꽂히며 폭탄을 떨어뜨렸다. 집들이며 물방아간이며 리민주선전실이 뭉청뭉청 동강나며 불길에 휩싸였다.

밀베던 사람들과 함께 잡관목밑에 은폐했던 《더퍼리아지미》가 그 광경을 쏘아보다가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섰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아지미! 발각되었어, 은폐하라구—》

《더퍼리아지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전투폭격기들이 내리꽂히며 폭탄을 던지고 날아오를 때면 동그랗게 드러나보이는 비행사의 머리가 손에 잡힐듯 했다.

《더퍼리아지미》가 머리우에 낫을 휘두르며 고함질렀다.

《이 양코배기똥파리놈들아! 우리가 네놈들한테 무슨 빚진게 있다구 생폭격질이나? 네놈들의 대가릴 따내리구야말겠다.》

사람들이 런거퍼 은폐하라고 소리쳤으나 그는 성이 독같이 나서 낫을 휘둘렀다. 그때 폭격기 한대가 그에게 기관총사격을 하며 머리우로 날아갔다. 《더퍼리아지미》의 발가까이에 탄알이 박히며 폴삭폴삭 먼지를 일구었다.

《네놈이 날 맞춰? 콕 꿰질 놈.》

《더퍼리아지미》는 날아가는 비행기쪽으로 얼굴을 돌려대며 욕을 퍼붓고 《똥—》침을 내뿔었다. 그때 다른 한대가 그에게 기관총사격을 하며 스칠듯 머리우로 날아갔다.

《더퍼리아지미》는 폴삭 쓰러졌다. 사람들이 달려나와 부둥켜안았다. 그의 어깨에서 피가 랑자히 흐르고있었다. 그는 낫을 거머쥔채 폭 꺼진눈으로 사람들을 마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마을사람들은 그를 달구지에 싣고 린근군부대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편지를 읽은 상진은 통분한 마음을 견잡을수 없었다. 것처럼 대답하고 인정많은 그 아주머니는 마을의 만머느리였고 동네아이들의 다심한 엄마였다. 그가 어쩌다 나들이를 가고 없으면 마을이 허전하고 웃을 일이 없었다.

자기 집에서 색다른 음식이라도 하면 사발에 담아 이웃들에 돌리었고 봄씨불임이나 가을걷이때 일손이 딸리는 이웃들에게는 샐을 바라지 않고 도와나서던 그가 아니었던가. ... 아, 이려고서 내어찌 추격기비행사란 말인가?...

며칠후 상진은 원장에게 강경히 제기하여 비행복을 찾아입고 병원을 나섰다. 전선에 전투물자를 수송하고 돌아가는 어느 군부대의 자동차적재함에 올랐다.

밤이었다. 적의 전투폭격기들이 한 해안도시의 상공에 조명탄을 걸어가며 폭격을 하고있었다. 폭탄에 공공건물들이 무너져내리고 공중에서 터진 나뭇들이 불비처럼 쏟아져내리며 주택들과 가로수, 전주대들을 불사르고있다.

도시주변의 야산들에서 아군탐조등들이 적기들을 포착하느라고 강렬한 빛으로 허공을 꿰지르며 하늘을 헤집고 고사포들과 비행기사냥군조 기관총들이 연방 불을 뿜고있다.

상진이 탄 자동차는 성난 표범처럼 불타는 도시 복판 도로로 내달았다.

상진은 도중에서 다른 군대자동차를 갈아타고 다음날 낮에 부대에 도착했다. 중대에 들리니 중대 비행사들이 있었다. 출격했다가 방금 돌아와 휴식하는 참이었다.

령대가 두팔을 짹 벌리고 다가들어 덩석 끌어 안고 돌았다. 한 중위가 보이지 않았다. 그대신 얼굴도 몸매도 햇송아지같이 만만해보이는 어린 중위가 있었다. 상진은 그와 인사를 나누었다. 그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함께 있던 중위가 보이지 않는것에 짐작이 갔던것이다.

대대장은 상진의 도착을 더없이 기뻐했다. 그는 상진의 팔을 힘껏 잡아흔들었다.

공중전투때마다 기발한 유인, 기습으로 적기들을 수세에 몰아넣고 대담하고 정확한 타격으로 수많은 적기들을 격추시킨 대대의 기동비행사, 런던대적으로도 첫 손가락에 꼽히는 용맹한 대가 돌아오지 않았는가!...

《다 나왔소? 한번 가보지 못해 안되었소.》

《그런 말 마십시오. 충분히 리해가 됩니다. 저는 건강이 더 좋아졌습니다.》

《좋소. 그럼 저녁때까지 폭 쉬고 출격해보지요.》

《알았습니다.》

저녁 9시 30분, 상진은 비행기에 올랐다. 불타는 도시와 고향마을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오르고 그 불길속에 복수를 웨치며 번쩍이는 낫을 머리위에 쳐들고있는 《더퍼리아지미》의 모습이 또렷이 밝혀왔다.

상진의 몸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쿵쿵 가슴벽을 울리었다. 그는 조종간을 으스러지게 부여잡고 출격명령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어이 된 일인가? 푸른 신호탄 두발이 어둠을 헤가르며 날아올랐다. 상진은 흠칫했다. 그것은 출격이 아니라 출격준비해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정전이 되었던것이다.

상진은 분연히 남쪽하늘에 눈길을 던지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언제건 맞다들 때가 있겠지. ...

세계《최강》을 뽐내던 미제가 정전담판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은 온 조국강토가 전승열기로 끓어번지게 했다. 전승광장 열병대오의 보무당당한 발구름소리, 수도의 밤하늘에 터져오르는 축포!... 군대와 인민모두가 기뻐했다.

전선에서 싸우다가 교방하여 후방으로 들어오는 군대들이 기차의 무개화차들과 자동차, 적재함에 그득그득 타고 시가와 마을을 지날 때면 총잡은 손을 머리위에 휘저었다. 주민들이 거리에 펼쳐나와 열광적으로 손을 흔들며 마중했다.

봉대감은 부상병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어리었다.

아들이 전선에서 싸우다 전사했다는 소식에 접하여 슬픔에 잠기었던 어머니들도 웃고름으로 눈굽을 찍으며 울고 웃고 했다.

5

폭음이 멎고 포연이 가셔진 1953년 8월 하순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상진은 저으기 부풀어오르는 마음으로 배낭을 메고 부대정문을 나섰다. 휴가명령을 받았던것이 다.

기차로 4백여리, 자동차를 타기도 하고 걸기도 하며 덕동마을에 들어섰다. 가슴에 품고 그리도 그리던 고향마을이건만 그전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저기에 비물을 담은 폭탄구멍이들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마주본다. 불타버린 집터에는 거뿔게 꼬슬린 주춧돌만 남고 수차가 부서져 날아난 물방아간에는 타다남은 서까래들이 열기설기 드리워있다. 밤글소리 랑랑하던 민주선전실은?...

집들의 토담가에 앵두가 빨갛게 무르익고 불깃 불깃한 추리알들이 나무가지들 휘여잡고 늘어지곤 했다. 두엄내 감도는 마당에 들어서면 강아지가 꼬리저으며 다가오고 엉치퍼진 토종 엄지닭이 병아리무리를 거느리고 모이를 쪼았다. 처마밑에 매단 벼짚둥우리에서 암닭이 꼬꼬댁거릴 때 손을 디밀어 파스한 알을 잡아쥐면 기분이 좋았다.

이웃들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었던가? 스스럼없이 토방돌을 딛고 오르면 제집 식솔처럼 반갑게 맞아주곤 했다.

고향마을이 안고있던 이 랑만적이고 목가적인 풍경과 정서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아니, 다는 아니다. 마당가의 웅달샘만은 전과 다름없이 푸른 하늘을 비껴안고 넘치고있다.

상진이니네가 대를 물리며 마셔온 샘, 그래서 《샘물집》이다.

상진이 감회가 새로와 허리를 굽히고 샘물속을 여겨보았다.

숫구치는 샘, 소생하는 삶은 잔악한 폭격만행으로도 몽개버릴수 없다. 저기 순옥이네 집터에 집재목으로 말쑥 나무무지가 보이지 않는가? 추녀 높고 간살 큰 새 집을 지으려고 하겠지. ...

불타버린 덕동마을에 번듯한 새 집들이 일떠서지 않으리. ...

상진은 생각을 거두고 마을사람들이 립시로 집을 짓고 옮겨사는 뒤산자드락의 둔덕길로 걸음을 옮기었다.

첫집 토방에서 배추를 다듬던 녀인이 다가오는 군관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상진이 《어머니! 제가 왔어요.》하며 달려갔다. 그제야 녀인이 벌떡 일어나 두손을 내저으며 토방을 내려섰다. 상진이 두팔로 부둥켜안았다.

《어머니! 몹시 기다렸지요?》

녀인은 아들의 가슴을 끌어만지고 울먹거리며 말했다.

《기다렸다. 그런데 네 소식은 왜 그다지 뜨냐? 좀 자주 알리면 못쓴다더냐?》

《그렇게 됐어요. 학원편 훈련이 바빴고 또 전쟁이 아니었나요.》

《그래두 난 밤낮 네 생각뿐이었다.》

《저도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이젠 왔으니 됐다, 어서 들어가자.》

상진은 어머니의 팔을 꼭 끼고 방으로 들어가 배낭을 벗어놓으며 물었다.

《어머니! 상철이 소식을 알고있나요?》

어머니는 조심스레 묻는 상진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 앤 잘 싸운다고 부대장한테서도 편지가 왔다.》

상진은 가슴이 후터워났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 형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그였다.

《그렇거예요. 어릴적 얼마나 이악했대구요.》

《그래, 그 애랑 잘 싸워서 우리가 이기지 않았나...》

어머니는 움쭉 일어서며 《내 정신 봐라. 배고프겠구나.》 하며 부엌으로 내려갔다.

상진이 왔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알려졌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상진이네 집 방안에 한가득 모여들었다. 배나무집 둘째도 부엌벽에 쌓지팡이를 기대놓고 방에 올라와 앉았다.

그의 견장없는 군복상의의 왼쪽 가슴에 여러개의 급훈은 훈장의 락장들이 달려있었다. 상진이 그에게 다가가 두손을 맞잡아 흔들었다. 그들은 전선에서 우연히 고향친구를 만났을 때의 심정으로 마주 웃었다.

연풍집 할아버지가 뒤늦어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부엌문을 열고 들어섰다. 로인은 숨이 차서 헐헐하며 채수염을 흔들었다.

《상진이가 왔는지? 어디 좀 보자.》

상진이 성큼 일어나 로인의 두팔을 잡아 조심히 이끌어 방 가운데 모시였다. 상진이 앉은 허리를 굽히며 《할아버님이랑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습니다.》하고 인사말을 건넰었다. 로인이 후 하고 꼬리긴 한숨을 내뿜고나서 받았다.

《피를 흘리며 목숨을 내대고 적과 싸운 군대에 대면 고생이랄게 없네.》

그는 상진의 얼굴이며 가슴이며 아래도리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가슴에 눈길을 박아세우며 《거— 무슨 메달인가? 번쩍거리는게 금메달이 아닌가?》하고 물었다. 상진이 빙긋이 웃으며 《예.》하고 대답했다. 로인이 재차 물었다.

《그럼영웅이게?》

《그렇게 보아도 되겠습니다.》

로인이 환성을 터치였다.

《우리 덕동마을에 영웅이 났다. 큰 경사로다.》

로인은 감격에 턱을 떨며 말을 이었다.

《모두 잘 싸워 공을 세웠겠지만 임잔 어떻게 영웅이 되었나?》

《전 학원으로 떠날 때 동구밖 멀리까지 내려주던 마을사람들의 모습을 잊을수 없었습니다. 그때 할아버님이 나라 지키는 훌륭한 군대가 되어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로인이 오리 설린 흰머리를 끄덕이였다.

《생각나네,생각나. 그 말을 명심해들었던 말인가? 고마우이, 고마와.》

《저의 가슴속엔 언제나 고향이 자리잡고있습

니다. 지난날 일제와 지주에게 착취받고 억압당하며 헐벗고 굶주리던 우리가 참된 삶을 받아안고 행복을 누리는 곳이바로 고향이 아니나요? 이런 고향이 모인것이 우리 조국입니다.

제가 조국을 지켜 한목숨 바칠 각오로 미제공중비적들과 싸운것은 조국과 혈맥을 이은 고향을 소중히 여겼기때문입니다.》

모두 감격에 겨워 상진을 쳐다보는데 앞에 앉았던 조무래기들이 호기심이 동하여 무릎걸음으로 상진에게 다가가 불빛에 번쩍거리는 메달을 올려다보았다.

삭주집 할머니가 안은 손주애기가 그 모양에 끌리어 고사리손을 내들었다. 상진이 애기를 안아 무릎에 앉히는데 메달을 잡아쥐고 입을 벌리며 용을 썼다. 할머니가 《너석 그게 뭘줄 알구...》하며 말리였다. 상진이 《뭘랍니까? 이걸 보고 커서 영웅이 되면 좋지요.》하며 두손으로 애기를 머리위에 버쩍 쳐들고 흔들었다. 애기가 깨득깨득하자 《애개, 고개 알아들은게지.》하며 방안이 떠나가게 웃어들었다.

저녁이 이숙도록 상진이와 회포를 나눈 마을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져갔다. 떠들썩하던 방안에 고요가 깃들었다. 상진은 마을에 들어서던 첫순간부터 묻고싶었던 순옥이 소식을 마주앉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순옥인... 어떻게 지내고있나요? 방학기간인데...》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노전귀를 만지작거렸다. 이윽해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집에 와있다.》

《그럼 내가 온줄 알겠는데 왜 오지 않았을가요?》

《너를 보기가 괴로와 그러겠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앤... 불구의 몸이 되었단다.》

상진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더 물을수 없어 입을 다물고 머리를 숙이였다.

《지난해 가을 폭격때 학교가 불탔단다. 학생들을 방공호에 대피시켰었는데 한 학생이 교실에서 나오지 못했더구나. 순옥이가 불붙는 교실로 달려들어가 학생을 업고 나오는데 썩썩기가 내리꽃히며 기관총을 쏘아대는 통에...순옥이가 학생을 제몸으로 덮어서 그 애는 무사했는데... 순옥인심한 부상을 입었다단다. 군대병원에서 다 죽은 순옥일 살려냈는데 파편에 찔린 한쪽 손만은 어쩔수 없었단다.》

어머니의 말을 듣는 상진의 가슴은 찢기는듯 아왔다.

《어머니! 제 가보고 오겠어요.》

《어서 그래라. 그 애 마음인들 오죽하겠니?》

상진은 밖으로 나왔다. 은은한 달빛이 앞산봉우리며 골바닥에 둘러선 백양나무, 오리나무, 은행나무의 우듬지를 어루만지며 그의 젖은 마음을 재촉했다.

순옥이네 집앞에 이른 상진이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어머니 계십니까?》하고 찾았다.

순옥의 어머니가 찾는 소리에 부엌문을 열고 나오며 《에그, 상진이가 왔구나.》하며 반기였다. 《아버님은 안 계신가요?》 《군에 가고 안 계신다. 전선원호에서 모병이었다구 훈장을 수여한다 누나.》

《참 기쁜 일이구만요. 그런데 순옥인?...》

《방에 있다. 들어가봐라.》

《밖이 선선해서...》

순옥의 어머니가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자 순옥이 가나왔다.

《오빠, 오셨군요.》

상진은 할말이 인츰 떠오르지 않았다. 한동안 순옥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의 팔을 슬쩍 건드리고 돌아서서 걸음을 떼었다. 순옥이가 뒤따라갔다. 그들은 집에서 좀 떨어진 언덕진 곳의 잔디밭 위에 나란히 앉았다. 이윽히 침묵이 흘렀다. 상진이 먼저 말을 건네었다.

《오늘 저녁에야 순옥이가 부상을 입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소.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생각이 안나오. 그런데 내가 온줄 알면서 왜 나타나지 않았소?》

《어머니가 오빠네 집에 갔다 와서 다 말해줬어요. 전 너무 기뻐서 울었답니다.》

《그래도 왔어야지. 순옥이 없이 내 마음이 편했겠소?》

《미안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건 무슨 당치 않은 소리요? 팔을 상했다고? 그런 생각이라면 난 노엽소.》

상진은 달빛에 번뜩이는 눈으로 순옥을 마주보았다.

《집 떠나 6년 세월 학습과 훈련, 전투의 긴장한

나날속에서도 순옥이를 그리는 내 마음은 변함이 없었소. 순옥인 언제나 내곁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 숨결은 내 몸에 닿는듯 했소.》

《저도 같아요. 마음속에는 언제나 오빠가 있었어요.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위훈을 떨치고 돌아오기를 고대했지요. 지금껏 오빠는 큰 공을 세웠어요. 조국앞에 뚜렷해요.》

오빠는 마땅히 예지있고 이쁘고 몸이성한 그녀의 사랑을 받을만 해요. 전 오빠가 앞으로 더 잘되고 행복하면 다른 소원이 없겠어요.》

순옥은 왼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불쑥 일어나 집쪽으로 허둥허둥 달리었다. 상진이 달려가 그의 어깨를 으스러지게 부여잡아 돌려세우고 가슴에 꼭 껴안았다. 순옥이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맥을 놓으며 상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흐느낌이 뜨겁게 맥박치며 상진의 가슴속으로 흘러들었다. 상진은 달래지 않았다.

그처럼 귀중한 사랑을 양보하려고 결심하는 그의 심정을 어찌 모른다 하랴. ... 순옥이 불현듯 오른팔을 상진의 가슴에 올렸다가 제껴 내리었다. 아—손없는 팔...

상진이 그의 손목을 잡아 자기 가슴에 올려다 꼭 대주었다.

《자, 만지고있소. 내 손이자 순옥의 손이지. 이 메달이 어찌 나 하나만의것이겠소. 이 메달에는 순옥의 뜨거운 념원과 마을사람들의 절절한 기대가 어리어있소. 그것이 없다면 조국은 나의 가슴에 밝은 빛을 주지 않을거요.》

순옥은 나의 안해요. 이 세상 그 어떤 힘도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수 없소. ...》

순옥은 상진이와 함께 살아오면서 그날밤에 있는 일을 못내 잊지 못해하였다.

가사

사랑의 프락

황 련

자강땅 먼곳에 사는 딸네 집
친정집 어머니 오기도 전에
해빛안고 사랑안고 찾아오셨네

아 우리 장군님
그 품에 안겨 기쁨에 울던 행복의 프락
아버지와 함께 웃는 사랑의 프락

그이가 짚어보신 온돌방에도
그이가 보아주신 사진첩에도
따스한 봄빛이 흘러넘치네

아 우리 장군님
그 품에 안겨 사진을 찍던 행복의 프락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랑의 프락

이 나라 너인들 어데 살아도
아버이 발자국소리 들으며
축복의 큰 프락에 모두 산다네
아 우리 장군님 그 품에 안겨
인민이 사는 행복의 프락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랑의 프락

걱정과 웃음

조은향

지금 나의 책상우에는 최우등졸업증이 놓여있다.

대학졸업식장의 열렬한 박수갈채속에 이 증서를 받아안았을 때의 기쁨.

그 흥분속에 집으로 돌아오며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은 어머니의 모습이였다.

자그마한 성과에 자만이생길세라 언제 봐야 칭찬보다 걸음걸음 걱정이 앞서시던 나의 어머니.

아마도 오늘은 어머니의 얼굴에 만족의 웃음이 어리리라.

즐거움으로 부풀어오르던 마음은 제일먼저 내가 열쇠를 열어야 하는 빈집문앞에서 식어버렸다. 언제 오실가?

늦어지는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늘 습관되어왔으나 어쩐지 오늘만은 모든 일을 미루시고 불쑥 방으로 들어서실것 같아 초침소리와 함께 나의 마음도 초조해졌다.

《딸랑 딸랑—》 반갑게 들리는 초인종소리.

오셨구나!

기쁜 마음이 손보다 먼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애똥한 심정으로 기다려온 어머니는 안색이 몹시 어두우셨다.

서둘러 약함부터 여쭙다.

《어디 아프세요?》

《아니. 우리 학급의 수미가 오늘 그만 팔을 상해 병원에 실려갔구나.》

《...》

약봉투를 찾아든 어머니는 동통으로 괴로와하는 그 어린 학생을 금시 마주하신틈 걱정이 가득 실린 얼굴로 또다시 나갈 차비를 하셨다.

(어떻게 할가. 저 증서들을 이제라도 보여드리면...)

《은향아, 오늘 좀 늦어질것 같구나.》

한마디 말씀을 남긴채 총총히 계단을 내려가는 어머니.

걱정속에 달려가시는 어머니의 멀어져가는 모습은 나에게 지나간 날들의 추억을 떠올려주었다.

어머니의 걱정!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있는 말인가.

무릇 어머니라는 부름은 다정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안겨온다.

살뜰함과 너그러움, 다심함과 세심함...

나의 어머니는 소학교교원이다.

진도표작성, 교수안준비, 학생들의 시험지채점,

과외지도, 개별교양, 가정방문...

늘 바쁘게 지내시는 어머니.

이제는 귀밑머리가 희여오지만 제시간에 퇴근해본 일은 손꼽을 정도라 해야 할것이다.

그런 까닭에 만팔인 나는 늘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들어서곤 해야 했다.

인민대학습당 열람실에서 책속에 파묻혔다가도 저녁시간이면 아쉬움을 누른채 서둘러 책을 싸들고 집으로 종종걸음을 쳤다.

때로 나의 걸음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식료상점 예로, 공급소로 향하기도 했었다.

어딜 가나 《교원은 우선 봉사합니다》라는 친절한 안내문이 있었지만 나의 어머니는 우선봉사라는 그 혜택마저 받을 시간을 내지 못하셨다.

교수나 박사, 큰 발명가의 명예가 기다리는것도 아닌 평범한 소학교교원인 어머니의 직업에 비해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자주 키질을 하곤 했다.

집에서 부양으로 있는 옆집어머니가 부러웠다.

그런 어머니를 둔 동무들이 부러웠다.

언제인가는 먼 지방으로 답사를 갔던 대학 1학년생인 나의 동생이 나에게 전화로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었다.

동생의 마음이 이해되었다.

무거운 려행짐을 들고 역전까지 배웅나온 어머니들의 모습속에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보았으리라.

서운한 마음을 렬차에 싣고가며 아마도 소학교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앞에서 수업에 여념이 없으실 어머니의 열정넘친 모습으로 자신을 달랬으리라.

온종일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애쓰다가 늦어진 밤이면 어머니는 늘 미안한 기색으로 집에 들어서시였다.

그 미안한 얼굴표정뒤에 애써 감추려는 지친 모습을 우리는 느낄수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나 우리 자식들에게 미안할 때면 종종 통삼아 《내 이제 집에 들어오면 너희 자식들 시중까지 다 해줄게.》라고 말씀하시곤 한다.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는 《집에 들어오면》의 의미는 년로보장을 념두에 둔것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에게서는 가정주부로서의 걱정과 웃음이 사라져버린것일가.

철저한 어머니 《편》인 아버지의 적극적인 《비

호》와 다 자란 딸들의 시중으로 가정의 부담을 영 잊어버린것은 아닌지...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었다.

졸업한 어느 학생의 학부형에게서 온 전화를 받아든 어머니는 몇마디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대번에 안색이 환해지셨다.

수화기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도 어지간히 흥분되어있었다.

어머니는 기쁨을 숨기지 않으셨다.

무슨 좋은 일인가고 물으니 얼마전에 졸업시켜 평양제 1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신입생들의 첫 학과경연에서 1 등을 했다는것이다.

전국의 여러곳에서 선발된 학생들중에 단연 첫 자리를 차지한 아들을 보며 그 학생의 아버지는 소학교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에 전화를 든것이였다.

어머니는 수저를 드시면서도 피곤은 말끔히 사라지신듯 수채형이었다는 그 학생에 대해 줄곧 이야기하셨다.

웃음어린 어머니의 얼굴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주었다.

언제인가는 학급에서 몸이 제일 약한 학생의 위축감을 두고 걱정하시며 보약을 만드느라 마음 쓰시더니...

학생들 한명한명을 두고 친부모마냥 걱정이 많으시던 어머니. 그래서 우린 늘 엄만 걱정보따리를 안고산다고 말하곤 하였지.

그러던 어머니의 얼굴에 떠실려있는 저 환한 웃음!

아, 어머니의 가슴속엔 걱정뿐이었던가.

아니였다. 웃음 또한 그만큼 큰것이였다.

《어머니, 남의 자식들 일을 놓구 뭘 그렇게 마음 쓰세요.》

《은향아, 네가 이 어머니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는줄 안다. 하지만 너두 대학생인데 생각해보렴. 내가 말은 학급의 서른명 학생들이야 내가 책임져야 될게 아니니. 그 부모들이 날 믿구 맘놓구 자기 일들을 하구있는데...》

《?!...》

너무도 생활적이고 너무도 평범한 어머니의 말이었다.

허나 나는 그 말속에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큰 것이 미쳐와 가슴이 찢어졌다.

어머니에게 맡겨진 서른명!

어찌 보면 어머니는 《량심》이나 《애국》, 《혁명파업》이라는 말은 자주 입에 올리지 않았어도 《내가 말은 서른명》이라는 그 자각속에 한생을 기울여 조국앞에 자신의 책임감을 다해가고계시였다.

문득 나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바로 나의 선생님들이 내가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학급의 그 수십명 학생들을 위해 친

자식에게 기울여야 할 그 모든 정과 지혜를 다 바쳐주셨다.

생물과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있는 나를 두고 마음쓰시며 꾸중도 하시고 걱정하시던 그 모습, 또 내가 전국글짓기경연무대에서 우승했을 때에는 그리도 환하게 웃으시던 선생님!

우리 선생님의 그 걱정과 웃음속에서 나나 우리 동무들이 실력가로 뿔뿔이 교문을 나설수 있었던것이다.

하기에 어머니는 오늘도 량심과 헌신이 가르쳐주는 그 길로 걸어간것이였다.

어찌 교단을 지켜신 선생님들뿐이라.

얼마전 텔레비죤화면에서 소개한 로동신문사 녀성기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던가.

《독자들이 좋아하는 글, 우리 독자들을 고무할수 있는 기사를 실었을 때처럼 즐거운 때는 없었다.》고 하는 기자의 말은 참으로 뜻깊게 안겨왔다.

나의 어머니가 제자들때문에 걱정도 하고 웃음도 지었다면 그들은 바로 독자들을 위해 고민도 하고 즐거워도한것이였다.

분명 한 가정의 어머니이고 안해인듯싶은 그 녀성기자들도 시대의 주인공을 찾아 함께 숨쉬고 일하며 취재의 길을 이어가고있으니 가정앞에 지닌 의무보다 자신들의 사회적사명감을 더 귀중히 여겼기때문이 아니라.

녀성들의 걱정과 웃음!

진정 그것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 남편에 대한 안해의 걱정을 초월한 우리 시대 녀성들의 고상한 걱정의 세계이거늘 그 걱정이 클수록 삶의 보람속에 받아안은 웃음은 또 얼마나 빛나고 값있는것이라.

나의 어머니와 같은 근로하는 녀성들의 걱정, 그 걱정속에 나의 조국은 부강할 래일로 더욱더 박차를 가해 전진할것이며 그들의 얼굴마다에 피여오르는 소박한 웃음속에 나의 조국은 더욱더 환하게 가꾸어지고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사회에 대한, 조국에 대한 것처럼 깨끗하고 뜨거운 량심의 자각이 시련담던 고난의 언덕에서 조국과 함께 울고 웃으며 승리의 평마루로 치달아오를수 있게 하였고 것처럼 진실하고 헌신적인 애국의 마음이 이땅에 밝아온 강성대국의 려명을 더 붉게 물들이고있는것이다.

하기에 지금 어딜 가나 들을수 있는 근로하는 녀성들의 험격한 성과가 인민체육인, 로력영웅의 이름으로, 박사의 이름으로, 인민기자의 이름으로 불리우고있지 않는가.

아름다운 시대는 아름다운 인간을 낳는 법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근로녀성들이 가정에서 자그마한 마음속 고충도 느낄세라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아낌없는 사랑을 돌려주신다.

얼마전에는 교육년한이 오랜 나의 어머니에게
로력훈장이 수여되었다.

...

지금 이 시각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계실까.

침상에서 잠든 학생의 걸을 지키고계실까. 아님
면 의식을 회복한 그 애의 새별눈앞에서 오늘 배
워준 과정을 되풀이하실까.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디딘 《신
대원》이다.

나도 어머니처럼 살고싶다.

이 땅 어디 가나 한모습인 《나의 어머니》들을
존경하고싶다.

소박하고 평범한 그런 녀성들의 아름다운 걱정
과 웃음속에서 젊어지는 조국의 모습에 나의 삶
도 보태고싶다.

어머니, 조국앞에 다지는 이 딸의 량심의 맹세
를 들어주세요.

나는 뜨겁게 불타는 나의 심장으로 보고있다.

수만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어머니의 그윽한 미
소를.

그리고 그 미소속에 울리는 당부를 듣고있다.

소박하나 값있는 걱정!

평범하나 빛나는 웃음!

병사와 고향

전성호

양덕 맹산계곡을 지나
렬차는 달리고
승리의 기적소리 높이
병사들 고향으로 돌아오네

저 멀리 포연이 가셔진
파아란 하늘을 바라보며
아바이병사 느슨히 웃음짓는데
애어린 전사 다가와 물네
—아바인 어느 전선에서 싸웠나요?

어디라 하라
무거운 탄약상자
등에 한번 저보지 못한채
전승을 맞이한 아바이전사
대답처럼 흘러나온 담배연기속에
어려오네 3년세월
병사들을 찾아 걸은 낮과 밤들이

어디라 하라
물기둥이 산처럼 치솟아오르는
떼목우에서 비발치는 탄우속을 헤치며
도하해간 그 물결을

낮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포소리에 귀기울이며
밤에는 신호탄불빛에
걸음을 재촉하며
전선을 찾아 걸은
그 하많은 길을

어느 병사에겐들 없었으랴
가슴속깊이 고이 간직된 고향의 편지
원쑤들의 폭격에도
끝끝내 밀보리파종을 끝냈다는
고향마을 너인들 소식이
결사전을 앞둔 고지우에서
쓰러진 병사를 일으켜세우며
마지막수류탄과 함께 있었다

심장속에
사랑하는 고향이 없이야
병사들의 가슴에 단 금별메달을
빛나는 훈장들을
어이 생각할수 있으랴
고향, 그것은 싸우는 병사들에게
사랑이었다 승리였다

이렇게 3년
병사들의 고향은
아들들이 싸우는 전선을 찾아
태백산을 넘었고
락동강을 건넜다
불타는 3년을 함께 걸었다후—
구수한 담배연기
웃음비긴 아바이얼굴을 감돌아
차창밖으로 흩어져 날으는데
나직이 울리는 아바이의 목소리
—난 전쟁 3년간 자네들을 찾아다녔네
아바이병사—그는련대의 기룡수였다

아동시창작에서 개성적인 동심적형상기교의 탐구

-동요동시집 《해님과 아기꽃》을 읽고-

문재홍

최근에 아동문학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요동시집 《해님과 아기꽃》(김청일 작)이 출판되어 어린 독자들속에서 널리 애독되며 좋은 호평을 받고있다.

이 동요동시집은 작가의 창작생활 전기간에 발표된 작품들중에서 그중 일부를 16개의 소제목속에 194편의 다양한 생활주제의 아동시들을 종합편집한것이다.

아동시들중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쁘드린 동요그림책 《새 조선의 해돋이》, 《장자산의 무지개》, 《백두산의 별님》을 비롯하여 당과 국가의 주요기념일마다 조직한 전국문학축전과 아동문학작품현상모집에서 입선한 우수한 작품들 그리고 성과작인 동요동시들이 실려있다.

동요동시집의 첫머리에는 책의 제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요 《해님과 아기꽃》이 올라있다.

동요동시집에서는 해님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이 계시여 아기꽃—온 나라 어린이들의 참된 행복과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어있다는것을 동심적서정의 핵으로 하고 해님을 우러러 따르는 아기꽃—어린이들의 생활을 폭넓게 반영하고있다.

작품집에서는 한평생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영원한 해님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노래한 동요들인 《초가집》, 《만경봉의 둥근달》, 《키잡이》 등을 비롯하여 《더욱 뽕고과》, 《못 잊을 옛봄》, 《웃으시는 해님》, 《웃자락》 등 작품들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세월이 억만년 흐르고 세상만물이 천백 번 변해도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한 해님으로 받들어나갈 온 나라 어린이들의 철석의 의지를 노래하였다.

이와 함께 동요동시집에서 중심내용을 이루는 것은 선군해님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 칭송한 작품들이다.

시인은 언제나 선군해님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과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백두산과 선봉, 장자산 등 유서깊은 혁명사적지의 빛나는 로정을 걸음걸음 따라 현지답사하면서 체험한 력사적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어린시절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천품을 감동깊이 형상한 작품들과 선군혁명령도로 부강조국건설에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희세의 선군령장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어서 오라 새봄아》, 《빛나는 자욱을 따라》, 《민들레와 고사료》, 《선군봄동산》 등 큰 제목들에 들어있는 80여편의 동요동시들에서 폭넓게 노래하였다.

시인의 창작적성과는 바로 여기에 있으며 동요동시집의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밖에 동요동시집에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그 품속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생활과 계급교양, 조국통일주제 등을 동심적정서로 노래한 작품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동문학이라하여 절대로 험하게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아동문학일수록 어린이들의 세계를 파고드는 더 깊은 탐구가 요구되며 보다 생동하고 효과적인 형상과 표현을 찾아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시를 짓는것은 험하지 않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동시인이 생활을 동심적으로 느끼고 동심에 맞는 생동하고 효과적인 형상과 표현을 개성적으로 탐구하여 쓰는것이다.

동심적생활을 체험하고 형상할 때 아동시가는 어린 독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참다운 시가 될수 있다.

동요동시집작품들의 형상창조에서 탐구된 개성적인 형상기교는 무엇보다먼저 《해님과 아기꽃》의 관계에서 동심적체험을 하고 종자를 탐구한것이다.

동심적체험은 아동문학작가라면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동요동시집 《해님과 아기꽃》의 시인은 항상 해님과 아기꽃의 생활세계에서 동심적체험을 하고 종자를 탐구하였다. 이것이 작가의 동심적체험에서 남다른 특기라고 할수 있으며 형상기교의 원천이라할수도 있다.

시인자신도 말했듯이 《해님과 아기꽃》의 노래는 해님과 아기꽃에 대한 동심적체험을 떠나서 종자를 탐구할수 없다. 언제나 해님과 아기꽃의 구체적생활과 정황속에 시인자신을 세울 때 아동

의 감각과 정서로 충만된 아동시를 창작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님과 아기꽃》의 종자탐구를 위한 동심적체험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보기로 하자.

영원한 해님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노래한 동요 《초가집》은 만경대고향집에 선 시인자신이 만경대를 찾은 어린이의 체험속에서 만경대고향집의 앞뜰에 피어난 앵두꽃과 뒤뜰의 살구꽃, 초가집사립문에서 울려나오는 어리신 대원수님의 글읽는 소리,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샘물도 길고 할아버님일손도 도우시며 빼앗긴 나라를 찾을 큰뜻을 키우시는 대원수님의 어린시절을 체험하였다. 그 체험과 사색속에서 초가집은 작아도 밝고밝은 해님을 안아올린 온 나라가 떠받드는 큰 집이라는 종자를 탐구하였다.

동시 《백두산등불》은 조국해방 큰 싸움을 앞세워 두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등불을 켜드시고 오래오래 지켜보시는 그 모습에 시인자신을 세우고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을 보는 동심적체험속에서 잊지 못할 그날에 높이 드신 백두산등불은 오늘도 우리 앞길 밝게밝게 비쳐주는 등불이라는 사상적알맹이를 도출하여 동심적정서가 짙은 시형상을 창조하였다.

동요 《우리 맹세 들으시나요》에서는 가슴치며 땅을 치며 굳은 맹세 다지는 소년단원들의 한복판에 시인자신을 세움으로써 또 한분의 해님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더 잘 모셔갈 동심적인 종자를 탐구하였으며 동요 《웃으시는 해님》에서는 가는 곳마다 학교가면 교실에서 반겨주시고 궁전가면 궁전에서 웃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뵈옵는 동심적체험속에서 수령님은 해와 달이 흘러갈수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무게있는 종자를 찾아쥐었던것이다.

선군해님을 우러르는 동심적종자도 여러 생활계기와 정황의 동심적체험속에서 탐구하였다.

동시 《산천어》의 동심적체험과 종자탐구과정은 더욱 인상깊게 안겨온다.

우리 군대와 인민, 청소년학생들은 다함없는 힘모와 경모의 정을 안고 끊임없이 백두밀영고향집을 찾아가다. 여기서 우리 군대와 인민, 청소년학생들은 주체혁명위업의 향도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고 숭고한 뜻을 받아 안는다.

꽃물결되어 혁명의 고향집을 찾아가는 학생소년들의 생활에서 시인의 눈길에 비껴드는것은 무엇인가.

돌돌거리며 흐르는 소백수의 맑은 물과 산천어이다.

산천어는 흰구름이 물에 앉아 숨박곡질하자고 불러도 자꾸 올라만 간다. 고향집 가는 길은 저도 알기에 길잡이를 하고싶어 앞장서 간다는것이다.

동심적체험으로써만 생각할수 있는 형상기에 서정적주인공은 드디어 산천어와 누가 먼저 고향집에 올라가나 내기까지 거는것이다.

산천어에 투영된 동심적형상은 너도나도 승벽내기로 고향집을 찾아가는 어린 소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시인자신을 세웠기에 그렇듯 사색깊은 종자를 탐구하고 동심적서정을 펼칠수 있었던것이다.

동요 《쪽무이포단》의 동심적체험은 백두산고향집의 쪽무이포단을 바라보는 어린이들의 체험속에서 시인자신도 강렬한 느낌을 받는다.

한쪽의 포단도 없어 조박천을 모아 누빈 쪽무이포단을 덮고 자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린시절 그 눈물겨운 모습을 그리며 들창밖에 눈보라 몰아치면 얼마나 추우셨을가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시인의 동심적인 체험은 그 쪽무이포단속에 새겨진 어린시절의 장군님의 첫꿈이 오늘은 꽃이 불이 되었다는 서정의 핵을 발견하고 시적형상을 펼쳐던것이다.

해님을 우러러 칭송하는 동심적체험은 유희동요 《꼬리따기놀이》에서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대체로 유희동요에서 단어꼬리따기는 인식적의의를 주면서 일반적사상을 주는것이 레이지만 시인은 이 유희동요에서도 유희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동심세계를 통하여 해님을 우러러 칭송하는 종자를 밝혀냈다.

똥똥보 오토기로부터 시작된 단어꼬리따기는 강아지, 동네길, 농장벌, 하늘, 백두산으로 단어꼬리따기로 이어가다가 결구에서 이렇게 노래부르고있다.

...

백두산에 올라서
두손높이 부르자
우리 해님 만세
우리 별님 만세

이와 같이 시인의 동심적체험세계는 유희놀이의 체험속에서도 따사로운 빛발을 안겨주는 고마운 해님에 대한 아기꽃들의 열렬한 칭송이다.

《해님과 아기꽃》의 동심적체험과 종자탐구는 이밖에도 당을 노래한 동시 《빛나는 금벌들》, 《제일 큰 탑》,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노래한 동요 《공원속의 우리 평양》, 《밤에도 뜨는 해》, 학

생들의 학습생활을 노래한 동시 《떴떴한 마음》, 통일애국투사들인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돌려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노래한 동시 《이밤은 주무실수 있을가요》, 계급교양을 노래한 련시 《백들의 어린 녀과 나는 이야기》, 조국통일주체의 동요 《끼리끼리 우리끼리》, 환상동요 《눈물바다 웃음바다》 등 작품집에 들어있는 모든 아동시들에서 찾아볼수있다.

동요동시집의 아동시들은 이처럼 《해님과 아기꽃》의 혈연의 관계속에서 동심적체험을 하고 종자를 탐구하였기에 작품들은 선군조선의 해님을 알고 아이들을 알고 쓴 동요동시들로 되었던것이다.

동요동시집작품들의 동심적형상창조에서 탐구된 개성적인 형상기교는 다음으로 생동한 표상적인 세부들을 적극 탐구하고 그에 의탁하여 동심적서정을 펼친것이다.

작품집의 동요동시들에서는 《해님과 아기꽃》을 노래하는 동심적인 세부들을 적극 탐구함으로써 아동시의 동심적인 서정과 직관성을 보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형상한 동요 《만경봉의 둥근달》에서는 《둥근달》세부를 탐구함으로써 감옥에서도 조국해방을 위한 아버님의 웅대한 구상을 도우시려는 어리신 대원수님의 모습을 동심적으로 부각할수 있었으며 시의 생동성, 직관성도 살리었다.

동요 《꽃방석》에서 탐구된 백두령길의 《만병초》세부는 위대한 해님이신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싶어하는 어린이들의 동심적서정을 펼치고있다.

동요에서는 백두산령길에 만병초 방실 오손도 손 모여서 곱게 피였다고 하면서 그것은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길이길이 모시고싶어 노란 방석, 금방석 펼쳐놓았다고 심화시켜 노래부르고있다.

동시 《옷자락》에서 보여준 《옷자락》세부 역시 동심적서정이 깊고 표상성이 강하다.

충충계단 오르면
만수대언덕
여기는 아이들세상
큰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드니
아, 가슴가득 안겨오는 옷자락... 옷자락...

...

이렇게 시작된 시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의 옷자락은 마안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눈보라를 막아주신 옷자락이며 언제한번 마를새없이 타래치던 포연이 습배인 옷자락이며 우리 아이들을 위

하여 세월의 언덕을 넘고넘으시며 날려오신 옷자락이며 오늘도 아이들을 위하여 높이 솟은 영생의 언덕우에서 그 옷자락 날리며 서계신다고 서정을 일반화하여 전개하고있다.

시의 내적토로는 어디에도 직접 드러내지 않았지만 《옷자락》세부의 선명한 표상들은 조국과 후대들을 위하여 한평생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에 찬 혁명업적을 동심적체험속에서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보여주는 동심적세부는 동시 《똑—딱 손잡이를 고쳐달아요》의 《손잡이》, 동시 《꽃글씨》의 《글씨》세부 등에서 찾아볼수 있다.

동심적세부는 선군해님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를 노래한 동요동시들에서 더욱 많이 탐구되고있다.

동시 《귀뚜라미 울던 밤》에서의 귀뚜라미울음세부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자료에 기초하였지만 시인은 귀뚜라미울음소리세부형상에 동심적 의미를 깊이 부여하였다.

창밑에서도 프락에서도 자지 않고 귀뚜라미 울어에는 귀뚜라미를 자장자장 잠재우였다는 시적 세부형상이야말로 동심적체험으로써만 감득할수 있는것이다.

이 세부형상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지켜드리신 어리신 장군님의 고매한 품모를 감동깊이 노래하고있다.

동시 《비가 와도 방실 눈이 와도 방실》에서는 어버이수령님 찾으셨던 교실 책상우의 진달래꽃세부를 탐구하고 그 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아주신 그 사랑, 그 자랑 안고 창밖에 비가 와도 방실, 창밖에 눈이 와도 방실방실 피여난다고 온 나라 어린이들의 충정의 세계를 노래하고있다.

동시 《민들레와 고사포》에서 탐구된 동심적세부도 이채롭다.

그 어느 들가에서나 피어나며 흔히 볼수 있는 민들레, 그것을 시인은 전호가의 민들레세부로 포착함으로써 인민군대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사상감정을 노래하였다.

동그런 포진지엔 고사포 우뚝
그아래 전호가엔 민들레 방실

보기에는 뚝쟁이 무뚝뚝해도
민들레는 고사포를 좋아한대요

간밤에도 저희들이 단잠 잘적에
고사포는 뜬눈으로 새웠다나요

원썬들이 몰래몰래 기여들가봐
꽃동네의 고운 꿈 흠쳐갈가봐

민들레는 그 수고가 하도 고마와
향기향기 꽃향기 드린답니다

보는것처럼 《민들레》의 세부는 얼마나 동심적인가.

고사포를 좋아한다는 민들레도 그렇지만 고사포의 수고가 하도 고마와 향기향기 꽃향기 풍겨 준다는것은 참으로 동심적형상인것이다. 이러한 민들레의 세부형상속에서 조국의 고지를 철벽으로 지켜선 인민군초병들을 열렬히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엿볼수있다.

선군해님을 노래한 동심적세부는 이외에도 어린 시절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풍모를 노래한 동요동시들의 《개암알》세부, 《밤 다섯알》세부, 《보라빛물앵두》세부, 《하얀 돌》세부 등 여러 작품들에서 탐구된 세부들은 동심적형상의 생동성과 직관성을 높여주고있다.

동요동시집작품들의 형상창조에서 탐구된 개성적인 형상기교는 또한 동심적정서에 맞는 운률을 잘 조성하고있는것이다.

아동시운률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형상기교는 툄동적인 감각이 예민한 아동들의 심리정서에 맞게 음악성과 턄동성이 강한 운률을 잘 살려쓴것이다.

아동시의 음악성은 3.3조, 4.3조, 4.4조의 가장 적은 정형툄과 함께 랑랑한 소리에 의하여 살리고있다.

동요동시들에서는 울림소리와 모음현상을 적극 리용하면서 아이들이 즐겨쓰는 의성의태어의 리용으로 랑랑한 소리를 더욱 돌구어준다.

동요 《군사놀이》에서 쓰인 《뚜뚜뚜》, 《땅땅땅》, 《펼펼》 등은 소리나 움직임을 본판 말로서 생활정경과 활동적인 모습을 음악적으로나 시적으로 아이들의 심리정서를 울려주며 상징적인 표현들은 소리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어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다른 시어들과 턄조를 이루면서 동요전반의 운률에 적극적인 영향을 준다.

동요동시의 운률조성에서 다른 하나의 특징은 동적인 운률을 잘 조성한것이다.

동적인 운률을 살리기 위하여 작품들에서는 많은 경우 행동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생활의 고유한 턄동과 함께 반복법으로 효과성을 높이었다.

곧게뻗은 동네길로
뛰어가며 땡— 땡—

꼬마들이 나란히
손목잡고 나란히

만경대에 간대요
빠스타고 간대요

...

—동요 《손목잡고 나란히》 중에서—

동요에서는 손목잡고 만경대를 찾아가는 생활 그대로의 모습과 흐름을 그대로 시적화쪽으로 펼침으로써 시의 전반적인 형상에서 동적인 운률을 보장하였다. 여기에서 쓰인 반복법은 행동적인 운률을 더욱 돌구어주었다. 이와 함께 작품집의 동요동시들에서 양태부사들을 적극 리용함으로써 턄동적인 행동과 시문장의 턄조도 잘 살리였다.

이밖에도 짧은 시행의 길이와 음수툄을 치밀하게 조직한 기교도 찾아볼수 있다.

동요동시집작품들의 동심적형상창조에서 탐구된 개성적인 형상기교의 또 다른 하나는 뜻이 명백하고 색채가뚜렷한 시어, 동심적체험에 비추인 직감적인 생활화쪽을 생동하게 표현하는 시어들을 정교하게 다듬어쓴것이다.

동요동시들에서는 우선 해님을 우러러 칭송한 표현들을 작품의 사상정서적내용과 그 형상적요구에 맞게 《선군해님》, 《밝은 해님》, 《웃으시는 해님》, 《우리 해님》, 《새 세기의 해님》, 《해님품》, 《해님의 나라》 등 표현으로써 해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우러르는 이 나라의 아기꽃들—어린이들의 밝고 랑만적인 정서를 생동하면서도 턄부히 해주고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시인자신의 심장의 분출로서 어린이들을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흠모심으로 교양하는데 의의가 있다.

동요동시들에서 쓰인 언어는 또한 형용하여 말하기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그들이 즐겨쓰는 상징적인 말마디들을 어느 시편에서나 거의 빼놓지 않고 쓰고있는것이다.

몇편의 시들에서 실례를 들면 《소백수 맑은 물은 돌돌거리며》, 《산천어는 오롱조롱 떼를 지어서》, 《진달래야 방실 어서 웃어라》, 《코를 턄쿨 턄다가 불우물 생긔》, 《아침저녁 솔솔 물을 주시어》, 《어데선가 꺽충 노루가 뛰고》, 《구름이 불 덮고서 깜빡 소르르》 등과 같이 어느 시편에서나 그 대상의 상태나 모양, 소리, 움직임을 나타내는 상징적표현들을 적극 살려쓰고있음을 찾아볼수 있다. 상징적표현들을 쓰는 경우에도 그

상징적표현의 음성적표현성이 물동적으로 생동히 살아나도록 쓰고있다.

《통일대문 짜쿵》을 《통일대문 짜—쿵》으로, 《원썬들 벌벌》은 《원썬들 벌—벌》로, 《뛰어가며 빵빵》을 《뛰어가며 빵—빵》으로 쓰고있는 것이 그 실례들이다.

이밖에도 동요동시들에서는 동심이 짙은 의인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비유적인 수법들과 직유, 은유, 대구, 점층 등 문장론적표현수법들을 어린이들의 정서적기호에 맞게 씌으로써 아동시의 형상수준을 높이고있다.

동요동시집 《해님과 아기꽃》은 주제사상적내용의 혁명성과 우수한 형상기교로 하여 교양적감화력이 크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작품집에는 어린이들속에서 널리 랑송되는 아동시들이 많지만 작가의 대명사로 불리울수 있는 대표작이 뚜렷지 않은것이다.

사상예술적으로 좋은 작품들이 많다 하여 그것들이 다 작가의 대표적작품으로 될수 없는법이 다.

무게있고 철학적깊이 있는 종자의 탐구, 사상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백배의 노력을 기울인 작품만이 대표작이 될수 있다.

그리고 작품집에는 일부이기는 하나 동심적체험은 깊지만 웅심깊은 사상을 담지 못함으로써 작고 큰 아동시문학으로서의 면모를 원만히 살리지 못한 부족점도 있다. 한편 선군시대 우리 문학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 정보시대의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 지식의 탐을 쌓아가는 학생소년들의 생활과 동심적정서, 지성세계를 다양하고 깊이있게 그리지 못한 일반적결함도 극복하지 못하고있다.

이런 미흡한 점은 있으나 동요동시집 《해님과 아기꽃》은 현대아동시가문학의 유산을 남긴 우리나라의 이름있는 아동시인들이 남긴 작품집들과 함께 이룩한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을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자로 교양하는 수단으로 될뿐아니라 창작가들에게 실천적경험을 주며 주체아동시가문학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우화

미국 《후사경》

문영철

늘 미국과 《한국》간의 《동맹》관계는
《수평》관계라고 떠들어대던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하루는 미국대사를 자기 집에 초청했네

산해진미 차려놓고
제 아들녀석에게 술도 붓게 하며
미국대사와 연방 잔을 찢던 《국회의원》
거나해진 미국대사를 부축여
대문밖까지 따라나왔네

《안녕히 다녀가십시오》
미국대사가 승용차에 올라타자
깊숙이 허리굽힌 《국회의원》
그 자리에 돌로 굳어진듯
오래도록 허리를 펼줄 몰랐네

《아버지! 이젠 허리를 펴세요
미국대사가 탄 승용차는
이미 멀리 갔어요》

아들이 곁에서 보다못해 핀잔을 주자

애비는 허리를 펼대신
아들의 목덜미 잡아끌며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네

《아니다. 미국대사가 우리를
승용차의 후사경으로 지켜볼수 있다
아무튼 우린 미국어른들의 눈밖에 나면
부귀영화를 누릴수 없어》

그 말에 애비곁에 다시 허리를 굽힌 아들—
능청스레 하는 말
《아버지, 그럼 미국대사가 탄 승용차가
더 가지 말고 다이야가 터졌으면 좋겠지요?》
《그건 어째서?!》
애비 깜짝 놀라워하자
아들은 한수 더 떠 말했네

《그래야 대사각하가
우리들의 〈정중한〉 자세를
오래도록 지켜볼수 있지 않겠나요
땅바닥과 수평된 우리 이마를...》



김순철

1

백학철소장이 새로 배치되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평지수문관측소는 조용한 곳이었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애창강엔 물고기들이 욱실거렸다. 정각같은 관측소앞마당에서 강물위에 낚시대를 척 드리우면 팔뚝같은 산천어가 햇빛에 등어리를 번쩍이며 물러올라오곤 했다. 퐁퐁 뛰는 산천어를 터발에서 방금 탄 고추와 메주된장을 넣고 부글부글 끓인 생선국을 훌훌 불며 먹는 맛이 참 기막힌 것이었다.

수문관측소의 임무는 사철 변함없이 애창강의 물흐름량을 관측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일년내내 누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 시비하는 사람도 혼시할 사람도 없다. 그래서 먼저번 소장도 수문관측원이 아니라 《숨은관측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제정된 시간에 물깊이, 물온도, 물흐름량을 관측한 후 여가시간에 흥취가 나게 타곤 하는 최영배의 기타소리에 동네아이들이 오구구 모여들곤 했다.

세월이 흘러 마음좋은 소장이 나이가 되어 읍에 사는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고 새 소장이 배치되어왔다. 해군제대군관출신인 새 소장은 마흔이 갓 된 키가 늘씬한 사람이었다. 눈에 쌍꺼풀이 지고 얼굴이 갱끗한 새 소장은 처음부터 여간 까다롭지 않았다. 그는 무엇이나 이전 방식은 불만족스러울듯 이전어떻소 저건 어쩔소 하면서 조용하던 관측소를 들볶았다. 우선 관측소안에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을 요구했고 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과 훈련까지 벌여놓았다.

철새없이 물고기를 낚아내던 영배의 낚시대엔 먼지가 오르기 시작했다. 영배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전 강기슭에 앉아서 눈집작으로 관측을 하고 보고하려다가 새 소장에게 혼쫓이 났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소? 다시 관측하시오.》

《척 보면 삼천리라 하고 아마 이수자가 정확할 집

니다.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짓는다는데 전 십년이 넘었거든요.》

영배는 배심을 가지고 학철을 던지시 넘겨다보았다. 관측삭도를 타지 않고도 물깊이와 물흐름량을 척척 알아맞추는 영배를 보고 먼저번 소장도 혀를 내들었다.

《무슨 잡꼬대같은 소리를 하오? 관측은 0.01밀리 오차라도 허용할수 없소.》

학철은 눈살을 찌프리고 반복구령을 내리는 인민군대지휘관처럼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소장동지, 내기를 하잡니까? 0.01밀리라도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흥정하자는거요?》

학철은 성이 나서 쨍소리가 나게 목소리를 높였다. 하는수없이 영배는 보란듯이 관측삭도를 타고 강 한복판에 들어가 관측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관측을 끝낸 영배는 한글자도 고치지 않고 학철에게 기록부를 척 내보였다. 자기가 눈집작으로 관측했던것이 조금도 틀림이 없음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관측결과를 보고 놀랄줄 알았던 학철은 더 엄한 표정을 짓고 혼시했다.

《우리 관측원들은 누가 보건말건 량심적으로 일해야 하오. 저 량수표는 단순히 물높이를 재는 표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재는 〈량심표〉라는것을 명심하오.》

그때부터 관측소사람들은 강기슭에 계단별로 세워놓은 량수표를두고 《량심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 량수표를 몇계단 더 올리는 일판을 벌려놓았다.

영배는 기가 막히었다. 관측소가 생긴 이래 만수위를 계산하여 고착시킨 량수표의 마지막계선을 강물이 넘어선적은 한번도 없었다. 영배는 함께 일하는 석아바이의 옆구리를 찌르며 자기와 합세할것을 요구했다.

《만약을 생각하는건 좋은 일이지.》

한생을 관측소에서 성실히 일해오는 석아바이

는 빙긋이 웃으며 작업을 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학철은 세명밖에 안되는 인원
으로 각종 훈련도 시작했다.

근무의 여가에 낚시대를 척 드리우던 재미대신
피약별에 도시의 네거리교통보안원처럼 곳곳이
서서 수기훈련을 했다.

영배는 젊은 사람인데다 눈썰미가 빨라 한숨을
돌릴수있었지만 예순살이 가까와오는 석아바이는
머칠을 두고 신고했다. 오죽하면 집으로 오가면서
도 춤추듯 수기훈련을 하여 동네너인들과 아이들
의 웃음거리가 되겠는가.

《전 이 훈련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군대입
니까?》학철이 관측소뒤에 있는 깎아세운듯 한 룡
바위산의 벼랑극복훈련을 시킬 때 기가 막혀 항
의하듯 했던 영배의 말이었다.

《영배, 만일 이 지역이 큰물로 몽땅 침수되고
통로가 이 벼랑밖에 없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주
저앉겠소?》

벼랑극복훈련을 하다가 떨어져 얼얼한 영치때
문에 영배는 어기적거리며 걸었다.

학철소장은 집에도 할 일이 많았지만 늘 관측
소에 붙어살다싶이하면서 최근 세계기상학실태며
여러가지 린점분야의 책들을 깊이 탐독했다.

소장네 집에서는 남정들이 할 일도 안해가 도
말아하곤 했다.

《숙영이 어머니, 이런 일이야 소장동지를 시키
지요?》

《집적정많은 남정네가 무슨 큰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녀인들이 이런 일쯤이야 얼마
든지 할수있지요 뭐.》

영배는 어이가 없었다. 어찌면 부부가 한바리에
실은것처럼 똑같은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뭐 이
관측소에서 큰일을 한다?!...

2

비는 보름이 넘도록 쏟아졌다. 늙은이들도 난생
처음 본다는 장마비가 어제 저녁부터는 폭우로
변하여 바깥으로 쏟아붓듯 퍼부어댔다.

밤새 긴장한 야간근무를 서고 들어와 눈을 불
이었던 영배는 검정개가 쿵쿵 짖어대는 바람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본 그는 깜짝 놀랐다.

제방을 넘어선 황토색강물이 농장밭들을 삼켜
버리고 영배네 터밭으로 밀려들고있었다.

락아소소장을 하는 어머니가 물참봉이 되어 뛰
어들었다.

나서자란 정든 집과 가산이 순식간에 물속에
잠기는것을 보는 영배의 가슴은 아팠다. 그들 모
자는 다급히 밖으로 나와 허리를 치는 물결을 헤
치며 산쪽으로 향했다. 산기슭에 아담하게 들어앉
은 름산마을이 물속에 잠기고있었다. 헤엄치다싶
이 하며 산기슭에 당도하여 올라서려는데 소장네

딸 숙영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엄마를 소리쳐 찾
고있었다.

《엄마야!》

《숙영아, 엄마 어디 갔니?》

《저기 와요.》

저쪽에서 숙영이 엄마가 물을 헤가르며 오는것
이 보였다.

《영배동무군요.》

숙영이 엄마는 그가 나타난것이 반가운듯 소리
쳤다. 산기슭에 올라섰을 때 그는 《참, 관측소는
무사해요?》라고 물었다.

《...》

영배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동네가 이쯤 물에
잠겼으면 강아래쪽에 있는 관측소는 이미 물에
잠긴 뒤일것이다.

영배는 허둥지둥 관측소쪽으로 향했다. 하늘과
땅, 강을 분간할수가 없었다. 재빛구름속에 덮인
대지엔 운동 물천지였다.

관측소가 있던 근방에 이른 그는 떡 굳어졌다.
아담한 정각갈던 관측소는 시누런 흙탕물속에 잠
겨 보이지도 않았다.

《소장동지!》

영배는 겁에 질려 목이 터지게 찾고 불렀다.

이때 등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울렸다.

《동문 왜 이제야 나타났소? 홍수가 났으면 여
기부터 달려와야지.》

운동 물참봉인 학철이 비웃을 필력이며 성이
나서 소리쳤다.

《살아있었구만요. 난 혹시 하고 속이 철렁했었
습니다. 마을이 몽땅 물에 잠겼으니...》

영배는 물란리속에서도 름시로 천막을 쳐놓고
관측을 하고있는 소장과 석아바이를 보자 눈물이
글썽해졌다.

《마을사람들은 다 무사하오?》

《예, 모두 뒤편으로 대피했어요. 소장동지 아주
머닌 오히려 관측소를 걱정하더군요.》

학철은 뽀얀 비발속에 잠긴 마을을 잠시 바라
보았다.

《그럼 됐소. 영배동문 무전기를 준비하오. 전화
선이 몽땅 끊어졌소.》

학철은 관측삭도가 있는 곳에 름시로 쳐놓은
천막안으로 영배를 데리고 들어갔다.

천막안에는 무전기와 비상용배낭 세개가 놓여
있었다. 영배는 관측소무전수였다.

그는 축전지를 연결하고 전원을 연결했다.

《자, 보고하오. 평지지구엔 8월 20일 10시 현재
667밀리미터의 비가 내렸다. 초당 1 600립방미터
의 물이 류출된다. 름산물동이 위험하다. 한시간
후면 물동이 터질수 있다. 긴급대책... 아니, 왜
무전을 안 치오?》

《...》

영배는 당황하여 무전기의 여기저기를 살펴보
고있었다. 무전기가 동작되지 않았던것이였다. 아
무리 살펴봐야 어디가 고장인지 알수 없었다.

《어제 밤 점검해보았소?》

영배는 머리를 떨구고 입술을 깨물었다. 학철은 자기가 소장으로 온 다음부터 매일 무전기를 점검해보고 축전지를 충전시키는것을 제도화했었다. 학철이 군대때 부상당한 상처때문에 군병원에 입원했던 한달동안 영배는 그 일을 견어치웠던것이였다.

그동안 무전기는 관상용처럼 자리나 차지하고 있었을뿐이였다. 영배는 지금과 같이 무전기가 긴요하게 필요될줄은 몰랐었다.

한초한초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가 강물소리와 함께 증폭되어 울려왔다. 영배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졌다.

제가 직접 무전기를 동작시켜보던 학철은 축전지를 합선시켜보더니 낫빛을 흐리였다. 축전지는 이미 다 방전된것이였다. 이 엄중한 사태를 제때에 보고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하여 초래되는 후과는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였다.

《나라에서 사람이 남아돌아가 우릴 여기에 배치한줄 아오?... 우리 초소가 그만큼 중요하기때문이란 말이요.》

지난 시기 학철이 절절하게 요구할 때도 그는 먼곳에서 울려오는 비바람소리처럼 흘려들었었다.

이젠 후회해야 아무 소용도 없었다. 큰일이 닥친것이였다. 소름이 끼쳤다. 통신수단이 다 못쓰게 된데다 도로까지 침수된 형편에서 통암체신분소까지는 이십리가 넘으니 한시간전에 도착할 방도가 없었다. 영배는 몸부림쳤다. 실마가 일을 친것이였다. 그는 애원하는 눈길로 학철과 석아바이를 바라보았다.

학철은 비줄기가 끊길줄 모르고 쏟아지는 강기슭을 이속도록 거닐고있었다. 횡포하게 계속 불어나는 강물을 무겁게 바라보던 학철은 드디어 무엇인가를 결심한듯 근엄한 표정을 지은채 영배와 석아바이쪽으로 다가왔다.

《동무들, 전투명령을 주겠습니다. 영배동문 여기 남아서 계속 관측하면서 룡바위산에 올라갈 석아바이에게 보고를 하시오. 난 강물을 따라 룡암체신분소에 가서 이 정황을 보고하고 수기신호로 관측보고를 받겠습니다. 명심할것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누구든 죽을 권리가 없다는것입니다. 모를것이 없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지금 정황에서 소장이 내놓은 안이 가장 합리적일것임이 분명했다. 허나 소장이 가야 할 저 노호하는 강물에 뛰어들다는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길이였다.

《소장동지, 안됩니다. 그러다... 차라리 제가 가다 죽겠습니다.》

영배는 소장의 앞을 막아서서 절절하게 부르짖었다. 자신의 무책임성, 만성병이 아니었다면 이런 정황에 처하지 않았을것이다.

《영배동무, 우린 관측보고를 하기 전에는 한사람도 죽을 권리가 없소. 지금 저 강아래에 있는

인민들의 생명재산이 우리에게 달려있소. 주의하오. 자, 경쟁하지요. 석아바이는 보병, 영배는 공병, 난 역시 해병이요. 이 협동작전이 끝나면 영배가 잡은 산천어로 맛있는 어죽을 끓여놓고 축배를 듭시다.》

좀처럼 웃음을 보이지 않던 학철이 수영장에 뛰어들듯 희이를 드러내고 시원한 웃음을 남긴채 사뭇치는 강물에 들어섰다.

《소장동무!》

《소장동지!》

영배는 눈물이 왈칵 쏟아짐을 어찌할수 없었다. 무정하고 딱딱하게만 생각했던 학철소장의 진모습을 보았던것이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강물이 사납게 불어나는 강기슭에 사나이들의 갈린 목소리가 길게 울려갔다.

석아바이도 이내 벼랑을 뚫아오르기 시작했다.

《영배, 덤비지 말고 침착하라구.》

《아바이, 저때문에 모두...》

《사내가 울긴. 공병, 잘해보자구.》

3

두사람이 떠나간 관측소 주변은 비소리, 강물소리만 점점 커졌다. 눈에 뜨이게 불어나는 강물은 아름다리나무들도 뿌리채 뽑아안고 힘자랑이나 하듯 늑실늑실 흘러갔다. 툭툭... 이따금씩 관측사도밀창에 부딪치는 통나무소리가 아즈럽게 울려왔다.

영배는 관측을 시작하려고 삭도에 오르려다 무춤 멈춰섰다. 선뜻 오를수 없었다.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속을 스쳤던것이다.

...관측소에서 일판을 벌여놓던 학철은 관측삭도가 낮다고 하면서 쇠바줄을 룡바위산중턱까지 높이는 작업을 시작했었다. 정전직후부터 리용해오는 쇠바줄삭도는 큰물이 제일 많이 나군 했던 삼십여년전에도 별일이 없었었다. 영배가 아무리 그 사실을 구구히 설명했어도 학철의 고집을 꺾을수없었다.

땀방울을 툭툭 떨구며 바위에 정대를 박느라고 함마질을 하다보니 손바닥에 물집까지 생겼다. 생각할수록 굵어부스럼을 만드는 소장이 원망스러웠다.

《그렇게 일 잘하고 툭툭한 사람이면 군대에서 영웅이 되든지 왕별이나 달것이지... 어째서 우리 관측소 같은데 왔는지?... 에이, 사서 고생이라니까. ...》

영배가 불이 부어 소장의 뒤소리를 하며 함마질을 힘있게 하는데 언제 왔는지 학철이 손을 내밀었다.

《영배 말도 옳아. 내가 큰 재목이 될것 같으면 여길 왔겠나? ... 별로 큰일을 할 재목은 못되지만 자기 전투계선을 잘 지키는것도 병사의 임무야. 힘들어도 삭도줄을 높여야 해. 자료들을 보니

지구온난화현상으로 때아닌 폭우가 쏟아지고 바다나 강하천들의 수위가 예상외로 높아지고있소. 우린 천만번중의 한번 있을수 있는 일도 다 예견해야 하요.》

영배의 뒤소리에 성이 나 할줄 알았던 소장은 함마질을 주근주근하면서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영배는 입을 다물었다. 삭도가 완성되던날 학철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

병원에 면회갔던 영배는 학철이 군사복무시절 서해해상전투에서 적들과 용감히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집에 앉아서 휴식하면서 건강을 돌보라는 국가의 혜택도 마다하고 이 평지관측초소로 자진하여 왔다는것이였다. 학철은 그런 사람이였다. ...

둥둥... 삭도소리에 영배는 정신이 들었다. 엄청나게 불어난 강물은 아득하게 높아보이던 삭도밀들을 활고있었다.

자기 말대로 그전 삭도를 그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미 물속에 잠겨 끊어져버렸을것이다.

영배는 천백번 자기의 경솔함을 저주하며 삭도에 올라섰다. 삭도는 천천히 강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준엄한 격전장에 나선 심정이였다.

이따금씩 삭도가 위태롭게 기우뚱거렸다. 그는 물흐름량을 재기 시작했다. 강물높이를 보느라고 강기슭을 바라보며 허를 깨물었다. 강물은 새로 세운 량수표를 두계단이나 더 넘어섰던것이였다.

썩아— 이상한 굉음소리에 머리를 돌려 바라본 그의 눈이 흠뻑진채로 굳어졌다.

폭풍이 일 때 바다에 몰아치는 풍랑같이 산악처럼 일떠선 시꺼먼 강물이 통나무들과 뒤섞여 무서운 소리와 함께 밀려내려오고있었다.

(림산물동이 터졌구나!)

관측삭도를 단단히 움켜쥔 그는 량수표에 닿는 물높이를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물높이 780밀리미터... 앗!》

관측삭도가 통나무들에 맞아 뒤집히면서 영배는 허양 강물속에 떨어졌다. 회오리치는 흙탕물에 휘감기면서도 그는 (관측보고를...) 하고 몇십번 생각했다. 헤어나려고 몸부림쳤으나 도무지 솟구칠수가 없었다. 이때 통나무가 그의 머리를 스쳐 때리는통에 영배는 정신이 아찔해짐을 느꼈다. 죽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갈마들었으나 흙물까지 몇모금 마시고나니 속이 메스메스해지고 정신이 점점 흐려왔다.

관측보고를 애타게 기다릴 석아바이와 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전투가 끝나면 용서를 빌자고 했는데 입무도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듯 아팠다. 후회는 항상 뒤늦게오는 법인가. ...

이때 누군가 자기의 허리를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한순간이 지나서야 영배는 누군가 자기의 허리를 끌어당기는것이 아니라 안전바줄때문에

자기의 몸이 물흐름을 따라 떠내려가지 않을뿐이라는것을 의식했다. 손더듬으로 안전바줄을 찾아진 영배는 있는 힘을 다해 한치한치 튼아올라 강기슭으로 나왔다. 강기슭으로 겨우 기여나와서 물을 한동안 토하고 숨을 길게 들이쥔 그는 허리에 묶인 안전바줄을 살펴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위급한 정황속에서 언제 안전바줄을 찾는지 생각이 안났다. 그것은 습관된 동작이였다.

학철은 삭도를 탈 때는 무조건 안전바줄을 착용할것을 요구하군 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떨어졌지 난 제대로 안 떨어집니다.》

영배는 그때도 이렇게 희떠운 장담을 했었다.

《군사복무를 한평생 한 사람들이 동무만 못해서 반복훈련을 하는줄 아요?...》

소장은 원칙앞에서 한치도 양보가 없었다. ...

고마왔다. 임무를 수행하게 해준 소장이 고마왔다. 그는 검은 구름속에 휩싸인 롱바위산을 올려다보았다. 불빛이 보였다. 두개의 전지불빛이 안타까이 영배를 찾고있었다.

《영배, 관측보고를 하라...》

영배는 비칠거리며 천막안쪽으로 걸어갔다. 천막안에 들어선 그는 비상용배낭에서 두개의 전지를 꺼냈다. 지금처럼 비구름에 휩싸인 기상조건에서 수기신호로는 아무런 보고도 할수 없었다.

그는 전지불을 켰다. 마치 자기 가슴속에 불을 켜는 심정이였다.

《관측보고를 하겠다. 12시 40분 물동이 터졌다. 물높이 780밀리미터, 초당 물흐름량 1 972립방메터...》

《알았다. 수고했다. 소장이 무사히 도착했다.》

아득한 산정에서 불빛이 움직이는것이 보였다. ...

×

큰 장마뒤에는 강물이 더 맑아지고 깨끗해진다. 하늘에 흰구름이 높이 뜨고 질풍같이 노했던 애창강이 찰랑찰랑거리며 순하게 흘렀다.

영배와 석아바이는 스스로 파괴된 관측소대신 물이 차지 못할 높은 곳에 새 관측소 건설을 시작했다.

그날 관측보고를 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들었던 학철소장은 바위에 부딪쳐 타박상을 입었지만 물동이 터지기 전에 보고를 함으로써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구원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도방송위원회의 기자까지 찾아와 마이크를 들이댔을 때 영배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머리를 들지 못했다. 자신에 대한 뉘우침이 너무도 강했던것이였다. 그는 애창강의 맑은 물속에 비겨진 자기의 새 모습을 보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다. ...

금방석

- 이 나라 녀인들에게 -

최윤철

머리시

삼가 인사를 드리노라!
이 나라 녀인들이여!
쓰고싶으면서도
선뜻 붓을 들수 없었던
그 모대김의 낮과 밤들에
번쩍이는 시상이 되어주고
불타는 시정의 나라가 되어준
그대들의 마음 담아 이 글을 쓰노라
그대들이 걸어간 자욱자욱에
얼마나 많은 사연 숨배여있느냐
그대들이 맞고 보낸 그 낮과 밤들에
얼마나 꿇길줄 모르는 이야기들이
잠들지 못하고 숨쉬고있느냐!

이제 머지않아
옛말로 되어버릴 사연들이여
너는 시들줄 모르는 꽃처럼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전해주리라
마를줄 모르는 썸파도 같이
멈춰설줄 모르던 그 숨결에 대하여
력사앞에 후덥게 전해주리니
전환의 새해가 밝아왔다
준엄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녀인들의 정신력은
다름아닌 불굴의 애국심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초소에 세웠던가
얼마나 많은 안해들이
군복입은 남편들을 받들었던가

사랑하는 이 땅을 위해
가정과 일터 마을에서
녀인들이 발휘한 영웅적희생정신!
그것은 말없이 삶을 불태운
이나라 녀인들의 사랑이 아니라
주저앉을줄 모르던 생활력이 아니라!
물어보자! 시대의 자욱자욱에
물어보자! 생활의 고개고개에
전선천리 먼길에 옷자락 날리시며
우리 장군님 선군길 헤쳐가실 때
누가 병사들의 고향집을 지키었느냐
누가 금강의 세 동서가 되어
원군의 노대를 굳게 들어쥐었느냐!

아! 그래서 우리 장군님
고생을 많이 한 우리 안해들에게
3.8절에 선물도 꼭 주라고
그러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그처럼 뜨겁게 당부하시나니
초소의 병사들을 만나시여도
어머니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시는
일터의 혁신자들 만나보셔도
안해들의 정성을 먼저 헤아리시는
우리의 장군님은 진정
녀성들의 친아버지!
녀성들의 친어머니!

가장 준엄했던 그 나날
장군님의 집을 덜어드리려
가장 험한 자리에 남먼저 들어서던
스스로 짐을 지고 웃으며 걸던
이 나라 녀인들
혁명! 이를 위한 투쟁과
선군! 이를 위한 승리와
우리의 국력인 일심단결속에는
녀인들이 고여온 주춧돌
억척같이 뿌리 내리였나니
이 녀인들이 없이야
초소를 지켜가는 병사들의 눈동자
별처럼 밝게 빛날수 없고
유치원의 창가에서 노래부르는
아이들의 눈빛 그처럼 맑을수 없나니
내 그 무한한 사랑의 세계를
어찌 다야 알련만
평범한 녀인들의 자욱을 따라
애국에 불타는 그 정신을
노래의 다발로 엮어엮어
이 나라 녀인들에게 삼가 드리노라!

제 1 장

외유내강은 예로부터 조선녀성의 품성이라
불러왔다
사려깊은 눈매, 알뜰한 살림살이
그 누가 말했던가
녀성이라 말할 때 따뜻한 정이라고
아낌없는 사랑이라고
그 다심함은
포근한 이불뜸에 촘촘히 누벼있고
윤기도는 그릇들이 말하고있다

그래서 집을 두고 떠나도
 마음을 그 숨결에 잇대이고 사나니
 사랑을 위해
 한몸 초벌처럼 태울줄 알고
 행복을 위해
 리해의 실토리 끊을줄 모르는
 우리의 너인들!
 높은 선물처럼 명쾌하고
 깊은 호수처럼 그윽한
 맑은 강물처럼 꾸준하고
 흰눈처럼 순결한 그 세계엔
 꽃피고 열매맺는 사계절이 숨쉰다

...반가운 손님 맞은듯이
 봄비며 들썩이는 어느 한 산간역
 숨가쁘게 달려온 렬차도
 땀을 식히려는듯 벗어섰는데
 무거운 배낭 올리는 한 너인(그는 흥시에
 살고있는 오인숙)
 먼 친척집에서 식량을 가져오는 길

며칠만에 온 기차가
 고향사람처럼 반가왔다
 《미안합니다!》
 승객들에게 그 몇번하는 사과의 말
 차칸엔 자리정돈 말소리가 부딪치고
 소리없이 내리는 보슬비
 차창을 식혀주듯 차분히 젖어들고
 흘러내린 머리 조용히 넘기며
 긴장이 푼어지는 순간
 못견디게 그리웠다! 두고온 집이
 《엄마!》
 소리치며 동동 매여달릴 자식들이며
 《수고했구만》
 무거운 짐 받아내릴
 남편의 눈길도 보이는듯
 그것은 흐릴줄 모르는 사랑이였고
 바칠수록 힘이 솟는 열정이였다

도중식사보자기도 밑굽이 나고
 언제면 떠날가 근심은 무거워도
 렬차칸엔 오락회가 막을 올렸다
 무슨 사람들 없으랴
 재간이 재간을 놀래우며 감탄하며
 박수소리 웃음 타고 재청을 부른다
 누가 한숨을 쉬느냐
 누가 맥을 놓았느냐
 이 며칠은 원썬들에 대한 증오의 몇백일
 기어이 이겨내고야말 의지의 몇천일
 생이란 난관이 부닥칠수록
 창조의 열정으로 반발하나니
 자칭 오락회책임자가 어느새
 인숙을 《무대》로 불렀다
 바로잡는 옷매무시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고상한 기품이 풍겼다

뼈꼭새가 노래하는 곳 사랑하는 내 고향일세
 로동으로 행복을 열고 로동으로 꽃이 피는 곳
 아! 언제나 좋은 곳일세아! 내 고향 어머니품아!

《재청!》

몇곡을 더 불렀는지
 가슴이 후련히 열렸다
 노래란 마음의 량식
 더없이 귀중한 생의 길동무—
 나이도 직무도 목적지도 서로 다른
 손님들을 친형제로 댈어주나니
 그래서 마주보는 눈빛 그리도 정겹고
 나누는 이야기 그처럼 즐겁구나
 그래서 부르는 노래 그리도 절절하고
 나누는 음식은 그처럼 달더라
 피롭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었다 하라!
 아프고 슬픈 일이 우리에게 있었다 하라!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우리를 굴하게는 못하거니
 삶의 아름다운 미래를 부르며
 휘황할 조국의 래일을 그리며
 장군님 한식술로 깊어가는 밤
 누구의 생각인들 다르랴
 며칠간 렬차생활 이처럼 고된데
 얼마나 힘드시랴! 우리 장군님!
 하건만 신문에서 텔레비존에서 뵈옵는 영상은
 환하신 미소
 젊음이 넘치시는 힘있는 걸음
 이밤 그 헌신에 머리숙이며
 장군님안녕 바라고바라는
 인민의 마음은 잠들줄 모른다
 렬차는 벗어선지 사흘이나 되어도
 그리움의 천리길 달리여가는
 인민의 생각은 벗어설줄 모른다

새벽빛이 창가에 물들무렵
 뜻밖에도 방송차가 들이닥쳤다

《렬차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군부대 군인들이
 손님들에게 아침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아! 우리 군대
 뭉클함이 가슴을 움켜잡았다

보기만하여도 힘이 솟는 우리 군대
 식사를 받아드는 사람들마다
 병사들의 손을 잡고 놓지 못한다
 싱글벙글 웃는 병사들마다
 식기 전에 더 들라고 자꾸 권한다
 저기 로병할아버지
 손자인양 어깨 두드리며
 고향이 어뎌가고—
 빨간 렬장쓸어보며

산골마을 너교원도 말한다
 꼭 영웅이 되라고—
 감동이다!
 아름다움이다!
 한마음 한모습이 바다처럼 뒤셀렌다
 열차도 원기를 얻은듯
 기적소리 높이 힘줄을 당기는데
 방송차의 노래따라
 군민의 합창이 최성인양 터졌다
 백두의 성스런 붉은 기폭엔
 수령님의 한생이 어리어있다
 높이 들자 붉은기 맹세로 불타라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가리라

사람들이여!
 이 모습을 보시는가
 그대가 누구이든
 심장에 붉은 피가 뛰고있다면
 어찌 가슴이 높뛰지 않으랴
 열싸안고 목소리 합치지 않으랴
 애국의 신념이 무엇인지 알려거든
 군민의 정이란 무엇인지 알려거든
 이 화폭앞으로 모여오시라!
 인민의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병사들의 군용차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마주 향해 달리며 마주 향해 손저으며
 나누는 뜨거운 정 불처럼 타오른다!
 아!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도
 이 작은 산간역은
 아름다운 화폭으로 길이 남아있으리
 많은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속에
 인숙이도 있었다
 진정할줄 모르는 여울목처럼
 높뛰는 그의 숨결
 (군대는 인민을 생각하는데
 나는 내 한가정만 생각 했구나!)
 사람마다 10년 칠드는 순간이 있나니
 절절한 그리움이 가슴속에 일어난다
 지금 이 시각도 우리 장군님
 이름없는 어느 령길에서
 새날을 맞으시는지 그 누가알랴
 인민의 밥그릇 생각 하시며
 손에 드신 야전식사
 들지 못하시는지 그 어찌 알랴!
 달리는 열차에서 인숙은
 말없는 추억에 잠긴다
 출발점은 언제나
 아름다운것에서 시작되나니...

제 2 장

처녀시절!
 건듯 이야기바람에도
 웃음방울 풀려풀려
 하얀이 보석처럼 반짝이던 시절이여!

노래도 꿈도 많은 때였다
 도고하고 량만에 찬 시절이었다
 총각들의 따름을 차갑게 대하면서도
 은근한 기쁨 차오르던 그 시절
 맑은 거울앞에서
 까만 머리를 빗어내리며
 무엇을 그려보고 소원했던가
 림름하고 의젓한 청년과 함께
 따뜻한 가정 꽃피우리라
 모두가 부러워하게 그렇듯 아름답게

그러던 어느날
 어제날 상급생오빠
 휴가온 중대장이 인숙이를 찾았다
 마음속 물음은 깊은 방아 찼더니...
 하건만 그 무엇도
 사랑의 걸음을 작게 할순 없는 법!
 두려움은 산처럼 막아섰어도
 동지애세계는 너무도 뜨겁고 진실하였다
 군인사택마을에 첫살림 편 그 나날에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산골짜 물소리 차츰차츰 속삭이고
 소쩍새 소쩍소쩍 고요를 흔들 때면
 남편의 군복을 다리며
 때없이 시계도 바라보며
 《밤이 펴 깊었는데...》
 가마속 밥그릇은 달랑달랑 애끓고
 마음엔 애정이 포옹포옹 솟는데
 출장간 아버지 기다리시던
 어머니 그 심정 비로소 느껴지는듯—
 어느날인가 남편이 물었다
 군관의 안해란 어떤 녀성인가고?
 《군관의 안해가 군관의 안해지요.》
 생각없는 그의 말에 남편은 말했더라
 내가 쓰러지면
 대신하여 기발들고 나갈줄 아는게
 군관의 안해라고—
 남편의 말은 나직했어도
 인숙의 충격은 컸다
 남편의 자리에 내가 설수 있는가

그때부터 인숙의 생각은 깊었으니
 군인가족녀인들의 앞장에 섰으니
 순간순간 위험이 검은 손을 후리는
 최전연초소에 선
 남편의 마음 혼돈적 없던 그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축산기지 건설하던 때
 힘들어 주저앉은 때도 있었다
 크게 일을 못해본 인숙이가 아니던가
 《내가 아니라도...》
 나약한 끈이 풀릴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심장에 불을 지피던
 중대정치지도원의 말

《투사들이 이겨낸 고난에 비하면
 이쯤한게 대수입니까!》
 병사들이 팔걸고 도와나섰다
 앞장에는 정치지도원의 웃음소리 높았다
 땀이 돋는 훈련장마다
 신선한 고기며 염소젖을 보내줄 때
 《우리 누이》
 《우리 중대장 아주머니》
 간격없이 찾고찾던 그 부름은
 고향이란 말과도 같이
 어머니란 말과도 같이
 가슴에 소중한 꽃을 피웠다...
 이 땅에 《고난의 행군》이
 몇년째 년륜을 새기고있었다
 영예군인남편과 함께
 인숙이 고향으로 돌아온때는—
 그러나 잊지 못할 산간역의 그날부터
 가슴속 채찍이 높기도 하더니
 원군길에 정성을 고이고
 위훈으로 부르는 편지도 쓰고...
 인민반의 한결같은 마음에 받들려
 인민반장으로 선거되던 날
 (내가 어떻게?...)
 주춤주춤 몇밤이 지나더니
 동일군들 격려가 힘을 주더니
 두팔걸고 일어서는 생각
 (나는 어제날 군관의 안해다
 인민반생활에서도 앞채를 메고나가기)
 이렇게 날과 날이 흘렀다
 동원마다 구슬땀 아끼지 않고
 동씨클무대에도 나서고
 찾아오는 기쁜 소식 함께 나누고
 피로운 하소연을 풀어도 주고
 이렇게 날과 날이 흘렀다
 말 못할 사연도 없지 않았거니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땃히고
 그때마다 동당비서 하던 말
 《어머니구실하기 쉽지 않지!》
 그러면 모든것이 내려가고
 자신이 민망스레 생각되고
 한결음한결음 자신을 다잡으며
 사심없이 진심을 바쳤다
 어느덧 인민반이 정을 주기 시작했다!

인숙이도 가정부인
 피복공장 다니는 시누이도 있었다
 화학공업대학생 시동생도 있었다
 구석구석 일들이 그의 손 불려
 땀이처럼 돌아도 가쁘련만
 불편한 시어머니 시중드는 그 모습
 잡곡밥도 덥혀 올려놓고
 추울세라 아래목에 잠자리도 퍼주고
 《딸보다도 낫구나!》
 자꾸만 곱씹던 시어머니
 시누이도 시집가며 하던 말

《오빠!형님을 잘 사랑해줘요!》
 배치받아 떠나며 시동생도 말했다
 《형수님!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부엌일을 도올라면
 나무라며 등떠밀며—
 아! 가장 어려울 때
 어려움을 잊게 한 너인
 이런 너인들이 이 땅에 있는 한
 가정의 화목은 시들지 않으리라
 우리의 대가정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제 3 장

새날이 푸른 웃음 들었다
 이른아침 마음도 건듯하다
 인민반이 떨쳐나
 아이들의 놀이터 꾸리는데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다
 해보지 않고서야 누가 알수 있을까
 반장이란 대가정의 맡겨드리
 선군생활문화모범가정으로
 인민반을 이끌어
 일터에선 남편들을 잘 돕도록
 자녀들교양에도 낯을 돌리게
 동녀맹사업에도 앞장서도록
 큰일 작은일 다 말아안고
 기쁜 일 피로운 일 다 듣고 보아주며—
 《우리 반장!》
 《우리 반장어머니!》
 정이 비낀 이 말이면 바랄것없는듯
 어느때나 밝은 인숙의 얼굴
 《안녕하십니까!》
 이른아침 조심히 문두드리는 마음
 다 리해하여주는듯
 세대주들 인사 각듯하다
 생활의 보람이란
 크지 않은것에서도 꽃이 피는 법!

이 아침도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광수어머니 성큼 들어선다
 사투리 진한 말이 방을 짹짹 울린다
 《이봄소! 반장! 우리 광수가
 아버지장군님을 만나뵈웠다오》
 동실한 어깨가 덩실덩실 춤을 출듯
 온 얼굴에 함박같은 꽃이 피었다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일어서며 손잡으며 눈이 빛난다
 기쁨을 들썩하니 고조시킨다
 《아니 글썽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었다오》
 하늘에 꼭 닿을듯
 생의 행복이 온몸에서 뿜긴다
 속상해서 찾아왔던
 수매소집 명아 어머니

《축하해요! 형님!》
 남모르는 걱정있어도
 이런 땀 제 일처럼 기뻐하는 그
 《광수 아버지도 좋아하겠구만요》
 빙그레 웃는 세대주반장
 광수 아버지 모습 눈에 보이는듯—

그날로 인민반에 특보된 이 소식
 속보판에 광수사진 큼직이 났다
 《인민반의 경사요!》
 서로서로 찾아드니 문도 좁아지는듯
 경사가 난 광수네 집
 여기서 모두 결의도 다졌다
 자식들을 광수처럼 키우자고
 원군사업에도 앞장서자고—
 인숙이의 호소는 불같은 호응을 낳았다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통하는 정이 진실할수록
 더하는 마음은 큰 산을 이루나니
 그 마음은 내물을 이루어 강을 이루어
 행복의 바다향해 뚝뚝 펼친다

인민반에 경사에 경사 겹쳤다
 졸업하는 자식들이 군복입었다
 인숙이도 딸 봄이를
 조선인민군대에 입대시켰다
 《봄이야! 이 어머니는
 광수 어머니가 부럽구나!》
 봄이의 다 자란 목소리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는
 자식들을 배웅하려
 온 인민반이 꽃수레 된듯
 《모두 광수형님처럼
 군사복무를 잘하거라
 날마다 집에서 인민반에서
 기쁜 소식 기다림을 잊지 말아라!》
 인숙이의 부탁은 모두의 심정
 《알았습니다!》
 맹세처럼 울리는 대답소리!
 인민반의 정성이 배낭가득 채워진다
 혁명가요 전시가요 노래수첩을
 손에손에 쥐여주는 인숙이
 병사가 드리는 인사마냥
 어느덧 기적소리 역두를 울린다
 왜 이 나라 어머니들은
 조국보위초소로 자식들을 보내는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초소에 세우며
 그렇듯 마음 놓는것인가
 조국보위초소!
 그곳엔 최고사령부가 있고
 이 나라 떳떳한 영웅들로 키워주는
 위대한 령장이 서계시기에
 기꺼이 웃으며 떠나보낸다

때로는 엄했더란다! 인숙은
 딸 봄이를 두고
 숙제보다 텔레비존을 먼저 마주할 때면
 농촌지원 아프다고 빠지려고 할 때면
 응석받이자식이 효자된적있었던가
 눈먼 사랑은 함정으로 되나니
 미국놈들의 잠꼬대전략!
 그것은 우리 새 세대들을
 변질제로 유혹하려 하나니
 어림도 없지! 우리 녀인들의 사랑은
 자식들의 억센 정신으로 심어진다
 전사자가족이 될수도 있다는
 비장한각오도 안고사는 인숙이
 자식이 쓰러지면 그 총을 잡고
 원쑤와의 결사전에 용약 달려나갈
 그런 마음 안고사는 어머니들 있기에
 이 나라 병사들은
 홀로 적후에서도 신념을 지켜
 장군님품으로 기어이 돌아왔다
 이 땅의 수백만청년들이
 거창한 창조의 기념비
 청춘의 정열로 일떠세운다
 숨죽은 공장들에 맥박을 잇고
 벌가득 부푼 이삭 가꿔가나니
 백번천번 죽을지언정
 천번만번 다시 일어나
 고난을 박차고 희망을 부르며
 그리움의 노래 높이
 위대한 조국을 생명으로 받든다

제 4 장

달빛이 창가에 물든다
 어두워서야 찾아온 부끄럼인가
 처음엔 불그스레 솟아올라
 구름을 헤치며 조용조용 움직이더니
 총총한 별들을 불러안으며
 다감한 녀인의 얼굴마냥
 복스러운 은빛을 함뱍 뿌린다
 공업도시의 성천강을 꿈길처럼 물들이며
 한낮에 수고많은 사람들의 단잠을
 소리없이 지켜주는 등불인가
 정겨운 눈빛 부드러운데
 바라보면 어느때나 마음은 정돈되고
 따듯한 정서가 다복다복 피어난다
 창가에서 돌아서는 봄이 아버지
 사진액틀속에 눈길 멈춘다
 안해와 함께 찍은 약혼식사진
 복숭아꽃처럼 피어웃는 안해는
 그 시절 추억을 속삭이는가
 세월의 흐름을 부정하는 증견자인양
 봄풀같은 젊음을 되새겨준다
 안해의 눈길따라 방안을 둘러보니
 어디나 알뜰함이 웃음뿌리고...
 위대한 장군님 찾아오셨던

금야강발전소군인건설자들을
 동너땀일군들과 함께
 원호품안고 찾아간 안해
 지원의 땀방울도 흘리고있을 안해
 집을 떠난지 며칠 되지 않았건만
 마치나 온 한해 떨어져있은듯—
 기다림은 멀고 가까움을 모른다
 늘 함께 있기에!
 그것은 상봉을 향해 잠들줄 모르나니
 기다림은 마중하는 눈빛이며
 애모쁜 그리움
 신상을 넘려하는 애람이었다
 순결하고도 깨끗한 뜨겁고도 열렬한
 진실한 기다림은 참된 인생을 꽃피우나니

원썬들의 도발을 꺾어놓는 전투에서
 그만 부상당했던 봄이 아버지
 한생을 혁명의 군복입겠다던
 그 맹세 초소에 남겨놓고 제대되던 날
 《우리 초소를 떠난다고 생각지 않아요》
 안해의 목소리였지
 어찌 잊으랴!
 프락의 앵두나무
 바자에 줄줄이 익던 빨간 구기자
 푸른 기운 흘러들던 방목의 아침
 하늘땅에 쨍쨍 대렬합창노래소리
 개울가 빨래터며 소쩍새소리—
 《봄이 어머니!

초소는 걱정마십시오》
 전우들이 경례를 하였지
 석별의 뜨거운 정 끊길줄 몰랐지
 그것은 헤어질수 없는 인정이었고
 잊을수 없는 사랑이었다
 가장 깨끗한 혁명적동지애였고
 그 무엇으로도 바꾸지 못할 의리였다!...
 이밤 생각은 가지를 뻗어
 밀물처럼 차올랐다간
 썰물처럼 물러나고—
 언제나 남편의 의사를 존중해준 안해
 마른 일 굶은 일
 그 작은 한몸으로 적시던 안해
 그 품에서 사랑과 행복의 첫문을 열고
 희망과 열정이 불타올랐다
 추억은 잠을 모른다
 잊을수 없는 숨결이기에
 그래서 사람마다 걸어온 자욱에
 한생의 달력을 엮고사나니
 문득 떠오른다! 봄이 아버지
 금야강발전소로 떠나기 전날 일—

《약을 꼭 잡춰야 해요!》
 두툼한 걱정이 실린 말
 새색시적 따뜻함이 동그랗게 살아있는
 안해의 어깨 다독이며

《어서 떠날 준비나 하오
 우리도 이젠 후방가족이 아니요!》
 언제나 돋보이는 미더운 남편
 가정의 화살표 똑바로 그어주고
 혹 가다 언성 높일 때 있을지언정
 뒤끝이 없고 대바른 남편
 집안엔 따뜻함이 깃을 접은듯

《참! 당신도!》
 창가엔 별들이 반짝인다
 초침소리 속삭이듯 울린다
 그 속에선 동통의 아픔 함께 나누며
 이마를 짚어주던 손길이 따뜻하다
 한술가락 두술가락 약을 떠넣어주던
 애끓는 눈빛도 보인다
 때로는 선생이 되어 지휘관이 되어
 힘을 주며 떠밀던 안해의 마음
 다른 녀인들보다 더 세심히
 명절처럼 온기 덥혀야 했으니
 영예군인의 안해—오인숙!
 쟁고쟁어 닳고닳은 약절구가 말해주리
 약탕관의 손잡이에 다 스며있으리
 친정처럼 병원을 드나들면서
 정성의 초불 더 밝게 태우던
 강직하고 굳센 그 정신은
 군복의 날지 않을 색깔이며
 계속 피는 꽃의 지지 않는 꽃향기!

《참! 당신도》
 기뻐도 먼저 찾는 부름이다
 파고들듯 피어나는 안해의 웃음...
 아! 사랑은
 엉망으로 꼬인 줄도 풀어버리고
 천리길도 한걸음에 잇게 해주며
 진길도 웃으며 헤쳐가게 하나니
 우리의 사랑은
 잃고서는 살수 없는 생의 전부이며
 아름다운 삶의 창조와 건설이다
 진정을 나누는 보충의 세계이며
 늠름을 모르는 열정의 불꽃이다
 ...이밤 봄이 아버지 잠을 잊었다
 영예군인공장에 절실히 필요한
 새 기술혁신안을 펼치여놓고
 밤가는줄 모르는 불이 붙었다
 태양절에 공장을 찾아오셨던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드릴 한마음
 불같은 열정으로 타고른다
 그 길이 안해앞에도 땀땀한 길이기에—

(다음호에 계속)

서정의 진실성, 깊은 철학적여운

- 서정시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고 -

박설란

흔히 좋은 시작품들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면서 자기의 모습을 뚜렷이 남기고있다.

그러면 서정시의 깊은 여운은 무엇에 의해 담보되는가.

서정의 문학인 서정시에서의 깊은 여운에 대해 논할 때 그것은 서정의 진실성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물론 서정시의 깊은 여운은 철저히 철학적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는 시의 종자탐구와 많이 관련된다. 그렇다고 하여 철학적깊이가 있는 종자를 골라잡기만 하면 철학적깊이가 보장된 여운있는 서정시가 저절로 완성되겠는가.

아니다. 아무리 의의있고 뜻이 깊은 종자를 골라잡았다고 해도 그 서정이 진실하지 못할 때에는 애써 골라잡은 종자도 꽃을 피워보지 못한채 그대로 묻혀버리고말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의 철학성은 형상의 진실성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문학작품에서는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철학성이 더욱 깊어지며 화폭속에 의의있고 심오한 사상이 구현되면 될수록 진실성이 더욱 철저히 보장된다.》

서정시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박호범 작)가 오래전에 창작되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철학적여운을 안겨주는 훌륭한 성과작의 하나로 되고있는것은이 시에 흘러넘치는 풍만한 서정이 너무도 진실하고 생동하기때문이다.

시를 읽어보느라 보면 보는 사람마다 자기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고 어머니에게 하고싶었던 자기들의 솔직한 심정을 시인이 대신 그대로 적어놓은것과 같아 자기도 모르게 시의 세계에 끌려들어간다.

어머니! 제가 편지를 씁니다
공을 세우기 전에는
문턱을 넘어서지 말라던 어머니에게
오늘은 훈장을 탄 기쁨에 못이겨
이 아들이 편지를 씁니다

언제 가면 철이 들겠느냐고 강에 가면 물이 깊다 근심하시였고

산에 가면 산이 험하다 걱정하시며
나를 늘 《첫째야》 하고 불러주시더니
입대하는 날 아침에야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던 어머니

...

얼마나 진실하고 솔직한가.

시인은 《시》를 쓴것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자기 심정의 울림을 적었다.

총잡고 초소로 떠나는 아들에게 공을 세우기 전에는 문턱을 넘어서지 말라던 어머니, 철없던 그 시절 강에 나가면 물이 깊다 근심하고 산에 가면 산이 험하다 걱정하시던 어머니, 늘 《첫째야》 하고 불러주시더니 입대하는 날 아침에야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시던 어머니—이 땅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평범하고 소박한 어머니의 모습이다.

이 평범하고 소박한 어머니의 모습속에서 사람들은 조국과 병사라는 숭고한 부름앞에 서게 된다.

늘 《첫째야》 라고 불러주던 어머니가 왜 입대하던 날 아침에는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었겠는가. 그것은 군복입고 초소로 떠나는 아들을 이제는 한집안의 철없는 아들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의 아들로 내세우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믿음과 기대였고 다심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된 모성애의 감정인것이다. 하기에 시인의 가슴속에는 평범하고 소박한 어머니의 모습이 이 세상 가장 귀중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자리잡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시인은 여섯번째로 습격에서 돌아온 아침 자기도 놀라게 큰 훈장을 받고보니 그 기쁨은 자꾸만 어머니에게로 달려간다. 그러면서 아직도 첫째로만 외우고계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끝이 믿어주시겠는가고 자기의 솔직하고 소박한 심정을 시에서 고백하고있다.

어머니앞에서는 백발의 아들도 응석을 부린다는 말이 있다.

가장 기쁠 때, 가장 슬플 때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를 그려본다.

시인의 가슴속에 새겨진어머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서정시는 어머니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감정에서 점차 심화되어 지난날에 대한 뼈아픈 추억으로 이어진다.

...

생각나시나요, 어머니
제가 월사금을 달라고 조르다가는
구리동전우에 백로지를 놓고 연필을 문다저
백개도 넘는 돈을 그려내던 그때를,
그럴 때면 그때마다 어머니는 늘
부엌으로 나가시여 소리없이 우시였지요
어머니, 편지를 자세히 보세요
훈장우에 종이를 늘려

훈장자리를 낸 이 편지를
다시 한번 더 보아주십시오

...

시에서는 나라없던 그 세월 우리 인민들이 겪은 식민지노예생활과 처지를 흰 종이우에 구리동전을 연필로 문다져 백개도 넘는 돈을 그려내는 하나의 작은 생활세부로서 생동하게 그려내고있으며 오늘은 조국을 위해 싸움터에서 위훈을 세운 병사의 기쁨과 긍지를 훈장우에 종이를 눌러 훈장자리를 낸 편지라는 세부와 대조시켜 노래하고있다.

여기엔 그 어떤 설명이나 사건라열이 하나도 없다.

오직 진실만이 있다. 진실을 떠나서는 인민의 그 어떤 사상감정도 대변할수 없고 더우기 작품의 철학적깊이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진실이란 언제나 생활의 본질적이며 전형적인 것속에 있다.

이런 진실한 사상감정은 현실생활에 튼튼히 발을 붙일 때라야 노래할수 있다.

시에 노래된 사상감정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못한가 하는것을 가려낼수 있게 하는것은 바로 인간들의 구체적인 생활이다. 그러므로 본질이 깃든 생활을 있는 그대로의 구체성을 가지고 그려내며 노래하는것은 작품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시인은 나라를 빼앗겼던 시기의 어린시절의 서정적주인공과 불타는 고지에서 조국을 지켜 미제침략자들을 쓸어눕히고있는 병사—서정적주인공의 대조, 흰 종이우에 찍힌 구리동전과 훈장의 대조로 시형상을 창조하여 심각한 극성을 안겨주면서도 서정의 진실성을 더욱 강하게 하여주고있다.

생활의 본질이 체현되어있는 구체적인 생활세부들을 극적으로 대조시키면서 서정의 진실성과 품위를 보장하는 바로여기에 이 시인의 남다른 재능이 있고 성실한 탐구와 사색이 있다.

시인은 시에 구체적인 생활감정으로 진실한 감정을 깔아줌으로써 병사의 가슴속에 소중히 새겨진 어머니모습은 바로 조국을 위해 바치는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의 원천으로 된다는 깊은 철학적여운을 안겨주고있다.

서정시는 《어머니가 기뻐하실 이 훈장/온 마을이 떠들썩할 이 훈장/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평범한 이 전사의 군공을 치하시어/전선으로 보내주신 이훈장》이라고 훈장이라는 구체적인 세부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라는 보다 폭넓은 사상감정을 일반화하면서 오늘은 하나의 훈장을 달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날에는 누이를 생매장하고 고향을 불태운 미제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넓어진 가슴을 훈장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가리라고 어머니앞에 맹세하고있다.

병사가 된 아들이 어머니앞에 다진 맹세를 지

켜가는 길은 침략자 미제와의 생사판가리싸움길이다. 때문에 이 길에서 뜻하지 않게 부상을 입수도 있고 가슴아픈 비보를 받아안을수도 있다.

시에서는 원쑤와의 격렬한 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졌을 때 어릴적에 늘 들으면서도 아픈줄 몰랐던 어머니의 꾸지람이 어서 일어나라는 뜨거운 목소리로 승화되며 멀리 있는 어머니의 손과 같은 전우들의 손길에 받들려있는 아들의 마음을 진실한 시적형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또한 시에서는 이 축적된 감정을 거쳐 원쑤의 폭격에 어머니를 잃고 당원된 소식도 전할 길 없는 피타는 분노를 안고 습격의 길 떠나는 아들의 마음의 맹세를 폭넓고 깊이있는 시적일반화로 폭발시키고있다.

끝맺지 못한 이 편지를 안고
받아줄 이 없는 이 편지를 안고
《어머니! —》 소리쳐부르니
하늘에 메아리치고
산발에 메아리치며
병사의 웨침을 조국이 받아와워주는

아, 위대한 당을 위하여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판가리결전의 길에 오르며
몸부림쳐 다시금 불러보는
어머니여!
어머니조국이여!

어머니앞에 다지는 병사의 맹세!

정녕 이것은 바로 고향과 조국앞에 다지는 맹세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장군님께 다지는 맹세인것이다. 이처럼 서정시는 조국을 지키는 길은 곧 자기의 고향과 사랑하는 어머니를 지키는 길이며 나아가서는 인간의 참된 삶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보위하는 길이라는 심오한 철학을 담고있다.

이와 같이 서정시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는 가장 처절한 조국수호전의 나날에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싸우는 병사의 심장의 노래를 사랑하는 어머니와의 혈연적紐대속에 어릴적부터 체험하고 느낀 구체적감정으로 진실성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깊은 철학적여운을 안겨주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1950년대의 영웅적 조국수호전은 세월이 흘러도 만사람을 격동시키는 뜨거운 심장의 노래를 낳게 하며 그것은 사회주의선군조국을 지키는 위대한 수호전으로 새 세대들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시의 생명력이 있는것이다.

시는 작품이거든 사상에술적성으로 하여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천만군민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우리 조국을 더 빛내이도록 고무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것이다.

이 시를 읽은 병사, 근로자들은 고향의 어머니에게 어린시절의 그추억과 함께 위훈을 세워 훈장란 그 소식이 담긴 편지를 쓸것이다.

서정시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의 주인공처럼...

들국화 시론일곱송이

김혜인

은गत 꽃 활짝 피어나는 봄날, 나는 여러 비전향 장기수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았다.

강사의 안내를 따라 조국해방전쟁사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여러 사적물들과 전시품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던 나는 영웅관의 한 사진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아니?!...)

포연에 그슬린 군복을 입고 밝게 웃는 처녀군관의 얼굴...

옥중에서 보낸 37년간의 지나간 나날 언제 한번 잊은적없는 그 처녀의 모습이였다. 너무도 놀라와 나는 그 처녀군관의 사진을 보고 또 보았다.

허구한 세월이 불시에 압축되어 준엄한 그 시절의 하많은 사연들이 어제런듯 삼삼히 나의 눈앞에 떠올랐다. ...

×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해 가을, 나는 련대병기과에서 새 중기를 받아올데 대한 임무를 받았었다.

두명의 전사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중 뜻하지 않게 꼬리를 밟은 적들을 단독으로 유인하다가 왼쪽장판지에 총탄을 맞게 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참을수 없는 아픔이 엄습해왔다. 처음에는 나무가지를 지팡이 삼아 찌죽찌죽 걸다가 그나마 췌버리고 종일 기였다.

울퉁불퉁한 돌서덜을 아득바득 허비며 기여온 탓에 손톱이란 손톱은 죄다 닳아지고 팔굽과 무릎팍은 시뻘겋게 벗겨져 피가 툭툭 떨어졌으나 나는 이를 사려물고 필사적으로 기였다. 출혈이 심한데다 여러날째 굶다나니 한치, 두치 가는 길이 그야말로 악전고투였다. 문득 영성한 소나무숲속에서 웬 군인이 허겁지겁 달려오는것이 보였다.

나는 허리뒤에 돌려찼던 수류탄을 뽑아 꼬리를 입에 물었다.

만일 적들과 맞다들리면 주저없이 자폭할셈이

였다. 때를 같이하여 맹렬한 폭격이 시작되였다.

불기둥, 먼지기둥이 타래쳐오르고 아츠러운 폭격기소리와 작렬하는 폭음이 대기를 전틀시켰다.

《피하세요!》

저의 가까와졌을 때에야 그가 녀군관이라는것을 알았다.

적 쌍발기 한대가 그의 뒤덜미를 덮칠듯이 낮추 내리꽂히고있었다. 푸루룩,푸루룩...적의 기총탄이 비발치듯 쏟아지는 순간 처녀는 번개같이 내 몸을 덮쳐눌렀다.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

한참만에야 눈까풀이 무겁게 들렸다.

처녀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나의 얼굴에 머물러있었다. 나를 몸으로 덮어 구원한 그 녀군관이였다. 머리칼 한오리 흘러내리지 않은 반듯한 이마, 약간 꼬리가 쳐들린 동실한 눈...

순간 번쩍 뇌리를 치는 생각!...

허나 눈앞은 안타깝게도 가물가물 흐려져왔다.

《심합니까?》

간호원이 다가온 모양이였다.

《화기성하되골절이예요. 창상이 너무 목다나니 화농이 심하게 번졌군요.》

《그럼...》

귀청마저 아물아물해졌다. 마취제니 패혈증이니 하는 토막말들이 간간이 들려오더니 그나마 모기소리보다 더작아지고말았다.

나는 분명 미궁속으로 빠져들어가고있었다. ...

우릉 우르릉...지축을 울리는 무한궤도의 구울음소리...

벌컥벌컥 열려지는 룽크들이며 펄펄 나뭇기는 공화국기발...

홀날리는 머리카락 ...열정에 넘친 몸짓...

《사랑하는 여러분...》샘물처럼 가슴속에 흘러들던 그 웨침...

문득 또 다른 속삭임이 도간도간 들려온다.

《메스!》

《검자!》

아픔이 느껴졌다. 불교쟁이로 꾸시는듯싶어 나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군의동지, 마취에서 깨어난것 같습니다.》
《할수 없어요. ... 환잔...견디여낼거예요.》
수술도구들이 움직이는 예리한 음향이 점점 커지고 아픔은 더욱 뚜렷해졌다.

《몇초만 ...몇초만 더...》

턱 귀에 익은,그러면서도 판세상에서 들려오는 듯 한 속삭임이 꿈결에서처럼 들려왔다. 나는 피나게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짚그랑!드디어 파편을 끄집어내여 유리그릇에 던지는 소리가 울렸다.

모진 아픔속에서도 안도의 미소를 짓는 처녀의 이마에 축축히 맺힌 땀방울이며 흰 위생복앞자락을 점점이 물들인 빨간 피방울이 류다르게 눈을 찢었다. ...

나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이다. 파사로운 해살이 환히 천막가에 비쳐든다. 어디선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싱그러운 들꽃향기가 솔솔 풍겨왔다.

슬며시 눈을 뜨니 중의견장을 단 군복을 가튼히 조여입은 너군의가 내 머리맡에 놓인 포탄꼭지에 들국화꽃뭉음을 꽂고있는중이었다.

반쯤 몸을 일으킨 나를 띄여본 너군의는 천막안이 환해지도록 미소를 지었다.

《뭘 잤어요?》

《예. ...》

그때에야 비로소 나는 너군의를 찬찬히 뜯어볼 수 있었다.

좁은 어깨, 상큼한 목... 끝이 보기좋게 까부라진 가쁜한 속눈썹밑에서 까만눈이 삼박거리고있었다.

그다. 그가 분명하다!

휘날리던 공화국기발...무한케도의 행렬...

나는 이 처녀를 해방된 서울거리에서 처음 보았었다. 두번째로 본것은 지난해 이맘때 단기군관강습을 마친 내가 여러명의 미배치군관들과 함께 현대지휘부에 얼마간 머무르고있을 때였다.

림시로 거처하는 군관침실앞에는 시원하게 뻗어간 개울이 있었다. 기상후면 의례히 이 개울가에서 몸을 씻곤 하는것이 우리의 첫 일과였다.

그날도 우리는 개울 한복판에 우르르 몰려서서 옷등을 벗은채 몸을 씻고있었다.

젊음의 상징인 울퉁불퉁한 근육들을 보란듯이 뽐내며 웃고 떠드는데 불쑥 나와 같은 의용군출신인 윤정학소위가 《쉴!》하고 소리쳤다.

익살군으로 소문난 그에게는 《입대포》라는 별명이 붙어있었다.

《거길 좀 보게.》

개울건너편 들판에 늘씬한 너군관이 서있었다. 군모를 쓰지 않은 짧은 단발머리에 자그마한 들꽃을 꽂고 한손에는 반들거리는 까만 가죽장화를 벗어들었다.

무엇을 찾는지 한참 두리번거리다가는 그만에야 땀발로 달려나간다.

《사단장동지 담당군의일세. 전쟁판에 보기도문 미인이야.

런대를 돌아보는 사단장동지를 따라 내려왔는데 오자바람으로 흥클한 우리 눈에 걸려들었지. 글썽 텅텅하기로 소문난 저 친구까지 때없이 바지주름을 세운다,목달개를 갈아댄다 하며 부산을 피우거던. 거들며보지도 않는 처녀앞을 지나갈 가슴설레는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야. 흥, 아무리 슬고 닭은들 호박에 줄 굶는다구 수박이 될가?》

와하하하—유쾌한 웃음판이 터졌다. 애매하게 《입대포》에게 걸려든 북쪽내기 소위는 불에 구운 방게처럼 낮이 새빨개가지고 능청스러운 공격자에게 물벼락을 들씩운다. 뽀얀 물보라를 튕기며 한바탕 물싸움이 벌어졌다. 젊음이 뿜어올리는 랑만과 열정은 랑혹한 전쟁의 포화도 결코 가리울수 없는 법이다.

나는 정신없이 개울건너편만 바라보았다.

뭔가 딱히 짝어말할수 없는 숨막히는 예감에 심장이 푹 멎었다가는 다시 후다닥 뛰기 시작했다. 어느덧 너군관은 기슭에 다달았다.

처녀의 가슴에는 간밤 내린 비에 끈게 씻기운 야들야들한 들국화꽃송이들이 안겨져있었다. 아마 철이른 들국화 몇송이를 꺾으려고 이른새벽부터 들판을 헤맨모양이었다. 차거운 개울물속에 한발을 성큼 내딛던 너군관이 불쑥 뒤로 물러섰다.

치마자락이 젖어들었던것이다. 처녀는 새벽에 건넌던 얇은 물목을 찾으려는듯 물가넙만 바라보며 우로 올라왔다.

한참만에야 맞춘한 곳을 찾았는지 살금살금 건너기 시작한다.

물싸움을 멈춘 총각군관들이 숨 죽이고 바라보는줄도 모르고...콜마다 물이 불어 개울물은 제법 빠른 물살을 이루며 흘러가고있었다.

그 물결을 타고 하얀것이 떠내려왔다.

누군가가 흘린 세면수건이었다.

재빨리 수건을 건져낸 처녀는 그제야 옷쪽으로 시선을 돌리다가 깜짝 놀랐다.

옷몸을 드러낸 한무리의 남성군인들이 자기를 뻔히 쳐다보고있지 않는가.

《어마나!》

그찰나 처녀의 손에서 미끄러져내린 들국화가 물우에 떨어졌다. 미처 어쩔새도 없이 거침없이 아래로 흘러가버린다. ...

금시 울상이 되었던처녀...바로 그 처녀군관이 지금 내앞에 서있었다.

《우린 3대대에서 군의보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에요. 소위동물 제때에 발견했기망정이지 하마트면... 동문 참 의지가 강하더군요. 수술이 잘됐어요.》

간호원이 군용밥통을 들고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동강이 났다.

《어서 드세요. 며칠째 굶었을텐데... 식사가 끝나면 곧 출발합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군의소지요.》

《안됩니다. 전... 중대로...》

너군의의 까만눈에 따뜻한 미소가 흘렀다.

《그 다리요? ... 소위 동문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다리를 잃는다는 그의 말에 나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확실히 그 녀자의 말과 몸짓 그리고 풍부한 표정에는 상대를 제압하는 그 어떤 힘이 깃들어 있었다.

출발준비가 끝났을 때 너군의가 나에게 담가를 가져왔다.

《누우세요.》

내가 선뜻 담가에 오르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처녀가 독촉했다.

《뭘 주저해요? 시간이 없어요. 적기들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쿠궁... 어디선가 둔중한 포성이 들려왔다. 군의가 독촉했다.

《어서 올라요. 소위 동무, 명령이에요.》

이쯤되고보니 꼼짝달싹할수가 없었다.

덩치 큰 사내를 들자니 얼마나 힘겨웠으랴. ...

게다가 나는 난생처음 처녀의 힘에 몸을 맡긴 지라 창황중에도 몸가짐이 부자연스러워졌다.

한날의 가을별에 구슬같은 땀방울들이 처녀의 가느다란 목으로 줄줄이 흘러내린다.

발걸음이 점점 떠졌다.

《제발... 날 내려놓소. ... 부탁이요!》

나는 애원하듯이 했다. 하지만 처녀는 두팔에 지그시 힘을 줄뿐이다.

순간도 놓지 않겠다는 무언의 대답앞에 나는 항거할 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여 나는 두 녀성군인이 든 담가에 실려 런대군의 소병동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최남순군의는 우리 호실 담당군의였다.

젊은이들이 모인 곳이라면 처녀들에 대한 평판으로 입이 닳기마련이다.

아무리 전쟁일지라도, 아무리 중환자호실일지라도 레외로 되지 않는다.

나는 무료함과 고독함을 달래기 위한 환자들의 심리는 리해되었지만 시시결렬한 잡담에는 일체 끼여들지 않았다.

허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며 금방 미인이 되었던 처녀가 《맹꽁이》로 혹은 《말팔랭이》로 몰리우기가 일쑤인 군의소처녀들에 대한 이야기장단속에서도 최남순군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선물만은 얼마든지 제격 골라들일수 있었다.

웅노에서 빠져나온 사나운 메돼지를 단방에 명중시켜 환자들의 식탁을 무집하게 했던 일이며 엄동설한에 얼음구멍이를 까고 그 많은 봉대를 깨끗이 빨아 말리운 가슴뜨거운 사연... 들을수록 아름다운 이야기뿐이었다.

《시비질》하기 좋아하는 군의소친구들조차 가식없이 칭찬하는 최남순군의, 과연 그는 나를 기억하고있을가? 아니, 기억은 고사하고 그지없이 경멸하고있을지도 몰라!

...거침없이 떠내려가는 들국화... 아연해서 혀덤비는 너군의...

무슨 정신으로 떠내려가는 들국화를 단숨에 따라잡았는지 자신도 몰랐다.

쫄쫄쫄, 물방울을 튀기며 여기저기 흩어진 들국화를 건져내느라 허위허위하는 꼴이 가관이였을것이다.

잠시후 물이 툭툭 떨어지는 들국화를 들고 개울가에 나온 나는 큰 너럭바위우에 꽃송이들을 올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채 황황히 달아뺐다.

《저, 동무...동무...》

처녀가 안타까이 불렀으나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심장이 무섭게 쿵쾅거렸다. 왜 그랬던가? 옷동을 벗고있다는 부끄러움때문였던가, 아니면? ... 이때 불쑥 《남순아, 뭘 하느냐?...》하는 목친부름이 들려오지 않았더라면, 당황한 처녀가 개울물을 건너차며 《네, 곧 나가요.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끝끝내 처녀쪽을 보지 못했을것이다.

분명 개울가 둔덕우에 장령복을 입은 사단장이 서있었다.

술진 장미가 세모진 눈우로 위엄스레 뻗어올라간 장령이 평시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따뜻한 눈길로 개울을 건느는 처녀를 세심히 살피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도 강가에서 노는 아이를 두팔벌려 부르는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러니 저토록 아름답고 매력적인 처녀가 적들이 《호랑이사단장》이라고 별벌 떠는 우리 사단장동지의 딸이었던 말인가?...

그날밤, 나는 마음이 산란하여 도무지 잠들수가 없었다.

나는 처녀를 알고있었다.

아니, 알고있었을뿐아니라 마음속으로 내내 그려왔었다.

얼마나 찾았던가, 얼마나...

하지만 진작 만나게 된 이 마당에 와서 왜 뺑소니를 쳤던가.

왜서 사내답게 툭 터놓고 통성하지 못했던가. ...

처녀는 나를 전혀 모르고있는것이다.

게다가 내놓고 알은체 할 마땅한 명분도 없지 않는가, 가슴이 바질바질 뚫었다.

그러는 사이 미배치기간도 다 지나가고 어느덧 고지로 떠나야 할 마지막밤이 왔다.

이리뒤척, 저리뒤척하며 궁뎥거리기만 하는데 불쑥 옆침대에 누운 《입대포》가 내귀에 대고 속삭였다.

《여보게, 상사병인가?》

《상사병은 무슨...》

《흥, 시치미 떼지 말게, 부엉이 눈은 속여두 내 눈은 못 속여.》

《?!...》

《한번 나서보라나?》

《됐네, 됐어. 잠이나 자자구.》

나는 꿈 하고 돌아누웠다.

어쩐지 약삭빠른 《입대포》에게 마음을 탐지당 한것이 부끄러웠다.

다음날 우리는 락타고지로 떠났다.

나는 1소대장으로, 《입대포》는 2소대장으로 함께 배치받아 가는 길이었다.

같은 의용군출신들이었으므로 하여 우리는 남달리 각별한 사이였다.

쌍봉우리가 마치 락타의 등처럼 솟아있다고 하여 누군가 락타고지로 명명한 고지에 도착하자바람으로 우리는 치열한 전투의 불도가니속에 휘말려들었다.

고지를 사수하기 위한 격렬한 싸움속에서 최남순군의에 대한 생각은 차츰 잊혀지고말았다.

그러던 어느날 무너진 참호를 보수하고있는 나에게 《입대포》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걸 보게, 글썽 여기에 이런 시가...》

와락 나꾸어췌 《전선신문》에 《전사의 위훈》이라는 시가 실려있었다.

나는 최남순이라는 세 글자에 정신없이 눈길을 박다가 한참만에야 시를 읽기 시작했다.

문학에는 영 감감이인 내가 열번나마 읽은 시니 더 말해서 무엇하랴. ...

그 순간 《입대포》가 철썩 무릎을 쳤다.

《그렇지, 뻔어. 좋은 수가 있단 말이야.》

나는 밀도끝도없이 히물거리는 그에게 의아한 시선을 던졌다.

《자네 그저 보기만 하면 되네. 이 〈입대포〉의 숨쉴 구경만 하라니까. 하하하...》

혼자서 왜 그리 좋아하는것인지 도대체 영문을 알수 없었다.

하지만 비밀도, 수수께끼도 시간문제인것이다.

얼마 안있어 나는 최남순군의에게서 날아온 친만뜻밖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그때에야 비로소 《입대포》가 내 이름으로 편지를 써보냈다는것을 알았다.

그야말로 입이 아니라 글로 《대포》를 쏜것이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는 자기의 시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준 《나》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고마움을 느끼고있었다.

낮이 확 돌아올랐다. 도대체 내가 시에 대해서 뭘 안단 말인가?

나는 당장 걷어치우라고 《입대포》에게 성내여 말했다.

그런 후에 처녀가 보낸 편지를 보니 이런 내용의 글이 씌여있었다.

《윤결동지, 동지의 편지를 받고보니 썩 오래전에 알고있은듯 한 친숙한 사람처럼 느껴지는것은 웬일일가요? 락타고지의 용감한 중대동무들도 말이에요. 아직 한번도 본적없는 소대장동무랑, 중대동무들의 모습을 그려보느라면 제자신이 막 미워져요. 난 도대체 뭘 하고있을가?

군복을 입고 어깨에 별을 달았다고 군인의 본분을 다하고있는건 아니지요.

저도 싸우고싶어요. 동무들처럼 속이 후련하도록 원썩들을 죽치고싶어요. 과연 제가 시 몇편을

썼다고 동지들의 축하를 받을만 한 자격이 있을까요?...》

처녀는 진심으로 호소하고있었다.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이렇듯 속을 터놓는다는것은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인츰 고지로 찾아오겠다질 않는가.

《입대포》의 입이 함박만 하게 벌어졌다.

나 역시 얼마나 기뻐던가.

하지만 고무풍선도 너무 높이 떠오르면 마침내 튼 터지기마련이다.

《이런 말을 하기가 괴롭지만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뻔 처녀의 편지가 또 날아왔다.

동무가 보내준 첫 자작시는 이름난 어느 종군시인의 대표작으로서 최근 여러 출판물에 발표된 우수한 작품이라는것, 그로 인해 실망을 금할수 없다는 내용이 숨김없이 피력되어있었다.

나는 문자그대로 깜짝 놀랐다.

《곰곰히 생각해볼수록 의문만 더해지는군요. 저의 시를 지나치게 과찬한거랑 저에게 정도이상의 관심을 보인거랑...

문학애호가라면 누구나 아는 성과작을 두고 어떻게 감히...

편지를 보내온 동무의 소중한 마음을 부정해버리기엔 제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올린 락타고지와 그곳 전사들에 대한 애착이 너무도 큼니다. ...》

나는 눈앞이 아뜩해졌다. 마음속에 고이 가려놓은 닭알난가리가 와르르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았다.

《용서해주게. 잘한다는 노릇이 그만...》

《입대포》는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입술을 놀렸다.

사연인즉 내가 굉장한 시애호가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웃중대 화선시인의 시첩에서 시 한편을 슬쩍 베껴가지고 그대로 처녀에게 보내는 편지에 옮겨놓았다는것이다. 그것도 내가 직접 쓴 자작시라고 말이다.

《걱정말라구, 내가 편지로 용서를 빌테니까.》

《그만두게. 이젠 끝났네.》

《뭘라구?... 그건 안돼! 이대로 자넌 협잡군으로 뇌물순 없단 말일세. 물론 그렇게 만든건 나지만...》 나는 거칠게 부르짖었다.

《뭇 들었나? 그만두게, 그만두란 말이야.》

나는 깨달았다. 우리를 애써 이어놓고있던 아름다운 한오리의 실이 몽청 끊어져나갔음을...

그것이 나의 가슴을 몹시도 아프게 했다.

편지는 끊어졌다. 그리고 처녀도 오지 않았다. ...

군의소에서의 한달은 빨리도 흘러갔다. 그동안 같이 지내보니 확실히 녀군의는 누구나 반할만한 그런 처녀였다.

퍼그나 세련된 외모는 물론 잘 다듬어진 언행이며 행동에 이르기까지 어느것 하나 흠잡을데가 없었다. 겉으로 보면 참하고 얌전한것 같지만 사

실상 너군의의는 도고한것 같으면서도 천진했고 세심한것 같으면서도 세웠다.

간혹 지나친 통치거리를 하는 실없는 부상병들에게 가시를 세우기도 했으나 그 쌀쌀함조차 내심에 안배된 지성과 잘 어울려 오히려 처녀의 매력에 더해졌다.

처녀는 들국화를 무척 사랑하는것 같았다.

이들에 한번씩 싱싱한 들국화를 꺾어 호실창턱에 놓인 꽃병에 꽂는것이 그의 어길수 없는 일과였다. 꽃병이라야 포탄각지로 된 화선식꽃병이었다.

창턱밑에 내 침대가 놓여있어 아침부터 들국화의 신선한 향기를 실컷 맡을수 있었다. 처녀의 체취가 그대로 풍겨오는듯싶은 들국화를 바라보느라면 왜서인지 저절로 마음이 즐거워지곤 했다.

어느날 아침 호실로 들어서는 군의의 손에 벌써 크고 새하얀 들국화꽃송이가 들려있었다.

《처음 보는 들국화군요. 어디서 꺾었습니까?》

《납작벼랑턱에서요. 어찌나 싱싱한지. ...》

《예? 납작벼랑턱에서요?! ... 그 위험한데 말입니까?》

아니게아니라 군복바지가랭이며 무릎에 채 지우지 못한 흙탕자국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처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듯 꽃을 갈아꽃으며 방긋 웃었다.

《이것 봐요. 꽃아놓은지 며칠 잘되었는데도 아직 생생해요. 들국화는 말이에요, 줄기가 곧추 서는게 특징이랍니다.》 하고 그는 누구에게라없이 설명을 달았다.

《얼핏 보면 같은 꽃인것 같지만 실지론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답니다. 우리 나라에만도 십여종이나 되는 들국화가 있으니깐요.》

《십여종이냐요?!》

처음 듣는 소리에 나의 귀가 항 열렸다.

《이름도 실상은 각이하답니다. 요건 말이에요. 별개미취, 가지가 갈갈한것은 까실푸른산국, 또 이렇게 흰칠한진 키큰산국... 이 중에서 향기가 센건 들향국화인데 통치국화라고도 부른답니다.》

나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야말로 들국화에 대해서는 막힘이 없었다.

혹시 전쟁전에 원예학을 전공하지 않았느냐는 나의 물음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전 의학공부를 했어요. 그저 들국화를 좋아하나다나니...》

나는 인츰 꽃병을 꺾기 시작했다. 너군의가 그로록 사랑하는 꽃을 더욱 아름답게 받쳐주고싶은 소박한 마음에서였다. 꽃병을 꺾는것때문에 간호원들의 눈을 피하느라 남모르는 애도 썼고 그동안 뜸했던 깎개질에 손을 बे기기도 했으나 마음은 늘 개인 하늘의 흰구름처럼 한껏 부풀어있었다.

꺾고 파내고 다듬기를 그 몇번... 드디어 꽃병은 멋지게 완성되었다.

《하 고것참, 다람쥐만 놈의 코수염까지 생동하게 살렸는걸... 어쨌든 윤결동진 이거야 이거...》

모두들 엄지손가락을 내흔들며 법석떠들었다.

살찐 다람쥐가 큰 잣송이를 껴안고있는 모양을 형상한 감쪽한 나무꽃병은 너군의의 두눈마저 휘둥그래지게 했다.

《어마나, 이게 누구 솜씨예요?》

누군가가 눈짓으로 나를 가리켰다.

《어쨌... 윤결동진 재간이 여간 아니군요.》

나는 처녀의 칭찬 한마디에 활짝 붉어진 얼굴을 숙였다. 세차게 흥떡거리는 심장의 울렁임을 모두가 듣는것만 같았다.

너군의에 대한 애뜻한 감정이 커갈수록 나는 더욱더 그를 외면했다. 그로록 마음속에 그리던 처녀앞에 선뜻 나서기에는 떳떳하게 해놓은 일이 없는것만 같았다. 지나간 일은 돌째치고라도 부상당한 꼴만 보이지 않았어도...

나는 퇴원하는 날까지 말 못할 이 모든 사연을 내심에 깊이 묻어두기로 작정했다.

어느덧 한호실의 친구들이 하나,둘 침상에서 떠나갔다. 조바심이 앞선 나는 새벽 일찌기 호실을 빠져나와 남들의 눈길이 덜미치는 곳에서 다리운동을 시작했다.

용감하게 쌍지팽이를 버리긴 했으나 생각처럼 걸음이 잘 나가지 않았다. 하루빨리 부대로 돌아가고싶은 불같은 욕망만이 불편한 걸음보다 훨씬 앞설뿐이었다. 단 몇걸음만에 비지땀이 등골을 적셨다. 문득 인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드니 새벽이슬에 함뼉 젖은 들국화묶음을 안은 최남순군의가 놀랍게 나를 바라보고있었다.

《어마나... 왜 혼자서...》

《군의동지, 빨리 걷고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처녀는 다급히 걸으로 다가왔다.

《윤결동지, 그럼 나와 같이하지요.》

나는 뚱깡거리며 조심히 발을 저거디뎠다.

아기의 첫걸음마를 익혀주는 엄마처럼 조마조마한 낮빛으로 뒤걸음치는 군의에게로 한달음에 달려가고싶었으나 그럴수록 발을 헛디디기가 일쑤였다.

《천천히... 덤비지 말아요. 다시!...하나, 둘...》

종시 다섯발자국만에 넘어지고말았다.

군의는 나를 일으켜세우며 타이르듯 말했다.

《보폭을 너무 크게 짚지 말아요. 자, 내가 이렇게 간격을 둘테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문득 처녀는 안고있던 들국화묶음에서 한가지씩 뽑아 간격을 맞추어 땅에 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이를 둘테니 밟으세요.》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 꽃이기에 내가 그걸 밟는단 말인가?... 내가 대체 그에게 뭐가 되게...

나의 속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처녀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일없어요. 동무가 하루빨리 걸을수만 있다면...》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어쩔수 없는 힘에 이끌려 나는 걸음을 땀다.

한발자국, 두발자국...

이때 등뒤에서 석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좀 쉬고 하렴.》
돌아보니 어깨에 큰 벌을 단 장령이 서있었다.
기쁨에 넘친 너군의가 나는듯이 그에게로 달려갔다.

《사단장동지, 중위 최남순 환자치료를 위해...》
《됐다, 됐어. 여기 있는걸 한참이나 찾아 헤맸구나. 어서 군의소엘 가봐라. 빈손으로 올수 없어 의약품이랑 좀 가져왔는데...》

말을 채 맺기도 전에 처녀는 쿵쿵뼉을 하였다.
《그렇잖아도 의약품이 모자라 걱정이었는데... 고맙습니다. ... 그럼 전...》

《자식두...》
새처럼 포르릉 달려가는 너군의의 뒤모습에서 대견한 눈길을 떼지 못하던 사단장이 문득 땅바닥에 떨어진 들국화를 집어들었다.

술진 장미가 꿈틀했다.
《들국화로구만.》
《예, 보폭간격을 만드느라구 군의동무가...》
나는 말끝을 맺지 못했다.

들국화를 바라보는 사단장의 눈에 류다른 섬광이 스쳐지나갔던것이다.

《부상병동무, 여기 와 앉으라구. 내 오늘 동무에게 얘기 한마디 해줄가?》

감회에 젖은 사단장의 목소리에서 나는 뭔가 의의깊은 이야기를 듣게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해방후 어느 가을이었소. 그때 난 우리와 함께 항일전에 참가했다가 희생된 두 동지들의 딸을 집에 데려가기 위해 갓 설립된 만경대혁명학원으로 찾아가게 되었소. 기숙사호실이 텅 비어있길래 교실에 찾아가보니 글쎄 내가 찾는 그 소녀가 창결에 오도카니 앉아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고있는게 아니겠나. 불쑥 눈물이 솟구치겠지.

《야야, 널 데리러 왔다. 이 아저씨와 함께 집으로 가자꾸나.》

열댓살 뻘직한 소녀가 눈물이 가랑가랑한 눈으로 나를 뵈듯 쳐다보더군.

《제집은 여기예요. 그런데 아저씨 누구냐요?》

《너의 부모님들과 함께 싸운 전우란다.》

그랬더니 소녀가 눈물을 씻으며 《그럼 아빠, 엄마묘를 알겠군요. 아저씨, 저를 부모님묘에 데려다주세요. 아무도 몰라서 그래요.》 하질 않겠나.

이런 변이라구야. 국내공작을 나왔던 그 애의 부모는 일제의 포위속에서 서슴없이 자폭의 길을 택했거던.

차마 시신조차 남기지 못했다고 말할수 없어 잘 모른다고 둘러댔지만 소녀는 막무가내였어.

《아저씨 우리 아빠엄마의 전우라고 하지 않아요. 어서 데려다주세요, 예? 아저씨!》

난 더이상 소녀의 눈물겨운 청을 저절할수가 없었소. 그래서 떠났지.

우리 집이 아니라 수백리 떨어진 옛 격전장으로 말ियो. 차를 세우고 한참이나 수림속으로 걸어들어간것 같소.

나지막한 언덕에 이르렀을 때 황홀하게 펼쳐진 저녁노을이 산과 들을 감빛으로 물들이고있었소.

그 아름다운 노을속에 잊지 못할 싸움터가 고요히 불타고...

나는 불그레한 노을빛속에 평온히 드러누운 무연한 들판을 가리키며 소녀에게 말했소.

《바로 여기다.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우리 일행은 갑자기 적 <토벌>대와 맞다들리게 되었지. 나와 한 대원이 부상을 당하게 되자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진드기같이 추격해오는 놈들을 이곳으로 유인하다가 끝내... 포위에 들게 되었다.

적들은 투항하라고 고아대며 점점 포위환을 좁히고... 최후의 순간, 두분은 꼭 그러안고... 마지막수류탄의 안전고리를... 안전고리를 뽑았어. ... 우리가 가까스로 기여갓을 때 <김일성장군 만세!> 소리에 뒤이어 요란한 폭발소리가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

소녀는 화석처럼 굳어져있었소. 눈물 한방울도 없이... 지그시 들판 한끝을 바라보더니 그만에야 막 달려가는데 아니겠소.

모든 풀잎이 말라버린 들판에, 부모님들의 피와 땀이 뿌려진 그 무연한 들판에 곳곳이 피어있는 들국화꽃송이들을 향해서 말ियो.

소녀에겐 무덤조차 남기지 못한 부모님들의 땀이 그 들국화가 되어 다시 피어난거라고 생각된것 같았소.

소녀는 한송이, 두송이 정성껏 꽃을 꺾기 시작했소. 한아름이 넘는 들국화를 안고서야 나에게 다가오더구만.

노을빛속에 붉게 타는 들국화는 참으로 아름다웠소. 방울방울 떨어지는 소녀의 깨끗한 눈물이 연연한 꽃잎우에서 구슬처럼 평롱하게 반짝이고있었소.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많이도 사랑했던 꽃이었소. 따뜻한 봄날에는 보이지 않다가 잎이 지는 가을에야 소문없이 피는 꽃, 남들이 다 보는 길녘이 아니라 거친 들판에서 찬서리가 내려도 꽃이 피어있는 들국화처럼 그의 부모님들은 해방의 그날을 위해 자신의 피와 목숨까지 서슴없이 바쳤던거요.

나는 걱정에 사무쳐 이런 말들을 두서없이 그에게 했던것 같소.

소녀는 들국화를 가슴에 꼭 그러안으며 와락 내 품에 안기더군.

그리고는 소리내어 울었소. ... 소리내어...》

사단장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끊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주름깊은 눈에서 뜨거운것이, 송엄한것이 빛발쳐왔다.

내가 코멘 소리로 물었다.

《혹시 그 소녀가 최남순군의동무가 아닙니까?》

사단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남순인 내 친딸이 되었소. 희생된 전우들이 말기고 간 단 하나의 혈볼이를 늘쌍 곁에 두고싶었지만 본인은 막무가내더군.

1차남진때 군복을 입고 갓 해방된 서울에 나갔

는가하면 재진공편 전방치료대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지.

명령서를 떨구어 사단장담당군의로 겨우 붙들어들만 하니 어느새 떼를 써서련대군의소로 달아났거든. ... 아무래도 난 그 애와 같이 살 팔자가 못되는가보오. ... 허허허...

사단장은 웃었으나 나는 웃을수가 없었다.

크낙한것이 심장속에 흘러들며 가슴이 무죽해졌다. 나는 들판에 떨어진 들국화를 조심히 거두기 시작했다.

한송이, 두송이... 정성껏 모으는 그 꽃송이들이 지나간 가지가지의 사연들이 어려오는듯...

개울가의 들국화... 호실의 들국화... 그리고 들판의 들국화...

무심히 보아오던 들국화가 그토록 류다른 모습으로 심장에 깊이 새겨지기는 난생처음이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나는 건강한 몸으로 군의소를 떠났다.

하고싶은 말, 하지 못한 말이 가득가득 차있었으나 변변히 입밖에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아니, 그토록 소중한 말들은 입으로 하는것이 아니였다.

작별의 시각 고개너머 멀리까지 따라나와 나를 배려해주는 너군의의 량손에 싱싱한 들국화꽃뭉음이 들려있었다.

머리우로 손을 흔들 때마다 연연하고 아름다운 꽃잎들이 춤을 추듯 한들거렸다.

아, 들국화!...

여섯번째로 적의 반공격을 물리친 고지에 남은 사람은 13명뿐, 그나마 태반이 부상자들이였다.

어지간히 큰 지도에조차 작은 점으로도 표기되어있지 않는 이 고지를 빼앗으려고 적들은 혈안이 되어 미쳐날뛰었다.

나는 반나마 무너진 흉장에 기대앉아 솟돌대용으로 쓰는 자그마한 바위에 대고 총창을 갈기 시작했다.

문득 《입대포》가 내곁에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다.

《찾았나?》

나는 띠처럼 생긴 흰 천조박들을 내밀었다.

《나눠주게. 저물녘에 적들이 달려들지도 모르니 야간육박전을 위해서 식별표식을 미리 해두는게 좋겠네.》

나는 식별표식을 조심히 쓸어만졌다.

《이제 단벌속내의를 찢었구만, 마가을추위가 시작되는데...》

《내 걱정은 말구 조금만 극복하자구.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말이네.》

증원부대?... 정말 증원부대가 오가?...

어쩌면 마지막전투가 될런지도 모른다.

중대장도 전사하고 1소대장인 나에게 고지를 끝까지 사수해야 할 무거운 임무가 맡겨져있었다.

나는 총창을 왼 손에 힘을 주었다.

쓰룩, 쓰룩... 쇠불이가 돌과 쓸리는 예리한

마찰음이 귀전을 울렸다.

《입대포》도 말없이 총창을 갈았다.

침묵... 무거운 침묵...

느닷없이 내가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여 2소대장, 언제부터 한번 묻자던건데 자넨 어떻게 되어 군대에 나왔나?》

《나? ... 그야 뭐... 전쟁전부터 공화국정권을 끝없이 동경해왔거든, 무상으로 땅 주구... 마음껏 배우고 일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어찌 꿈에선들 그리워하지 않을수 있었겠나.》

그래서 인민군대가 우리 고향을 해방하자마자 제격 의용군에 탄원했지. 자넨?...》

그는 뿔 새삼스럽게 묻느냐는듯 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 말인가?... 이런 말은 처음 하는데... 난 말일세, 솔직히 말해서... 한 처녀때문에 인민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네.》

《?!...》

나는 몇번씩 갑작라가며 비교적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 서울 가까운 농촌마을에서 머슴군의 아들로 태어났지. 해방전엔 일제의 학정밑에서, 또 해방후엔 미제와 리승만피괴역도의 통치밑에서 어느 하루도 기를 펴고 살지 못했지. 무슨 고생인들 없었겠나. 품팔이, 인력거끌기, 목수질...》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6.28서울해방을 맞게 되었지. 그날 나는 서울시가로 입성하는 인민군땅크부대를 맞이하려고 서울광장으로 몰밀듯이 쓸어가는 환영인파에 섞여신발 한짝이 벗겨진줄도 모른채 종주먹을 부르짖고 달려갔네.

여러 거리들과 골목들을 거쳐 돈화문거리에 이르니 사방에서 만세의 함성이 울려오는데 의정부와 련결된 성북구, 종로구에서도 만세소리는 그칠 줄 모르더구만.

어느결에 만세를 따라불렀던지 지금도 잘 기억나지 않아.

그저 가슴을 들먹이며 목이 쉬게 웨치며 인파에 떠실려 서울광장에 이르니 괴뢰 〈중앙청〉 지붕 위에 공화국기가 펄럭이고있더군.

바로 그때 〈인민군대다!〉 하는 반가운 웨침이 울리고 거대한 무한궤도행렬이 광장을 드르릉 울리며 거침없이 구울러왔네.

뽕안 먼지를 안개마냥 날리며 위풍당당히 들어오던 선두땅크가 우리앞에서 똑 벗어나는데 그 뒤로 걸어오던 인민군대렬속에서 한 너군관이 뛰여오더니 멈춰선 땅크에 오르는게 아니겠나.

너군관의 어깨에는 별 한알이 반짝이고있었네. 꼭 맞게 군복을 조여입은 처녀는 참으로 생신하고 탄력있어보이더군.

또 표정은 얼마나 부드럽고 청순해보이던지...

수천수만쌍의 눈동자들이 바라보는데 조금도 당황함이 없이 미소를 지으며 그는 이렇게 웨치는 것이었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인민군대가 서울

을 해방하였습니다.

공화국동포들과 인민군병사들의 뜨거운 인사를 받아주시시오.

그동안...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습니까?)

순간 처녀의 격정에 넘친 목소리를 삼키며 열광적인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네.

너군관의 눈가에서 반짝이던 그 눈물, 바람에 흩날리던 머리카락, **김일성장군**님의 부르심따라 조국보위성전에 펼쳐나서야 한다고 하던 그 열렬한 호소...

그 호소에 감동된 열댓살쯤 돼보이는 거지애가 불쑥 물었지. **김일성장군**님을 뵈온적이 있느냐구 말이야.

그러자 서울거리에서 온갖 수모를 다 받으며 자라온 그 거지애들 가까이로 다가온 너군관은 그 애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자기도 부모없는 고아였다고, 해방이 되어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겨서야 이렇게 만경대혁명학원을 졸업하고 군관이 될수 있었다는데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니겠나.

그러면서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남북 겨레모두가 안겨살 진정한 아버지의 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가혹한 세상에서 눈물조차 모르고 길가의 막돌처럼 버림받으며 살아온 나의 눈가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게 아니겠나. 나뿐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고아들모두가 너군관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나네.

정말 그 너군관은 나의 가슴속에 조국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새겨준 인생의 은사나 다름없었네.

나의 가슴속에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세워주신 공화국을 지켜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갈 각오가 부지불식간에 불타올랐네.

어느결에 의용군초모소로 달려갔던지... 그리고는 무작정 땅크부대에 받아달라고 떼질했지. 땅크병이 소원이라고 말이야.

헌데 땅크병은 되지도 못하고 남으로 남진의 길에 올랐네. ...

질풍같이 남진의 길을 달리는 전투의 나날속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았지만 쉽사리 나타나지 않더구만.

그러다가 뜻밖에 만난것이 바로 그 런던지휘부의... 개울가에서였네.》

《입대포》는 목젖을 꿈틀거리며 다우쳐물었다.

《그러니 최남순동무가?...》

《그래, 운명이 우리를 마주세웠지. 군의소에서 병력서를 정리하던 날 김운걸이라는 이름을 적으며 그가 몹시 놀라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혹시 고향이 서울이 아닌가고 묻기에 북쪽이라고 얼버무리느라 얼마나 진땀을 뻘뻘 흘렸는지, 허허...》

《용서하게, 나때문에...》

나는 축 처진 《입대포》의 어깨우에 한팔을 올려놓았다.

《왜 자네탓이겠나. 그토록 마음속에 그리던 처녀앞에 땀땀이 나설만 한 위훈도 없이 부질없는

편지놀음을 시작한 내탓이지 뭐야.

더우기 사단장동무에게서 군의동무의 가정래력을 듣고난 후엔 처녀의 존재가 얼마나 아득해보이는지... 에익, 이불깃 보구 발 퍼랬다구 암만 생각해두...》

《왜 짝이 기운다고 그러냐?... 자네야...》하고 《입대포》가 막 심중을 토로하려는데 갑자기 자지러진 총소리가 들려왔다.

쌍안경으로 전방을 본 내가 《2소대 고지중턱으롯!》하고 웨친것은 다음순간의일이다.

《입대포》는 총창을 비껴들고 단숨에 고지중턱으로 달려갔다.

얼마후 적들의 사격권내에 든 아군을 엄호하여 무사히 교통호에 들어섰을 때 나의 두눈은 배로 커졌다.

뜻밖에도 무거운 담가를 든 녀성군인들속에서 최남순군의의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너군의는 침착하게 전보본 한장을 내밀었다.

《수성천앞. 동무들의 전투성적을 높이 평가함.

세시간만 더 견지할것, 곧 증원부대를 보내겠음.

부상병들은 군의동무에게서 치료받을것. 대령장》

너군의는 담가를 가리켰다.

《탄약이에요. 부상자들은 어디 있어요. ?》

찢기고 터지고 굵직한 부상병들을 처치하고난 군의는 마침내 나에게로 다가왔다.

뜨거운 시선이 엇갈렸다.

《고맙습니다.》

가슴속엔 불길을 품어도 말소리는 왜 그리도 딱딱하고 메말랐던가.

《개자식들, 숨돌릴틈도 주지 않는군. 군의동무! 중상자들을 부탁합니다. 어서 떠나십시오.》

군의는 나를 뻔히 쳐다보았다. 마주보는 그 눈빛에서 이상한 광채가 번뜩이였다.

《전 안 갑니다, 못 가요. 남아서 함께 싸우겠어요.》

《안됩니다. 동무의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땅크까지 앞세우고 게바라오르는 적들의 공격서열에서 쌍안경을 떼며 단호하게 잘라냈다.

하지만 군의도 고집스러웠다.

《모두들 부상당한 몸으로 싸우는데... 전 다 알아요. 세시간을 더 견지하기 전에 모두가 희생될수도 있다는걸... 제 몸은 성성해요.》

처녀의 진정을 어이 모르랴. 하지만 나는 무턱대고 어성을 높였다.

《동무의 임무는 전호에서 싸우는게 아니라 부상병들을 살려내는겁니다.

그래 전투가 끝날 때까지 저 중상자들의 목숨이 붙어있으리라고 동무가 과연 장담할수 있습니까?》

군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윽고 쳐드는 그의 눈가에 맑은것이 가득 맺혀있었다.

《아니예요, 아니예요. 전...》

처녀는 뒤걸음쳤다. 마음속에 흐르는 뜨거운것

을 씹어삼키며 나는 더듬더듬 말했다.
《그리고 제가... 제가 바로... 〈가짜시인〉 김운
절입니다. ... 용서하십시오... 모든것은...》

처녀는 나의 말을 다급히 가로챘다.
《알아요. ... 전 이미... 동무에게 면회왔던 중대
동무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언제부터 오고싶었던 고지였는데... 늦게나마
약속을 지키고싶었어요.》

《있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나는 재차 《1분대장!》하고 짧게 명령했다.

《이 동무들을 엄호하십시오.》

처녀는 돌아섰다. 과연 이렇게 헤어져야 한단
말인가.

가슴은 도화선심지처럼 빠질빠질 타들어가건만
나의 입술은 자물쇠를 채운듯 했다.

휘친거리며 몇발자국 옮기던 처녀는 무슨 생각
이 났는지 다시 나에게로 달려왔다.

이윽고 불같은 속삭임!

《기다리겠어요. ...》

갑자기 생각난듯 처녀는 품속에서 손수건을 꺼
내 적탄알이 스쳐지나가면서 생긴 나의 팔에 난
상처를 조심스레 싸매주었다.

티없이 순결한 처녀의 마음처럼 새하얀 손수건
에 들국화 한송이가 정히 수놓아져있었다.

나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처녀는 천만가지 사연이 담긴 눈빛을 남기고
내결을 떠나갔다.

중상자를 실은 담가를 들고 고지를 내리는 그
의 모습을 나는 오래도록 바라왔다.

(고맙소. 남순이, 동무의 부모님들과 같은 항일
의 투사들이 피로써 찾은 내 조국을 어찌 한치인
들 적들에게 빼앗길수 있겠소. 나도 한송이의 들
국화가 되고싶소.)

멀어져가는 너군의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
한채 한손에는 총가목을, 다른 손에는 들국화손수
건을 꼭 틀어쥐고 나는 큰소리로 힘있게 웨쳤다.

《중대 전투준비!》

×

너강사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공화국영웅 최남순동지입니다. 싸우는 고지
에서 군의보장을 하다가 달려드는 적땅크를 육탄으
로 까부시고 22살의 꽃다운 생을 마쳤습니다.

그때가 바로 전승을 한달 앞둔 1953년 6월이
였습니다.》

나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감옥생활의 긴긴 세월 얼마나 사무치게 그러보
던 귀중한 사람이었던가.

철창을 으스러지게 움켜잡고 목매여 불러보던

그 이름...

바로 그가 아득히 높은 삶의 절정에서 웃으며
나를 반기고있었다.

나는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색날은 손수건을
꺼내들었다.

반생이상을 감옥에서 흘려보낸 우리 비전향장
기수들에게 무슨 변변한 재산이 있었으랴만 그래
도 조국으로 들어올 때 저마끔 귀중품들을 꾸렸
었다.

거기에는 옥사한 동지의 가족사진도, 온넛으로
그린 소나무그림도, 지리산언덕의 사연깊은 한줌
흙도 있었다. 내가 가져온것은 이 손수건 하나뿐
이었다.

50여년... 결코 짧지 않은 시련의 그 세월 한시
도 떼어놓은적 없는 들국화손수건!

나는 처녀의 체취가 그대로 스며여있는 이 손
수건에 매해 7월 27일을 맞으며 수인복혼술에서
뿔아낸 실오리로 한뼘두뼘 정성껏 꽃잎들을 수놓
았다.

시원이 없는 강물 없고 오늘이 없는 래일이 없
듯이 뿌리가 없는 신념이 어데 있으랴. ...

나의 의지가 되고 기둥이 돼준 들국화손수건!

서른일곱송이의 들국화를 더듬더듬 쓸어만지려
니 불현듯 목이 껍 메여오른다.

(받아주오, 동무가 그리도 사랑하던 들국화요.
총포탄이 울부짖는 고지에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안겨준 그 들국화 한송이로 오늘은 서른일곱송이
신념의 꽃을 피워가지고 이제야 찾아왔구려.

그리웠소. 못견디게 보고싶었소, 남순이!)

앞가슴에 단 금별메달을 적시며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너강사도 비전향장기수들도 붉어진 눈시울을
닦았다.

하건만 사진속의 처녀는 그냥 웃고있었다.

꺼질줄 모르는 영생의 미소를 간직한채 영웅은
분명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들국화는 말이에요. 줄기가 곧추 서는게 특징
이랍니다. ...믿었어요.

이렇게 땀땀이 만나게 되리라고... 난 지금 더
없이 행복해요!)

나는 어깨를 떨며 손수건에 얼굴을 묻었다.

뜨거운것이 손수건을 적시였다.

불같은 그 눈물에 젖어 더욱 선명하게 안겨오
는 사연깊은 꽃송이들이 기쁨에 겨워, 행복에 겨
워 설레이는것만 같았다.

한송이, 두송이... 서른일곱송이...

어찌 서른일곱송이에서 끝났다고만 하랴.

앞으로도 나는 계속 피어나갈것이다.

천송이, 만송이 영원토록 지지 않을 내 마음의
들국화를...

《송석원시사》

윤동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정한 역사적시기에 같은 미학적원칙에 의거하여 활동한 창작가들의 창작경향은 하나의 공통된 문예사조를 이루며 그에 기초하여 창작방법이 생겨난다.》

《송석원시사》는 18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천수경, 장훈 등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평민시인들의 한자시단체이다. 당시 이 단체는 일명 《옥계시사》, 《서원시사》, 《시사》, 《송석화》 등으로 각이하게 불리웠다.

물론 이단체는 처음부터 조직적인 성격을 띠고 발족한 문학단체는 아니였다. 그러나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고 창작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 시기의 문학발전에서 무시할수 없는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송석원시사》는당시 평민계층이 많이 거처하고 있던 서울 서촌 필운동, 옥인동일대에서 발족하였는데 이 지역은 원래 평민문학의 깊은 토대가 마련되어있던 곳이었다.

18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평민출신의 시인 정래교(1681—1757)는 자기의 문집 《완암집》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백련동이서로부터 필운동에 이르는 구간은 대개 가난하고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있다. 그러나 왕왕 의리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기를 가지고 서로 사귀어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며 남의 곤난과 불행을 잘 돌봐주고 시인문사들이 시절에 따라 자연을 찾아가서 시를 읊어 작품이 많은것을 자랑하고 아름답기를 다투니 어찌 풍기가 이렇게 시킨것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서울 서촌일대에는 평민출신의 시인들이 많았으며 그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자주 왕래하면서 창작활동을 진행하였다.

18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평민시인들의 창작활동이 보다 적극화되고 창작수준도 높아지면서 평민들의 한자시창작은 일대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다.

위규(1727—1798)가 《존재집》에서 《인왕산 밑에는 시에 능한 사람이 매우 많다.》고 쓴것은 평민시인들의 한자시창작의 양양된 실태를 그대로 말해주는 실례라고 할수 있다.

《송석원시사》는 평민시인들의 한자시창작의 이러한 현실에 토대하여 형성되었다.

《송석원시사》의 형성과 발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것은 천수경과 장훈이다.

천수경(7—1818)은 자를 군선, 호를 송석도인이

라고 하였는데 신분이 천한것으로 하여 벼슬을 지낸것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리향견문록》에 의하면 그에게는 아들 다섯이 있었는데 첫째는 송, 둘째는 석, 셋째는 족, 넷째는 과, 다섯째는 하라고 불렀다고 한다. 여기서 송과 석은 지명을 딴것이고 족은 아들이 셋이면 만족하다는 뜻이며 과는 지나치게 많다는 뜻이고 하는 자식이 이렇게 많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는 한탄의 뜻이었다. 자식들의 이러한 이름에는 천수경의 시인으로서의 해학적인 기질과 가난한 살림에 자식까지 많은것을 한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던 그의 가정생활상태가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천수경은 당시 옥인동이라고 부르던 서울의 인왕산밑 옥계천가에 집을 짓고 동료들과 함께 시도 짓고 시부를 논하기도 하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사람이 비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의 집이 있던 옥계천가는 큰 소나무와 오랜 바위들이 많은 경치 수려한 곳이었다. 그는 여기에 정자를 짓고 추사 김정희가 써준 《송석원》이라는 현판을 달았으며 거기서 평민출신의 동료들과 함께 창작활동을 진행하였다.

《송석원시사》의 송석원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유래된것이였다. 이 《송석원시사》에는 거의 매일 같이 수십명 때로는 수백명의 평민시인들이 모여 시창작으로 성황을 이루었는데 그에 대하여 위규의 《존재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아, 송석선생(천수경)은 옥계근처에 살면서 스스로 글과 력사를 즐기고 름근마을의 뜻을 같이 하는 선비들과 매일 서로 왕래하며 장송로석에 모여서는 반드시 시를 짓곤 하니 글이 천을 이루매 이것이 시사를 이룬 정형이다.》

천수경은 이처럼 평민한자시단의 형성에서 핵심적역할을 한 인물로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19세기에 활동한 류재건(1793—1880)의 《리향견문록》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아이, 어른 할것없이 송석회사람들을 모르면 그것을 수치로 여기였으며 량반문인들도 이 시사의 중심인물인 천수경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존대하였다고 한다.

《송석원시사》의 형성과 발전에서 천수경이 논 역할은 무엇보다도 평민문학의 양양된 현실에 토대하여 의도적으로 처지가 같은 시인들로 시단을 뭉고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한것이다.

그는 시 《구월 아흐레날 모여 놀며》에서 자기가 무엇때문에 평민들끼리 모여앉게 되였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주인도 손도 베퉴 못한 사람끼리
 국화를 벗 삼으며 란초를 또한 찾네
 그릇이 너무 커서 버림을 받았나니
 세월은 나무잎 죄다 지는 철이구나

...

언약만이 소중해서 우리 모였으랴
 뜨거운 우정으로 찬 세상 녹이고저

...

보는것처럼 천수경은 명백한 평민적자각에 기초하여 모순된 현실과 담을 쌓고 《뜨거운 우정으로 찬 세상을 녹이고저》 의도적으로 경향적인 시단을 형성하였다.

가난속에 살아가는 어려운 살림에도 뜻만은 굽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 있도록 인왕산 밑에 《송석원》이라는 정자를 일떠세운 천수경의 소행은 찬양할만 한 일이었다. 재능은 있으나 신분이 천한탓에 사회의 버림을 받은 평민출신의 시인들이 천수경의 응지에 고무되어 《송석원》으로 구름처럼 모여들게 됨으로써 평민들의 한자시 창작은 뚜렷한 류학적경향성을 띠게 되었으며 활기에 넘쳐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천수경은 뜻을 같이하는 평민시인들과 미학적 견해를 주고받으면서 사회의 부정면을 까밝히고 인간적평등을 지향하는 시들을 널리 창작하는 한편 후진육성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었다.

《리향견문록》에 의하면 당시 그의 문하에서 시를 배우던 제자들은 보통 50~6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는 교수방법이 매우 능란하여 수강생들을 받아서는 부류별로 갈라서 교육하곤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문하에서는 수많은 시인들이 배출되었고 나중에는 글에 능하고 시를 잘 짓는 사람은 모두 천수경의 제자로 알게 되었다.

천수경은 이렇듯 평민한자시단의 형성과 발전에서 주도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송석원시사》의 형성과 발전에서 천수경이 논 역할은 다음으로 《소대풍요》에 뒤이어 《풍요속선》을 편찬함으로써 평민시인들의 창작성과를 문헌으로 고착시키고 더 높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귀중한 경험을 마련한것이다.

《풍요속선》은 1797년에 7권 3책으로 편찬되었는데 매 분책의 서두에 《금계 천수경군선권, 혈국장훈원인교》라고 씌여져있다. 이것은 이 책의 기본편찬자가 천수경이고 장훈은 주로 교열을 맡아보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천수경은 《풍요속선》을 편찬하면서 작품들을 작가별로 분류하여 편찬하였고 될수록 많은 시인들을 올리려고 노력하였다. 그것은 선행한 《소대

풍요》에 162명의 시 685수가 시체별로 분류되어 수록된데 반하여 《풍요속선》은 작품수에 있어서는 《소대풍요》보다 별로 앞서지는 못하지만 작가는 무려 3배나 되게 많이올린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여기에는 평민시인들의 대렬이 전시기보다 많이 늘어난데도 원인이 있지만 중요한게는 평민들의 자각을 보다 높여주려는 편찬자의 깊은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어있다고 할수 있다.

천수경은 우수한 시적재능과 높은 창작적안목을 가지고있었던것만큼 적지 않은 시들을 창작하였으련만 현재 전해지는것은 《풍요삼선》에 7수 올라있고 일련의 작품집들에 한두편이 실려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천수경의 시들을 보면 대체로 자기의 불우한 처지에 대한 불만과 불공평한 사회에 대한 반감을 노래하고있다. 또한 《송석원시사》의 중진으로서의 계급적자각과 인격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는데 대표적작품으로는 《구월 아흐레날 모여 놀며》, 《온종일 동산을 거닐며》, 《백종날 모여앉아》등을 들수 있다. 이런 시들에서 그는 비록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 깨끗한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지조를 지켜 참답게 살아가려는 생활적지향을 힘있게 노래하면서 은연중 자기를 용납치 않는 불공평한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표시하였다.

《송석원시사》의 형성과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은 또한 장훈이다.

장훈(1759—1828)은 자를 원일이라고 하고 호를 이이엄 또는 공공자라고 했는데 규장각 서리로 있던 중민출신으로서 천수경과 함께 《송석원시사》에서 중진으로 활약하였다.

전해지는 기록들에 의하면 그의 집은 대대로 학문에 밝고 문장에 능한 가문이었으며 아버지 장우벽은 당시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학문적영향을 많이 받은 그는 진지한 탐구심과 정력적인 노력으로 수많은 서적들을 탐독하였으며 시문에 밝아 한번 제목을 정하고 읊으면 그것이 그대로 명시로 되었다고 한다. 그는 오래동안 규장각의 서리로 있으면서 서적편찬과 수교역(글이나 책을 다 른것과 대조하여 교정하는 일)을 맡아하였는데 《규장전운》, 《규장집선》, 《인서록》, 《옥편》을 비롯한 당시의 유명한 책들이 거의나 그의 교정을 거쳐 발행되었다.

그러나 그는 출신이 천하고 집이 가난했던탓으로 하여 한생을 규장각 서리라는 보잘것없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불우하게 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 당시의 사회현실에 불만을 품고 천수경과 함께 사회적처지의 공통성으로 하여 결집된 평민들의 시가단체인 《송석원시사》에서 자주 자기의 울분을 토로하는것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는 많은 시들에

서 편견이 심한 사회현실을 저주하면서 봉건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것을 지향하였다.

그가 자유로운 생활을 얼마나 갈망했는가 하는 것은 자기의 호를 이이엄이라고 단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그의 호인 이이엄에서 《이이》는 한문문장에서 《할따름이요》, 《할뿐이요》라는 뜻을 가진 조사이다. 그는 《이이엄집》에서 자기의 호를 왜 《이이엄》이라고 달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홀로 있을 때에는 낯은 거문고를 타고 옛 책이나 보면서 비스듬히 누워있을뿐이요 생각나면 밖에 나가 산야를 거닐뿐이다. 손님이 오면 술상을 차리고 시나 읊을뿐이요 흥이 극도에 달하면 휘파람을 불고 노래를 부를뿐이다. 춥거나 더우면 내 옷을 입을뿐이요 해가 지면 초가삼간 내 집에서 쉴뿐이다. ... 이렇게 생을 스스로 즐기다가 자손이나 남겼으면 하는것이 평생의 뜻이고 바라는 바이니 복이야 누리는 못 누리는 운수를 따를뿐이다. 그래서 나의 호를 그저 그뿐이라는 뜻에서 〈이이〉라고 하였다.》(《이이엄집》 14권, 평생지)

이렇게 그는 당대 사회의 부정면을 비교적 정당하게 인식하고있는 까닭에 다른 기대는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오직 봉건사회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의 뜻대로 자유롭게 살것을 지향하였다.

그는 시 《송석원》에서 노래한것처럼 천수경과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더욱 마음을 괴롭힌것은 쌀독이 자주 비고 초가 없어서 읽던 책을 덮어야 하는 고달픔보다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신분적 불평등이었다. 하기에 그는 추위에 떨고 가난에 쪼들리며 외롭게 살면서도 자기의 뜻과 리상을 짓밟고 억누르는 봉건제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타게 몸부림쳤다.

시 《늦은 봄》은 그의 이러한 지향세계를 보여준 대표적작품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흉년을 겪느라고 근심이 절박해라
봄바람 불어와 기운이 되살고
세상과 맞지 않아 외롭게 살면서도
백성 구할 길을 찾아 읽고 또 읽노라

이처럼 그의 시들에는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과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재능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지향세계가 뜨겁게 반영되어있다.

현재 《풍요삼선》에 실려있는 장혼의 시 45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주제사상적내용이 대체로 우의 작품과 유사한 경향성을 띠고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할것은 그의 시들에서 리용된 시어들이 비교적 자유롭고 특색있게 구사되어있는것이다.

시 《벗에게》, 《천씨네 집에서》등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그는 시를 창작함에 있어서 화려한 문구나 미사려구는 될수록 피하고 소박하면서도 형상적표상이 명백히 안겨울수 있게 시어들을 찾아 쓰고 시문장을 구성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천수경과 장혼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송석원시사》에는 이외에도 많은 평민시인들이 망라되어 있었는데 《존재집》에서는 그 주요인물로서 김락서, 리의수, 김태옥, 왕태, 로운석, 박운목, 차좌일, 조수삼, 림득명 등을 들고있다. 이들은 다같이 품은 지향과 사회적처지의 공통성으로 하여 스스로 결합된 평민시인들로서 한자시창작에서 자기들의 평민적성격을 뚜렷이 살리면서 새로운 문학류를 형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물론 이들은 신분이 천한것으로 하여 사회적버림을 받았으나 많은 경우 지식으로 량반계급에게 복무하였거나 로동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모순된 사회현실을 비판하는 경우에도 봉건제도 그자체는 부정하지 못했으며 근로하는 인민들의 계급적리해관계를 대변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송석원시사》의 형성과 발전은 봉건 말기의 한자시창작에서 나타난 새로운 시대적변화와 평민문학의 류파적발전면모를 보여주었다는데 문학사적의의가 있다.

유모아

헤밍웨이의 수표

토지매매로 부자가 된 뉴욕의 한 부자가 특별히 찾아와서 헤밍웨이에게 수표를 부탁하였다.

헤밍웨이는 지평이로 모래땅위에 자기의 이름을 써놓고 매우 레절있게 말했다.

《저의 수표를 받아주십시오.》